



12

1984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4. 12호

(루게 446)



## ◆◆◆◆◆◆◆◆◆◆ 차 례 ◆◆◆◆◆◆◆◆◆◆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의 다양하고 풍부한 발전의 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지침 .....	4
환호성의 메아리 .....	10
조국의 흙 .....	10
화불 .....	11
해빛은 누리에 .....	12
왕재산을 바라보며 .....	15
친애하는 지도자 <b>김정일</b> 동지께 만민의 영광 삼가 드리네 .....	16
자주위업의 향도성 <b>김정일</b> 동지께 .....	16
온 누리에 빛나는 주체의 향도성 .....	17
못잊는 마음 .....	17
혁명적수령관을 깊이있게 구현하기 위한 형상의 몇가지 문제 .....	18
행복 .....	25
어머님께시는 마음의 고향집 .....	26
어머님의 숭고한 사랑앞에 .....	27
구룡연에서 .....	28
정다워라 직기바다 갈매기 .....	28
소원 .....	29
아, 조국아 .....	38
당일군의 전형창조와 작가적탐구정신 .....	39
우리 선전비서 .....	45
그들의 고향 .....	47
내 나라 (외 2 편) .....	48
기쁨 .....	48

산골물 돌돌.....	49
봄날아침에 (외 1 편).....	49
깊은 밤에 .....	50
초석.....	51
숲.....	63
유보도 배길 .....	70
쌀에 대한 생각.....	71
포장마차에 운명을 싣고.....	74
천신폭포 (외 1 편).....	77
향산의 물 .....	77
3 천리에 넘치는 동포애의 노래 .....	78

##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의 다양하고 풍부한 발전의 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지침

한중모

오늘 우리는 당의 경도를 높이 받들고 전체 근로자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따라 제 2차 7개년계획의 마지막해인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한 강령적인 문헌을 발표하신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게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문헌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회주의현실과 날을 따라 장성하는 인민들의 사상예술적요구에 맞게 우리의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을 더욱 다양하게, 보다 풍부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독창적이며 심오한 해명을 줌으로써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풍성한 성과를 거두고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빛나게 장식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고전적문헌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지도밑에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 걸쳐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 전면적인 개화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사상예술성이 높은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됨으로써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고 혁명과 건설에로 고무추동하는데서 문학예술의 기능과 역할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우리 나라 현실은 문학을 더욱 높은 경지로 이끌어올릴것을 요구하였다. 문학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한계단 추켜세우기 위하여서는 작품의 주제를 더욱 다양하게 개척하고 생활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하며 형상을 보다 창발적으로 특색있게 만드는것이 절박한 문제로 나서게 되었다. 그러자면 작가들의 정치적식견을 높이고 현실체험을 강화하며 개성적특성을 살리는것이 필요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시 우리 문학부문의 실태를 깊이 헤아리시고 이 력사적문헌을 발표하시여 창조와 혁신, 투쟁과 랑만으로 들끓는 생활과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현실이 요구하는 우수한 혁명적문학작품들을 창작하는데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심오한 해답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력사적문헌에서 먼저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며 작품을 특색있게 만들데 대한 심오한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작품창작에서 종자를 바로 쥐는것과 함께 그것을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는것이 중요하다. ...

작품이 완성되자면 진지한 탐구가 요구되며 작가의 창작적지혜와 재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어야 합니다. ...

100명의 작가가 작품을 쓰면 100가지 작품이 나와야 하고 그 100가지 작품이 다 내용이 다르고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형상을 통하여 현실을 반영하며 사상을 표현하는 사회적의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문학의 본성, 당사상사업의 무기로서의 사회주의문학의 혁명적본성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작품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는 문제를 종자의 형상적실현, 개인의 창발성과 집체성의 결합, 사회주의적창작원칙의 구현, 주제의 설정과 그 예술적해명, 도식주의의 극복 등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종자를 바로 골라쥐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는것은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종자는 작품의 생명을 규정하는 사상적알맹이이다. 작품을 하나의 산 유기체로 본다면 거기에 차넘치는 생명은 바로 종자에 의하여 규정되고 담보된다.

그러나 창작사업에서 종자를 옳게 잡았다고 하여 작품이 저절로 완성되는것은 아니다. 작가는 좋은 종자를 골라진 다음에는 거기에 모든 형상요소들을 집중시키고 심화해나가면서 예술적으로 잘 가꾸어야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낼수 있다. 작가가 종자를 골라쥐고 예술적으로 가꾸어 작품을 완성하려면 진지한 탐구를 거듭하여야 하며 창작적 지혜와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개성적특성을 살리는것이다.

문학은 다양하고 풍부한 인간생활과 사물현상을 형상적형식, 생활 그대로의 형식으로 재현하는데로

부터 작품마다 특색을 가지게 되며 독창성을 띠게 된다.

그런데 작품의 비반복적인 특성과 독창성은 작가의 창작적개성을 뚜렷이 살릴 때에만 보장될 수 있다. 문학은 현실생활의 형상적반영인 동시에 작가의 정신활동의 산물이다. 작가들은 개성적특성을 살려야 비반복적인 특색있는 작품을 창작하여 사람들의 사상문화교양에 이바지하고 문학발전에 독자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작가의 개성적특성은 종자를 골라잡고 문제를 설정하며 그것을 형상으로 밝혀내는 창작의 전 과정에서,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로부터 100 명의 작가가 작품을 쓰면 내용과 형식이 다르고 특성이 있는 100 가지 작품이 나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형상수법이나 표현과 어휘를 기발하고 풍부하게 찾아쓰는것은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작가들은 작품창작에서 형상수법과 표현을 생신하고 풍부하게 써야 개성적특성이 뚜렷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는것은 자유주의와 서로 다른 문제이며 이른바 《창작의 자유》를 허용하는것과 인연이 없다. 우리의 모든 창작사업은 어디까지나 당의 지도와 통제밑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우리의 작가들은 누구나 당의 방침과 요구에 맞는 작품을 써야 한다.

작품창작에서는 또한 개인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면서도 집체성을 옹계 보장하여야 한다. 집체성은 공산주의적창작원칙의 하나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문헌에서 사회주의문학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데 대하여 심오한 과학적정식화를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린다는것은 작가가 당의 사상에 엄격히 의거하고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며 집체적지혜에 의거하면서 작품의 형상을 창발적으로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당의 사상에 엄격히 의거하고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며 집체적지혜에 의거하면서 작품의 형상을 창발적으로 하는것,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작가들이 작품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옹계 살리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적립장이다. 이 정식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에서 당적령도의 중요성과 당과 혁명에 복무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의 사명과 임무, 다양하고 풍부한 현실을 개성화된 표현으로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할데 대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방법의 요구, 집단주의가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며 모든 근로자들이 동지적으로 단합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나가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대한 명철한 통찰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정당하며 심오하다.

작가들은 당의 사상에 의거하고 현실에 발을 붙이며 집체적지혜에 의거하면서 작품의 형상을 창발적으로 하기 위하여 진지한 탐구와 완강한 노력을 거듭함으로써만 개성적특성을 진정한 토대우에서 옹바로 살리고 새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진 우수한 혁명적문학작품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낼 수 있다.

창작은 본래의 의미에서 비반복적이며 독창적인 것이다.

창작사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작품의 주제가 당의 사상으로 일관되고 거기에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제를 의의있게 설정하고 목표를 뚜렷이 내세운 다음에는 작가들이 될 수 있는대로 기발하게 착상하고 생신한 표현과 어휘를 골라쓰도록 장려하고 고무해주어야 한다.

창작사업에서 도식주의는 금물이다. 아무리 잘된 작품이라고 해도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세울 수 없다.

소설이나 시나 노래나 할것없이 방향을 잘 세운 다음에는 형상수법을 다양하고 생신하게 쓰도록 창작가들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켜 모든 문예작품들이 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되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주제적이며 형상적인 문학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다채롭고 풍부하게 개화발전시키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가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에서 다음으로 현실주제의 문예작품에서 부정선을 옹계 설정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물론 우리의 생활에서는 긍정적인것이 지배적이며 우리의 작품들도 당과 혁명위업에 충실한 로동자, 농민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들의 보람찬 생활을 그리는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부정선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작품에 부정선을 넣는것은 부정을 허용하고 조장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아직 남아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반대하고 극복하기 위한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작품에 부정선을 설정하는것이 낡은것을 폭로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과정을 잘 보여줌으로써 작품구성에서의 단조로움을 없애고 문학예술을 더욱 전투적이고 혁명적인것으로 되게 하는 조건으로 된다는것을 독창적으로 해명하시였다.

작품에 부정선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주고 풀어나가며 이야기줄거리를 얼마나 긴장하고 박력있게 끌고나

가는가 그리고 갈등을 극적으로 얼마나 첨예하고 심각하게 조정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구성의 립체성과 형상의 독특성을 보장하는가 보장하지 못하는가, 작품을 흥미 있고 읽을맛이 있게 만드는가 못만드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된다.

사회주의현실주제를 취급한 문학작품에서 부정선을 옳게 설정하는것은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지식인들의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며 긍정적인것이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문학작품에서 사회주의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려면 옹당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에 충실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긍정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들의 보람찬 생활을 그리는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현실에 대한 열렬한 긍정, 새롭고 아름다운것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의 기백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정치사상적풍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문학예술에서 부정에 대한 형상의 의의를 약화시키는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에서 현실긍정의 기백은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정적인것에 대한 폭로비판의 기백과 잇닿아있다. 문학작품에 부정선을 넣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낡고 뒤떨어진 요소들을 반대하고 극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의의가 있다.

현실에서는 새것과 낡은것간의 투쟁이 끊임없이 진행되며 이 투쟁과정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된다.

우리가 진행하는 혁명은 곧 온갖 낡은것을 때려부시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새것, 선진적인것이 승리하고 낡은것, 반동적인것이 멸망하는것은 생활의 법칙이다.

문학작품에 부정선을 옳게 설정하여 투쟁의 법칙, 생활의 법칙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현실발전의 본질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며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튼튼한 담보이다.

문학작품에 부정선을 설정하고 결함을 비판하는것은 결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가리우는것으로 되지 않는다.

사회주의사회에는 낡은 사상을 낳는 경제적기초는 없지만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낡은 사상의 잔재와 뒤떨어진 생활인습이 남아있으며 이것은 전진운동에 적지 않은 장애를 준다.

현실에 있는 결함이나 부정을 감추는것은 생활을 미화분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생활을 미화분식하는것은 문학예술창작에서 생활의 진실한 반영에 어긋나며 현실을 외곡하게 된다. 생활을 미화분식한 문예작품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며 따라서 그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하고 새생활창조으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없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새것을 창조할뿐아니라 낡은것을 타파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여야 하는것만큼 작품창작에서는 긍정적인것을 기본으로 그리면서 낡은것을 폭로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과정도 잘 보여주어야 한다. 작가들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 혁명투쟁속에 뛰어들어 혁명하며 투쟁하는 현실세계를 옳게 그림으로써만 문학작품들을 더욱 전투적이며 혁명적인것으로 되게 하며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을 보다 다양하고 풍만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에서 또한 아동문학작품들을 많이 써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는 작품들이 있어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아동문학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장래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후대들을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혁명가로 키우려면 어렸을 때부터 그들에게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넣어주고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아동문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있다. 어린이들은 혁명의 후비대이며 조국의 미래이다. 혁명의 전도와 조국의 장래운명은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우는가하는데 달려있다.

우리의 아동문학은 진실하고 생동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어린이들속에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고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끝없이 충실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갈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하는 훌륭한 교과서로 되여야 자기의 본분을 옳게 다할수 있다.

아동문학창작에서 중요한것은 작품을 아이들의 정서에 맞게 만드는것이다.

아동문학작품이 아이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린이들의 심리적 특성과 정서에 맞아야 한다.

어린이들의 심리적 특성과 정서에 맞는 문학작품을 창작하려면 아이들의 세계를 파고들어 그들의 생활과 내면세계를 진실하게 그려야 하며 형상수법도 그들의 수준과 기호에 맞게 쓰는것이 중요하다. 작가, 예술인들이 세계를 파고드는 깊은 탐구와 생동하고 효과적인 형상과 표현을 찾아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통하여 아이들을 위한 좋은 소설, 시, 노래들을 많이 창작하는것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전시키는데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에서 다음으로 작가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체험을 축적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인간학입니다. 인간생활을 체험하고 인간수업을 하여야 인간학이 나오지 허공에 떠서 어떻게 인간학이 나올수 있겠습니까. 들끓는 현실속에서 여러가지 생활체험을 축적해나가며 현실속에서 사색하고 글을 써야 합니다.》**

작가들이 현실에 깊이 파고들며 생활을 실속있게 체험하는것은 문학작품창작에서 인간학의 요구를 옹기 구현하여 들끓는 현실생활을 잘 반영함으로써 시대의 앞장에 서나가면서 생활을 선도하는 기수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다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며 확고한 담보이다.

문학작품에 혁명과 건설이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더욱 활짝 꽃피어나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을 잘 반영하자면 작가들이 현실속에 깊이 침투하여 생활체험을 축적해나가며 현실속에서 사색하고 글을 쓰도록 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현실속에 들어가야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무한한 충실성, 그들의 지향과 념원, 불굴의 의지를 깊이 파악할수 있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나가는 우리 인민의 거창한 전진운동을 정확히 리해할수 있으며,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혁명화를 다치고 주체의 세계관을 더욱 튼튼히 세워나갈수 있다.

작가들은 현실속에 돌아가서 생활을 실속있게 체험하면서 창작적사색을 심화해나갈 때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안고있는 가치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생동하고 진실한 인간형상과 생활화폭을 창조하여 문학작품을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게 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가들이 생활을 다방면적으로 체험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작가들의 생활체험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로동자, 농민들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체험하여야 한다. 작가들에게 있어서는 또한 직장에 나가서 여러가지 사회정치활동을 하는것도 중요한 생활체험으로 된다. 그리고 통근길에서 도시의 들끓는 생활분위기를 직접 느끼며 사람들의 웃음어린 얼굴에서 그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는것도 생활을 체험하는 계기로 된다. 작가들은 가정적인 생활체험도 하여야 한다.

작가들이 생활을 여러모로 다양하게 체험하는것은 현실을 폭넓고 깊이있게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

려낸 우수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현실은 작가들에게 있어서 생활에 대한 지식을 얻어내기 위한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창작적재능을 꽃피울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며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내기 위한 튼튼한 바탕이다. 작가들이 현실과 유리되어 창작실에만 들어박혀서 글을 쓰려고 해서는 작품에서 다양하고 생동한 현실을 충분히 그릴수 없으며 생활에서 뒤떨어질수밖에 없다.

작가들은 약동하는 현실과 같이 호흡하고 인민대중의 장엄한 투쟁을 직접 체험하면서 창작적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속도전을 벌려야 작품의 질도 창작속도도 높일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에서 계속하여 작가들의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넓힐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쓰게 하려면 작가들의 정치식견과 안목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높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은 작가의 자질과 풍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이며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작가들이 옳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가지지 않고서는 당의 정치적요구들을 민감하게 받아몰수 없고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생활의 본질을 정확히 포착할수 없으며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맞는 혁명적인 작품들을 쓸수 없다.

문학예술창작에서 작가들의 세계관은 결정적역할을 하며 작가들은 자기의 계급적립장과 사상적지향에 따라 생활을 분석평가하고 반영하는것만큼 옳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가지는것은 작품에 생활을 정당하고 심오하게 재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작가들의 정치안목을 넓히는데서 기본은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에는 현실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주어져있다.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은 사람들에게 생활을 옳바르게 리해할수 있는 눈을 키워주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와 그 해결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작가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예리한 정치안목을 가지고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속에서 본질적인것을 정확히 식별할수 있으며 당이 요구하는 좋은 작품을 쓸수 있다. 그러므로 훌륭한 문학작품들을 창작해내려면 작가들이 여러가지 사회정치생활에 널리 참가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알고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을 민감하게 인식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작가들의 식견과 안목을 넓히기 위하여서는 그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의 문학예술작품들도 주체적립장, 계급적립장에서 보도록 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문헌의 마지막부분에서 문화예술부와 작가동맹이 창작지도와 작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력사적문헌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발전하는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혁명적문학을 찬란히 개화발전시키는데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들에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줌으로써 주체적문예사상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고 인류문예과학의 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한 고전적인 문헌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력사적문헌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따라 혁명과 건설이 끊임없이 심화발전되는 사회주의현실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을 더 전면적으로 꽃피워나가기 위한 휘황한 길을 명시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전군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어울리는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창작해내는데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문헌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10년 동안 우리의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은 당적원칙과 혁명적관점에 확고히 서서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우리 인민의 보람찬 투쟁과 약동하는 생활을 다양한 형식과 수법으로 풍부하고 심도있게 형상함으로써 공산주의적인간학의 요구를 더욱 뚜렷이 구현하고 보다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 올라서게 되었다.

지난 10년동안 우리 문학에서는 주제령역이 더욱 확대되고 사상적내용이 보다 심화되었을뿐아니라 생활을 새것과 낡은것사이의 첨예한 대립과 투쟁속에서, 새것이 승리하고 낡은것이 극복청산되는 과정으로 심도있게 그림으로써 구성조직이 훨씬 립체적으로 짜이고 생활을 한층 진실하게 재현하게 되었으며 형상수단과 언어표현을 참신하고 특색있게 쓰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은 사상적측면에서나 예술적측면에서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되었다.

이 기간에 우리 문학이 이룩한 가장 특출한 성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 력사와 숭고한 공산주의적품모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한 기념비적대작들이 수많은 창작된 것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근거지의 봄》, 《백두산기슭》, 《준엄한 전구》를 비롯한 장편소

설들, 영화문학 《조선의 별》, 《첫 무장대오에서 있는 이야기》 서사시 《인민의 위대한 태양》, 장시 《설레이라 벼바다, 강녕이바다여》, 서정시 《창밖에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등은 우리 문학이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창조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대하여 만천하에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우리 문학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문학의 주제와 내용에 당의 유일사상이 일관되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구현되게 하는데서 근본적인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를 훌륭히 실현하였다.

이 기간에 우리 문학에서는 또한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 시대정신을 구현한 긍정적주인공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들의 보람찬 생활과 고상한 사상 감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리는데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최근년간 우리 문학에서의 긍정적인물들의 형상에서 뚜렷하게 눈에 띄우는것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군용사들, 로동자와 농민들의 전형적성격을 계속 창조하는것과 함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수행에서 앞장서나가는 당일군, 3대혁명전위들, 숨은 영웅들의 높은 사상정신적품모를 심도있게 그려내고있는것이다.

장편소설 《새봄》, 《생명수》, 《평양시간》, 《령마루》, 《뜨거운 심장》, 영화문학 《초행길》, 《월미도》, 《이름없는 영웅들》,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 《산정의 수리개들》, 《청춘의 심장》, 《열네번째 겨울》, 《군당책임비서》 등은 우리 시대의 긍정적주인공,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창조에서 우리 문학이 거둔 자랑찬 성과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하며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주체형의 인간의 높은 사상정신세계에 대한 심오한 형상은 소설과 영화문학에서만아니라 시 《어머니》, 《나의 조국》, 가사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우리의 신념은 하나》, 《내 삶이 꽃피난곳》 등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시가문학분야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김철준과 차석빈, 리태운, 유림이와 순희, 정순이, 리상철과 박대성, 억만대장과 최판배로인, 최명진과 태성의 유가족어머니, 신체속과 유설경 등 우리 문학에서 형상된 주체형의 새 인간들은 생활하고 투쟁한 시기와 사업분야, 성별과 나이, 생활경로가



서로 다르지만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주도적인 성격적특징에서 공통되면서도 서로 명백히 구별되는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있다. 여기에 우리 문학에서 형성된 긍정적 주인공의 매력이 있으며 작품의 강한 사상정서적감화력을 보장하는 담보가 있다.

이 시기 우리 문학에서는 아동중편소설 《1학년생》, 《초순이》를 비롯하여 아동문학작품창작에서도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역사적문헌이 발표된 이후시기 우리 문학의 발전에 대하여 지적하여야 할 문제의 하나는 부정선을 대담하게 설정하고 온갖 낡고 반동적인것에 대하여 철저한 당적립장, 견결한 로동계급관점에서 원칙적으로 예리하게 폭로 비판하며 낡고 뒤떨어진것이 극복청산되고 새롭고 선진적인것이 승리하는 생활과 투쟁의 법칙,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천명하고 있는것이다.

우리 문학의 긍정적주인공, 주체형의 인간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높은 이상을 지니고 온갖 낡고 보수적이며 반동적인것을 쓸어버리며 새롭고 진보적이고 아름다운것의 승리를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간다. 우리 문학의 이러한 특징은 항일혁명투쟁과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혁명시기를 반영한 작품들에서뿐아니라 사회주의현실주체의 작품들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사회주의사회근로자들의 생활을 반영한 우리의 작품들에서는 낡은 사상 잔재와 뒤떨어진 생활습성에 사로잡혀 관료주의와 주관주의, 형식주의와 요령주의, 보수주의와 소극성, 안일하고 해이한 현상을 발로시키는 부정인물들을 등장시키고 그들과 긍정적주인공들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조성함으로써 구성의 단조로움을 없애고 문학의 혁명적성격과 전투적기능을 강화하고있다.

이것은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의 차병진, 림영택, 영화문학 《산정의 수리개들》의 광호반장, 《군당책임비서》에서의 박우필기사장의 형상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이 작품들은 이러한 부정인물들이 가지고있는 낡은 사상 잔재와 그것을 근원으로 하여 사업 방법과 작품, 생활 태도와 기풍에서 나타나는 결함에 대하여 심각하고 예리하게 폭로비판하고 긍정적주인공들에 의하여 그들이 자기 잘못을

뒤우치고 교양개조되는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 문학작품들은 부정선을 옹계 설정하여 낡은것을 폭로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과정을 뚜렷이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커다란 예술적감흥을 불러일으키고 낡은것을 타파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힘있는 무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었다.

작품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참신하고 특색있는 형상이 많이 창조된것은 최근년간 우리 문학이 달성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이다.

우리의 문학작품들에서 개성적특성은 종자의 탐구와 문제의 설정, 성격창조와 구성조직, 형상수단의 리용과 언어구사 등 여러면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그리하여 내용적면에서나 형식적면에서 독창적인 탐구와 새로운 특색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중편소설 《병사의 고향》은 우리 나라 현실과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종자를 골라잡고 문제를 내세우는데서 새로운 탐구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중편소설 《새봄》은 인물들의 심리묘사에서 내면독백의 수법을 능숙하게 사용함으로써 내면세계를 깊이 파고들며 심리적움직임을 섬세하게 보여주고있다. 가사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직선적인 정치적표현을 쓰지 않고 자연현상에 의한 비유를 통하여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 숨은 영웅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이 작품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며 형상을 독창적인것으로 만들기 위한 진지한 탐구를 통하여 우리의 주체문학을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 이바지하고있는 실례는 이밖에도 많이 있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개성적특성을 더욱 뚜렷이 살리고 형상을 보다 독창적이며 참신한것으로 만듦으로써 문학예술창작의 고유한 본성을 더욱 뚜렷이 살려나가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역사적문헌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우리 문학이 발전하여오는 과정에 이룩된 모든 자랑찬 성과는 문헌에서 밝혀진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진리성,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역사적문헌은 우리의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을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지침으로서 우리 작가들이 나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다.

## 환호성의 메아리

송명근

하늘을 들어올리며  
환호성이 오릅니다  
발을 구르는 웨침에  
온 유럽대륙이 흔들리는 듯

광막한 씨비리 백설의 땅은  
고이 키운 첫 장미의 향기를 담아  
베를린의 세 쌍둥이 가정은  
누를길 없는 흙모의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와르샤와의 연도와 부다페스트 광장은  
춤의 물결로  
아, 위대한 수령님 가시는 곳마다  
이어지고 이어지는 환호성 환호성...

두나이강의 유유했던 흐름우에 감돌아  
까르빠찌야산맥을 뒤흔들고  
다시  
내 가슴에 메아리로 새겨 집니다

우리 수령님  
주체의 빛발로 이 땅을 가꾸시며  
한평생 걸으신 위대한 자욱우에  
대륙만리

친선과 단결의 길우에 쌓으신  
불멸의 위업우에  
폭풍처럼 터져오른 환호성이여

거리에 마을에  
환호성이 높아갈 때  
더 높이 더 높이  
내 가슴에 나래쳐 오르는 것은  
아 위대한 수령님 모신 민족의 긍지!

하늘과 땅우에 넘치여  
우리의 가슴과 가슴에 남아  
환호성 환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높이 더 높이 받들어갈  
심장의 웨침은  
아아, 세계의 합창은!

사라지지 않는  
이 환호  
이 꽃물결우에  
위대한 수령님 높이 받들어  
영광의 명절에 우리 삽니다  
영원히...영원히...

## 조국의 흠

리순실

땅의 입김인양  
봄의 훈향인가  
아지랑이 피어나는 이른 봄날  
아버이수령님께서 이 밭에 오셨어라

아직은 눈밑에서 잠자는 땅  
뚝을 넘으시여 밭고랑에 이르신 그이  
몸소 흠한줌 쥐어드시여라  
순간 저도 몰래 울린 말  
-아버이수령님!  
흠이 잡니다

하건만 아버지수령님께선  
쥐어드신 그 흠을 비벼도 보시고  
꽂꽂 다쳐도 보시며  
조용히 하시는 말씀  
-분조장동무! 조국의 흠은 차지 않소

순간 그 말씀

내 가슴에 흘러들어  
심장을 더욱혀주는 듯  
후더워지는 이 마음!

포평나루 건느실제  
수령님 한품에 안으셨던 조국땅  
뜨거운 그 마음속에  
품고가신 조국의 한줌 흠

아, 그 한줌흠의 뜨거움은  
조국찾는 싸움길 천만리  
겹쌓인 눈얼음을 다 녹이였으니  
조국의 흠이 어이 차거우랴

토지개혁의 그날  
패말꽃핀 밭머리에서  
아버지가 움켜쥔 그 흠은  
아버이장군님 주신 땅  
너무도 고마워 감사에 목메인

후더운 그 눈물로 적시였으니

진정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의 해발  
천실만실 넘치는 땅  
뜨거운 사랑의 그 손길  
이 땅 한치한치에 깃들었거니  
어이 후덥지 않으랴

어버이수령님 우리려  
그이 쥐시였던 한줌의 그 흙을  
두손으로 정중히 받아안는 이 가슴에  
흘러드는 뜨거운것이여!

오, 그 한줌흙의 온정  
내 한생 이 땅에 쏟아부을 사랑인듯  
이 가슴 가득히 넘쳐나거니  
이 사랑속에 이 땅은 천년옥토로 기름지고  
금나락 파도치는 영원한 가을이  
세세년년 이 땅에 무겁게 실리리라

아 조국의 흙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안고  
언제나 뚫어오르는 나의 땅  
영원한 청춘이 꽃피는 대지여

## 화불

### 문성락

누리를 태우는 불길  
모이면  
태양보다 뜨거우리

우주에 넘치는 빛발  
합치면 해빛보다 밝으리

하지만  
주체의 화불이여  
그대를 우리려보니  
아득히 한점으로 안겨오누나

우주를 비쳐주는  
저 하늘의 태양도  
땅우에선  
그리도 작아보이거니

주체의 화불이여  
바라보는 눈동자에  
한점 불길로 안겨옴은  
그대의 위치 그리도 높아서인가

우리 수령님 걸어오신  
혈전만리  
그 먼길의 한끝에 솟아  
그 영광찬 길 이 세상 끝까지 이어가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으신 뜻이 어린  
세기의 하늘가에 솟아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무궁한 세월  
인류 만대의 머리우에 타오를  
주체의 화불이여

그대는 다름아닌  
태양의 불길  
우주에 넘치는  
사랑의 해빛

오 높이도 솟았구나  
자주의 삶을 꽃피울  
만민의 념원우에 받들리고  
력사의 최고봉에 솟아오른  
화불이여

수천년 세월이 흐른다 해도  
인류는  
그대보다 더 높이  
지구상에 기념비를 세우지 못하리니

이 땅 끝에서 우리의 한끝까지  
천만가슴 밝혀주며  
세기의 어둠 불태우며  
무궁한 상상봉에 솟아 빛나누나  
아 주체의 화불이여!

## 해빛은 누리에

배헌평

눈이 내린다. 축복의 꽃보라인양 강산에 눈이 내린다.

영광의 한해 승리의 한해를 떠나보내며 우리는 이해의 뜻깊었던 나날들을 돌이켜본다.

1984년!

얼마나 벅찬 감격의 파도가 사람들의 가슴을 세차게 뒤흔든 해였던가.

얼마나 뜨거운 환희의 목소리들이 유럽대륙을 진감한 해였던가

그날의 감격, 그날의 흥분이 아직도 사람들의 가슴을 대해의 파도처럼 세차게 뒤흔들고있다.

환호성! 환호성!

우랄과 카르빠찌야산줄기들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대륙을 진감하던 그 격정의 메아리는 이 지구우에서 새로운 사변을 목격하는 수억만심장들의 웨침이었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이해에 쓰련과 유럽형제나라들을 방문하신것은 인류의 지향과 공동위업을 위한 길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역사적사변이었다.

지구우에 인류가 생겨난 때로부터 수만년, 원시공동체사회로부터 계급사회가 태어나고 계급투쟁으로 사회가 발전되어온 전 역사에서 전쟁과 평화가 오늘처럼 날카롭게 대립된 시대는 일찌기 없었다.

침략과 강탈로 살찐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침략자들이 새로운 세계전쟁,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미쳐날뛰고있는 오늘 평화의 보루인 사회주의 나라들의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전쟁을 방지하고 인류를 핵참화에서 구원하는데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이룩하는데서 매우 긴박하고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쓰련과 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하시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풍파 많고 곡절에 찬 세월의 준령들을 넘고 또 넘어오신 우리 수령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국광복을 이룩하시였으며 한 세대에 미일 두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처럼 행복한 인민은 세상에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가장 금지높고 행복한 인민입니다.》**

실로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 혁명적 견결성과 원칙성으로 하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크게 이바지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세계인민들속에서 그토록 높은 존경과 신뢰, 다함없는 흠모를 받고 계시는 우리 수령님이시다.

조국의 존엄도 인민의 모든 영광도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 생각할수 없듯이 우리 인민과 형제나라인민들과의 친선단결도 평화위업도 우리는 수령님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만세!

**김일성** 동지 만세!

장장 6만여리의 그 머나먼 로정, 두달이 가까운 지나긴 나날에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을 렬차로 횡단하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이르시는곳마다 열광적인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오래오래 기다리고 간절히 뵈고싶었던 뜨거운 마음들이 환영의 꽃바다를 펼치고 흥분과 감격에 뒤설레였다.

해빛은 누리에 넘쳤다.

해빛!-그것은 만물에 생의 활력을 부어주는 위대한 숨결, 뿌리우에 줄기가 뻗고 아지우에 꽃이 피고 열매에 향기 무르녹게 하는 필수불가결의 자양이다.

뜨거운 인간애와 한량없는 덕망으로 하여 세계 어느 나라에나 가까운 동지들과 벗들을 두고계시며 한없이 겸허하고 인자하신 인민적품성으로 하여 한번 만나뵈오면 사람마다 매혹되어 스스로 영원히 따르게 되는 우리 수령님!

수령님을 뵈옵는 그 감격은 우리 인민이나 다른 나라 인민들이나 다름이 없다.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걱정, 태양을 맞이하는 순간의 환희와 기쁨!

꾸밀수도 없고 누구에게 강요할수도 없는것이 인간의 감정이다. 인간의 감정중에서도 가장 숭고한 감정-그것은 자신이 신념으로 따르는 위대한 인간에 대한 흠모의 정인것이다.

비록 수천수만리 먼곳에 떨어져있다 하여도 변함없는것이 바로 그 흠모의 정이며 십년, 이십년...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더욱 그리워지고 간절해지는것이 바로 그 마음인것이다.

바로 그 마음이 씨비리지방의 장미꽃으로 피어났고 금도장을 찍은 베오그라드의 명예시민증으로 펼쳐졌으며 와르사와에서 60리나 떨어진 오프보르크 시대표들의 뜨거운 환영인사로 위대한 수령님의 려정우에 보석주단을 펼치였다.

감출수 없고 목새길수 없는 그 마음이 비내리는 베를린거리우에 환호의 메아리로 울려퍼지고 벨가리아의 대공연무대로, 부구레슈퍼의 화려한 춤바다로 끝없이 물결쳤다.

우리 수령님 가시는곳마다 펼쳐진 전례없이 성대한 영접과 환영, 가장 진실하고 열렬한 우정과 존경, 흠모의 감정들이 뜨겁게 오고가는 감격적인 상봉들,

우리 수령님의 자기 나라 방문을 산천초목도 반긴다고 하면서 자기네 고장을 찾아주신것은 경사중의 경사라고 하는 진정에 넘친 뜨거운 목소리들...

붓나무 떡갈나무숲이 끝없이 펼쳐진 무변광대한 씨비리대지를 통과하시어 위도와 경도를 넘어 오데르와 엘바, 두나이강을 건너 아드리아해안으로 수령님 가시는곳마다 그 얼마나 뜨거운 상봉들과 감격적인 화폭들이 펼쳐졌던가!

여기에 천선의 길우에 꽃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 및 국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먼길을 가시는 것처럼 귀중한 시각에 국제주의전사 야. 페. 노비첸코를 포옹하시고 오래전에 그가 발휘한 영웅적소행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의 건강과 생활형편까지 일일이 알아보시고 그에게 가족들까지 데리고 우리 나라에 와서 휴양하도록 친히 초청하시였으며 그후에도 또다시 노비첸코가 발휘한 위훈에 대하여 깊이 회상하시면서 귀중한 선물을 안겨주시고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배려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은정과 국제주의적의리에 대한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조선과 소련, 두나라 인민들의 마음과 마음을 천선의 무지개로 이어주는 서사시적화폭인것이다.

생활적으로 전개된 이 서사시적화폭속에서 우리는 진정이란 바로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다.

야. 페. 노비첸코는 소련의 평범한 공민이다. 그는 소련의 어느 공민들과 마찬가지로 젊은 시절에 2차대전에 참가하였으며 그후에는 제대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변함없는 마음으로 쏘베트조국을 받들여왔다.

그의 한평생엔 추억도 많고 남모를 긍지와 자랑도 많았다.

허나 그 누구도 그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된 아름다운 추억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쏘베트공민의 국제주의적의무를 지켜 자기의 한목숨 주저하지 않았던 그 옛시절을 회고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존경하여마지 않았으며 그 진정이 얼마나 사심없는 깨끗한것이었던가를 언제나 긍지높이 총화해보곤하였을 그.

그 이름없는 씨비리사람을 이번에 우리 수령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뜨겁게 포옹해주시였다.

오랜 세월이 흘러갔으나 조쑤천선의 길우에 그가 흘린 피와 땀을 뜻깊이 회고하시며 인간이 누릴수 있는 가장 높은 삶의 언덕우에 세워주시고 빛내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

우리 수령님께서 국제주의전사 야. 페. 노비첸코에게 베푸신 뜨거운 은정과 크나큰 배려에는 천금을 주고 살수 없는 사랑이 깃들어있고 혁명의 의리가 흘러넘치고있다.

참다운 인간이 혁명에 바친 희생을 가장 값비싼것으로 여기시며 두고두고 잊지 않으시는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은 세상에 다시 없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가장 큰 명예를 지닌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수령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바친 사람, 필요하면 청춘을, 필요하면 생명도 주저없이 혁명에 바치며 오직 신념이 가리키는 한길우에서 변함이 없는 사람,

보람있게 한생을 살며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영생의 위치를 선택한 사람들이다.

진정!

누구나 흔히 쓰는 말이지만 이 말은 입으로 번지는 말마디가 아니다.

심장에 축적된 맹세와 각오로 하여 온몸에 피가 끓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것이 진정인것이다.

작센 헬다라고 하는 한 녀성이 있다.

그는 도이칠란드민주주의공화국의 이름없는 녀성이였다.

입원중의 환자.

왼쪽 다리에 키브스를 한 몸.

《엄격한 의사들도 **김일성** 동지를 환영하려 나가겠다는 나의 청을 막지 않았습니다. 모두 한마음이였으니까요.》

남편의 부축을 받아가며 위대한 수령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군중들과 함께 만세를 웨치는 작센 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28년만에 또다시 자기네 고장을 찾아주신다는 반가운 소식에 접한 그는 그냥 침대에 누워있을수가 없었다. 언제나 그리웠던 그이를 몸가까이 뵈옵고싶은 강렬한 흠모의 정, 가슴속에 맴돌이치는 축원의 뜨거운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억제할수 없는것이였다.

이러한 진정, 이러한 뜨거운 마음들은 위대한 수령님 가시는곳마다 감격의 춤물결, 환호의 꽃바다가 되어 펼쳐졌다.

그 꽃바다속에는 남달리 흥분된 심정으로 수령님을 맞이하는 로인들과 녀인들이 뜻깊은 추억들을 불러내며 서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6년 6월 도이첼란드민주주의공화국의 골초브농업생산협동조합을 찾으셨을 때 그곳 관리위원장으로 사업하던 힘멜 라이히로인은 수령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을 늘 꺼내보면서 인자하신 그 모습을 우러러 그날의 감격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곤하였다 한다.

손자들과 마주앉으면 위대한분을 난생처음 만나 뵈은 그 감격을 전설처럼 들려주던 그였기에 우리 수령님을 자기네 고장에 다시금 모시게 된 기쁨이 야말로 세상 비길데 있었으랴.

한없이 고결하고 인자하신 수령님의 인품과 덕망에 매혹된 그였기에 28년전의 그날을 영원히 잊을 수 없었고 이번에는 사진첩까지 정중히 마련하여 자랑스럽게 위대한 수령님 앞에 펼쳐드리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찍은 한장의 사진... 그것은 로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기념품이었고 자신의 인생행로에서 더없는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았던 한 순간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나를 감동시키고 잊을수 없게 하는것은 소박한 인민들에 대한 **김일성** 동지의 사랑입니다. 나도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라고 할수 있지요.》

궁지높이 울리는 로인의 뜨거운 심정이 어찌 도이첼란드민주주의공화국의 한 공민의 심정만이었는가.

위대한 수령님께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안겨드리며 1956년 여름 조선의 색동저고리에 연분홍치마를 입고 꽃다발을 안은채 한없이 자애론 그 품에 안겼던 그 어린시절을 못잊어하는 벨가리아의 한 녀성의 깊은 감회도 바로 그러한 심정에서 출발된 것이고 경애하는 수령님을 만나뵈옵고져 달려온 뿔스까의 의사 두르까와 그의 자손들의 마음도 역시 것처럼 진정에 넘친것이며 위대한 수령님을 다시 만나뵈옵는 감격에 눈시울 적시던 벨가리아의 **《김일성 학원》** 원장이었던 게오르기 아나소파소브 부부와 와셀까 니끼포로바가족들의 한없는 행복감도 바로 그러한 진심이었다.

어디에 가나 오래전부터 우리 수령님과 인연이 깊은 고장들, 어디에 가나 어버이수령님과 연고관계를 가진 우리의 친근한 벗들...

이번에 우리 수령님께서 소련과 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하심으로 하여 더더욱 아름답게 피어난 친선의 대화원속에는 영원히 잊을수 없고 영원히 헤여질수 없는 참다운 벗들이 헤아릴수 없이 늘어났다.

따사로운 해빛아래 수억만 꽃송이 다투어 피어나듯이...

해빛은 누리우에 차고넘친다.

광활한 씨비리대지우에도 엘바와 두나이강 물결우에도 대양과 대륙을 넘어 이 세상 한끝까지 울려 퍼지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

해방후 이듬해 봄 혁명시인 리찬은 그토록 꿈결에도 그리워마지않던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는 감격을 이렇게 노래하였다.

장군이 오시는것은 아, 아무도 몰랐으나  
장군이 오신것은 누구나 알았다.  
장군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장군은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  
...

아 장군의 씩씩한 보무를 따라  
바야흐로 무르녹으려는 북조선의 탄만한  
봄을 보아라!

장군은 바쁘다, 바빠야 한다  
기억하자, 장군은 우리만의 장군이 아니요

장군은 남조선도 비칠, 남조선도 비쳐야 할  
아아, 삼천리 전 강토의 위대한 태양  
장군은 만민의 령장, 인류의 태양  
동방에서 솟은 태양, 온 누리를 비치리!

벌써 근 40년전에 시인은 젊으신 수령님을 한번 만나뵈옵고 그이를 태양으로 칭송하였으며 우리의 태양이 누리를 비치리라고 격조높이 예언하였다.

그렇다,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이 오늘 온 누리를 비치고있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위대한 당을 따라 나가는 우리 인민의 이 영광!

세상사람들의 부러움과 축복속에서 가슴부풀도록 느끼는 한없는 이 궁지!

우리 인민모두에게 똑같이 차례지는 이 숭고한 행복감은 자기의 수령, 자기 당과 함께 영광도 시련도 체험하면서 가슴속에 새겨넣은 진리-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영광스런 당의 령도를 따르는 길에 오늘의 승리가 있고 래일의 희망이 있다는 확고한 신념에서 분발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 계시고 어머니당이 있으면 그만이라는 그 생각이 아이들로부터 늙은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이어진 우리 인민의 공통된 감정, 그 하나의 감정을 안고 우리 인민은 형제나라인민들의 열렬한 환호에 답례하시며 축원의 꽃바다를 헤쳐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신문과 방송에서, 텔레비죤화면에서 가슴뜨겁게 바라뵈왔거니 어찌 격정의 눈물 환희의 감정이 솟구치지 않았으랴.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이 세상 끝까지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런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한길에서 형제나라인민들과의 친선과 단결을 더욱 두터이해나갈것이며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위업에 끝까지 충실할것이다.

## 왕재산을 바라보며

박계동

나는 떠난지 열한해나 되어 고향 량수천자를 처음으로 다녀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데 벌써 11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 어찌 고향에 가고싶지 않았으랴. 태를 묻고 자란곳, 뼈를 굳힌 고향인데 언제나 가고싶고 늘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고향이었지만 일이 바빠 눈코 뜰새없이 돌아치다나니 그사이 한번도 다녀오지 못했었다.

그러던차에 얼마전 나는 만사를 뒤로 미루고 고향에 갔었다. 그것은 항일의 그 어렵던 나날에

**김일성**장군님께서 고향땅 량수천자 술골을 다녀가셨고 또 그곳을 거쳐 두만강너머 왕재산에 오르셨었는데 오늘 왕재산마루에는 대기념비가 솟고 그 기슭에는 사적관이 일떠섰다는 고향친구의 편지가 가보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도록 가슴을 뒤설레이게 했기때문이었다. 하여 나는 걸음보다 마음이 앞서 날다싶이하여 그곳에 갔다. 기차로 500리, 또 자동차로 60리를 달려 량수천자땅을 밟은 나는 피로도 풀념을 내지 않고 그렇게 그림던 송아지동무며 다정한 이웃도 찾지 않은채 또다시 15리길을 걸어 술골을 먼저 찾았다.

술골이 나한테는 낯선곳이 아니다. 소학교를 다니던 철부지시절에는 동무들과 함께 해마다 여름이면 풋살구 따러 갔됐고 중학시절에는 들모임하러 가서 놀던곳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건한 마음을 한가득 안고있는 나였기에 술골땅의 일목일초도 무심히 스칠수 없었고 한개의 조약돌도 밟기가 서슴어졌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이 땅은 일제놈들의 발굽아래 벌레보다 못한 운명을 지니고있던 인민들에게 해발같은 사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불멸할 사랑의 전설이 깃든곳이거니.

청사에 길이 빛날 1938년, 일제의 학정밑에서 모진 수난을 겪던 나라 잃은 우리 겨레가 한결같이 흠모하고 우러르던 **김일성**장군님께서 글썽 술골을 찾으시지 않았는가.

그이께서는 한 농가에 드시여 설음많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부터 백까지 헤아려주시며 손수 도끼를 들고 장작까지 패시였다. 할아버지는 그이가 누구이시란걸 알고는 너무나 감격하고 황송해서 떨리는 마음을 안고 만류하였지만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쓸쓸하고 어둡던 산골을 환히 비쳐주시려는듯

해와 같이 밝은 웃음을 지으시면서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이랍니다.》라고 하시였다.

오늘은 그 초막 옛터도 찾을길 없고 그 할아버지의 생사도 알길 없건만 **김일성**장군님의 그토록 고매한 덕성은 가슴에 더욱 뜨겁게 안겨오고 그 숭고한 모습만은 더더욱 뚜렷이 떠오른다.

민족해방의 중책을 한몸에 지니시고 강도일제를 쳐부시는 정전의 진두에 서신 그이, 그 존함만 들어도 왜놈들이 전율하였다는 강철의 령장 **김일성**장군님께서 삶에 대한 희망마저 잃고 술골의 초막에 이름도 몸도 묻고 사는 불행한 할아버지한테 이처럼 다함없는 사랑을 안겨주시지 않았는가. 내 소시적에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알고있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은 그렇게도 자애로운분이시였다. 인민에게 돌려주신 그 사랑의 깊이는 얼마고 그 끝은 어디일가. 그런 사랑으로 인민을 보살펴주시였기에 비바람 사나운 만주광야에서, 눈보라 휘몰아치는 백두의 밀림에서 15성장 긴긴세월 백만 왜적과 맞서싸워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을 성취하실수 있지 않았겠는가.

두만강기슭에서 건너다보니 강을 따라 산기슭에 뻗은 큰길로 조선의 소년단원들의 행렬이며 어른들의 행렬이 왕재산혁명사적지로 강물처럼 끝없이 굽이치는데 나의 마음도 걸음걸음 따라선다.

싱그러운 술바람이 감도는 왕재산마루에 창공을 떠이고 거연히 솟은 대기념비를 우러러보면서 나는 더욱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였다.

그이의 사랑이 고여서 불패의 위력이 생겨나고 그이의 사랑이 나래쳐서 천리마속도를 펼치게 하고 그이의 사랑이 빛나서 찬란히 앞길을 밝혀주고있는것이다.

민족의 태양이신 그이의 은혜로운 영원한 사랑속에서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이여 더욱더 행복하고 번영하라!

조선민족의 기상을 온 누리에 펼치라!

우리 서로 나라는 달라도 하나의 지향으로 마음은 이어졌거니 공산주의새날을 앞당겨가는 한길에서 손잡고 달려가자.

(필자, 중국 흑룡강성 녕안현 목단강조선중학교 교원)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만민의 영광 삼가 드리네

존 리한위케 고평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한몸에 지니시고  
주체조선에 태어나신 위대한분  
그이는 탁월한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의 사상과 령도 밑에 인민은 전진하며  
승리의 만세 심장으로 웨치나니  
만세! 만세! **김정일**동지 만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영명한 후계자  
그이는 인민을 자주의 한길로 이끌어 나아가시는  
절세의 위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  
높이 우러르는 인민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삼가 드리네

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는 주체위업의 빛나는 계승자  
그이는 조선혁명을 이끄시는 진정한 애국가  
그이의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  
그것은 조선에 위대한 실천을 낳고  
그것은 온 누리에 자주의 새 역사를 펼쳐주어라

주체사상의 기치 높이 드시고  
그이께서 걸어오신 로정은

제국주의에 대한 단호한 투쟁의 력사  
그이께서 반제자주의 한길로 이끄시어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  
인이 되고  
조선에는 인민의 락원 일떠서고  
세계는 자주의 한길을 따라 전진하며 승리하여  
나아가고있어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는 인민의 희망과 념원의 체현자  
조선인민과 세계 피압박인민들의 승리와 영광 그  
이께 달려있나니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간의 존엄은 활짝 꽃  
펴나고  
조선인민은 통일된 강토우에  
주체위업의 대화원 꽃피워가리

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는 사상의 천재 령도의 천재 위대한 실천가  
그이의 령도밑에 우리는 자주적인 새 사회를 반  
드시 일떠세우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만민의 영광 삼가 드리네

(필자 탄자니아 다르 에스 살람민족  
교육대학 신문주필)

## 자주위업의 향도성 김정일동지께

무스타파 아싸르

크고작은 산밭들을 안고  
흰눈을 머리우에 인  
조종의 산  
주체의 려명 밝아온  
혁명의 성산 백두산  
여기시 2월의 봄을 안고 솟아오른  
조선의 향도성  
아 그이는 **김정일**  
**김정일**동지이시여라

그이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  
그이는 인민의 지도자  
우리모두의 스승이시여라

빛나는 예지로 앞길 밝히시는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로  
오늘의 조선은 활짝 꽃피웠나니  
조선은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공업강국  
자주위업의 참모부



세계의 진보적량심들은  
여기 조선으로 쏠리어라

자주의 찬란한 빛발아래  
주체사상신봉자들의 대오 날로 늘어나고  
5 대륙에 인민의 새 사회 꽃피어나고있어라

자주의 빛발은 뛰르끼예땅에도 비치여  
사람들의 가슴가슴에  
투쟁의 방법 승리의 신심 안겨주나니  
반혁명과 파쑈의 먹장구름은 가셔지고  
민주주의 사회주의의 새날은 밝아오리라

## 가사

# 온 누리에 빛나는 주체의 향도성

모하메드 파트히 엘 빌레쉬

조선의 봄 인류의 봄을 안고  
백두의 2월에 탄생하신분  
그이는 동방 조선의 새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주체의 락원 꽃피우시며  
조선의 영광 펼치시는분  
그이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

만민이 우러러따르는  
사상리론의 거장  
령도예술의 천재  
아 그이는

**김정일**

**김정일**동지

그이는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자주위업의 향도성이시여라

(필자 리비아 베이다 테라회사에서  
일하는 토이기 기사)

영명한 지도자 **김정일**동지

사람중심의 진리 밝히었고  
사막에 생명수 안겨주시는분  
그이는 자주시대의 향도성  
세기의 지도자 **김정일**동지

(필자 예짚트 음악가)

## 못잊는 마음

차영도

오신길 수천리  
틀리시여 잠시,  
먼먼길 또다시  
우릴 위해 가시였네

철의 기지 김철에  
더 많은 쇠돌 보내야 한다고  
떠나가신 그 길은  
금패령 넘어 무산으로 가신 길

그 길이 지척이라면  
바래드린 마음 이처럼 젖어오라  
우릴 위해 그 먼길 또 가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오시여, 내내  
기쁘시여 그냥  
열간압연의 뜨거운 열풍속에

그이 서서만 계시고

한번 잠시 우리와 함께  
여기 구내숲 공원의자에  
앉아도 못보시고, 쉬여도 못보시고  
가셨으니 그 길이 또 먼 오백리!

아, 쇠돌은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험한 먼길은 그이께서 가셨으니  
못잊겠네, 구름속에 넘으신 험한 금패령  
못잊겠네, 령넘어 가고 가신 그 먼먼길

오늘도 그이의 뜻 받들어  
더 많은 쇠물을 끓여갈 마음  
김철의 이 불같은 마음속엔  
금패령이 자꾸만 높이 솟아오네

-김책제철소에서-

## 혁명적수령관을 깊이있게 구현하기 위한 형상의 몇가지 문제

류 만

혁명적수령관을 깊이있게 구현하는것은 오늘 우리 문학예술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원칙적인 문제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적수령관에 관한 과학적인 리론을 창시하십시오으로써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수령관을 구현하는 문제에 명백한 해명을 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수령관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립장과 자세입니다.》

혁명적수령관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이 근로인민 대중의 최고뇌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서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고 보는 견해와 관점이며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가장 순결하고 견결한 충성심을 지니고 모든것을 다바쳐 수령을 받들어모시며 참된 마음으로 믿고따르는 자세와 립장이다. 다시 말하여 그것은 수령을 가장 위대한 분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무조건 받드는 자세와 립장이다.

혁명적수령관의 이러한 본질로부터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며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백방으로 옹호보위할뿐 아니라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할데 대한 혁명적수령관의 요구가 나서게 된다.

이렇게 놓고볼 때 문학예술작품에서 혁명적수령관을 구현하는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문학예술작품에서 수령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와 관점과 함께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을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진실하고 심오하게 구현하는 문제라고 말할수 있다. 즉 수령이 인민대중의 최고뇌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력사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고 보는 견해와 관점, 수령을 가장 위대한 분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무조건 받드는 자세와 립장이 주인공들의 성격과 생활에서 작품의 형상발전에서 힘있게 울려나오고 절절하게 표현될 때

그러한 작품을 두고 혁명적수령관이 구현된 작품이라고 볼수 있는것이다.

문학예술작품에서 혁명적수령관을 구현하는 문제는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문제와 밀접히 련관되고 통일되어있으면서도 구체적인 형상에서는 다른 측면들을 가지고있다.

문학예술작품에서 혁명적수령관을 구현한다는것은 어디까지나 수령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관점,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을 그리는 문제인것만큼 그것은 작품에서 수령의 위대성을 심오하게 밝혀낼것을 전제로 한다.

수령에 대한 옳은 견해와 관점, 자세와 립장은 그 어떤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나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수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깊이 인식하고 체득한데 기초하여 생겨나는 고상한 사상감정이다. 때문에 작품에서 혁명적수령관을 잘 그리자면 수령의 위대성을 심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에 대한 형상은 작품의 주제와 성격에 따라 달리 될수 있지만 그 형식과 방법이 어떠하든 모든 작품에서 이 선이 관통되어야 한다. 수령의 영상을 모신 작품에서는 더 말할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작품에서도 수령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에 대한 형상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령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그릴데 대한 문제가 곧 작품에서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문제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혁명적문학예술에서 수령형상창조문제는 일반적으로 수령을 중심에 내세우고 수령의 혁명활동을 그림으로써 수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생활의 산 화폭으로 보여주는 문제이다.

수령을 작품의 중심에 내세운다는데로부터 수령형상작품은 그 창조에서 그에만 고유한 사상미학적 원칙과 요구, 방도를 가지며 이로써 다른 작품창작과 구별되는것이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한 작품들은 수령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그 어느 작품에서 보다도 전면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그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와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혁명적수

령관을 구현하는데서 수령형상작품은 첫자리에 놓이며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와 함께 혁명적수령관을 구현하는 문제는 수령에 대한 옳은 견해와 관점, 자세와 립장을 그리는 문제인것만큼 그러한 관점과 립장이 형상으로 밝혀지도록 수령의 형상을 직접 창조하지 않는 작품에서도 수령의 위대성을 옳게 그려내기 위해 사색과 탐구를 다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수령의 형상을 직접 창조하는 경우뿐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수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이 깊이있게 형상되고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산 체험에 기초하여 주인공들이 느끼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상감정이 뜨겁게 표현될 때라야 진정으로 혁명적수령관이 구현된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참다운 교양적가치를 가질수 있다.

혁명적수령관은 주체형의 인간들에게 있어서 성격의 핵을 이루며 모든 사상정신적품모를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근본바탕으로 된다. 문학예술작품들에서 혁명적수령관을 깊이있게 구현하여야 주체형의 인간들의 사상정신적특질을 심도있게 밝혀내고 작품의 사상예술적 품위와 감동성을 더욱 높일수 있으며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수령관을 구현하는 문제를 형상으로 실현하는 문제는 다양한 측면과 많은 문제점들을 포괄하고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작품의 종자와 성격에 맞게 구체적으로 특색있게 해결되어야 한다.

여기서 모든 작품창작의 경우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것은 구체적인 형상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든 그 출발적전제로서 작품들에서는 언제나 혁명적수령관의 본질적내용이 주인공들의 성격과 형상전반에서 그 사상정신적품모로, 사상적지향으로 웅심깊게 밝혀져야 한다는것이다. 혁명적수령관의 본질적내용을 성격과 생활을 통하여 더잘 그리기 위한데 기본을 두고 형상을 심화하는데 새로운 탐구의 세계가 있다.

문학예술작품에서 혁명적수령관을 형상으로 잘 구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그것을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주인공들의 체험세계와 결부하여 그리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수령관은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노는 결정적역할에 대한 과학적인식과 력사적체험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옹호보위하며 변함없이 믿고 따르는 사상감정은 수령의 위대성을 잘 알고 그것을 심장으로 깊이 체득한데 기초하여 생겨나게 된다.

수령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에 대한 깊은 체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령이시야말로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고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체험세계가 깊어지면 질수록 수령에 대한 신뢰의 정과 흥미심, 수령을 진심으로 받드는 마음이 더욱 강렬해지고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것이며 결국 수령만을 믿고따르려는 마음이 혁명적신념으로, 의리로 굳어져 영원불변한것으로 빛을 뿌리게 된다.

혁명적수령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는것과 같은 문제는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사람들의 력사적이며 구체적인 체험세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수령의 위대성을 절감하는 주인공의 체험세계가 그의 생활로정과 사상정신적 및 심리적상태와 결부되면서 절절하게 그려져야 주인공들이 지닌 수령관의 높이가 설득력을 가지고 잘 표현될수 있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에서 유철이를 비롯한 혁명가들이 지닌 혁명적수령관이 이처럼 웅심깊게 격조높이 표현될수 있었던것은 바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보고 듣고 느끼는 그들의 체험세계가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그려졌기때문이다.

작품에서 보는것처럼 유철은 현명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것으로 하여 뼈아픈 고통과 갖은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서울과 간도의 여러곳을 방황하며 체노라하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폭동에도 참가했지만 그렇게도 갈망하는 령도자는 만나지 못하였다. 걸음마다 실패와 어두운 감방이 그를 기다리고있을 뿐이었다. 때문에 그는 저물어가는 밤하늘에 대고 《나에게 길을 가르쳐다오. 조선이 나가야 할 길을 가르쳐다오!》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는것이다. 이러한 그에게 있어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하여 알게 된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심정 그대로였다. 일찌기 서대문형무소에 있을 때 길희선철도부설반대투쟁과 일화배척투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조선혁명의 새로운 지도력량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졌던 유철은 길림감옥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파견하신 공작원을 통하여 언제나 마음속에 고이 지녔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감격적인 소식을 들은 뒤로 수령님에 대한 흥미의 정을 억제할수 없어 무기징역의 고초를 겪으면서도 한시바빠 그이를 만나뵈옵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고싶은 열망에 가슴불태우는것이다. 특히 감옥에서

출옥한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기 위한 조직선을 찾아헤매던 나흘간 만나는 사람들마다가 뜨거운 흠모의 정을 담아 이야기하는, 아직은 만나뵙지 못한 그분의 영상을 머리속에 그려보며 유철은 조선을 건지고 민중을 해방해주실분은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밖에 없으며 **김일성** 동지이시야말로 비운에 잠긴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절절한 기대와 념원을 표시하는것이며 그이를 만나뵙고 가르치심을 받은 다음에는 위대한 혁명의 수령, 절세의 애국자, 민족적영웅으로 높이 칭송하는 것이다. 이 모든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보고 듣고 느끼는 과정에 유철의 가슴속에 뿌리내리고 신념으로 다져진 심오한 체험세계와 결부되어 있는것이다.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히시고 혁명의 초행길을 진두에서 개척하여나아가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이런 체험세계가 있음으로 하여 소설에서는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는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히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라는 조선혁명가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심오하게 표현될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체험세계에 기초함으로써 주인공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도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심오하게 밝혀질수 있었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주인공들의 성장발전과정을 혁명적수령관이 서가는 과정과 밀접히 결합시켜 그리는것은 성격형상의 근본요구로 나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가극 《은혜로운 해빛아래》를 보시고 주인공을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으로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인공이 가끔 고민도 하고 동요도 하다가 수령님의 덕성에 고무되어 그의 성격이 성장하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에 고무되어 성격이 성장하는것으로 그려야 한다는것은 주인공들에게 있어서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체험세계가 점차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과정 즉 수령관이 서가는 과정에 성격이 성장하는것으로 그려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인공들의 성격발전과정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결정적이며 중요한것은 수령의 령도이다. 평범한 보통사람들이 생활의 온갖 풍파속에서 헤매이다가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되는것도, 투쟁의 길에서 공산주의혁명가로 성장하게 되는것도 다 수령의 탁월한 령도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사람들은 투쟁의 길에서 수령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받아안고 그에 공명하게 되며 그 사상과 로선을 관철해나가는

은 과정에 정당성을 확신하고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바로 혁명적수령관이 형성되고 심화되여가는 과정이며 동시에 주인공에게 있어서 유일사상체계가 서고 성격이 장성하는 과정으로 되는것이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에서 주인공 유철의 성장과정도 바로 혁명적수령관이 서가는 과정과 일치하고있는것이다.

그가 아직은 참다운 령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수령관이 서지 못하였을 때에는 온갖 주의자들의 력설에 귀를 기울여도 보았고 각종 《운동》에도 빠짐없이 참가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혁명의 참된 길을 찾지 못하고 우여곡절에 찬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혁명투쟁의 전야에 있는 일들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령도자에 대한 동경이 싹트고 그러한 령도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령도자를 만나뵙고싶은 열망에 불타면서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싶은 그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유철은 마침내 참된 혁명의 길은 어디에 있으며 혁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품모와 리상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깨닫게 되며 주체형의 혁명가로 성장하게 되는것이다.

이것은 작품에서의 혁명적수령관이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절절한 체험세계에 기초하고있으며 이 체험의 과정이 그대로 주인공들의 성장발전과정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준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주인공들의 체험세계는 그것이 혁명적수령관 구현의 근본전제로 되며 성격장성과정과 밀접히 련관되어있으므로 이 체험세계를 여러 측면에서 깊이 파고들어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수령의 위대성을 느끼는 주인공들의 체험세계를 구체적으로 파고들지 않고 수령관을 구현하려는 욕망만 앞세워 요란한 대사나 주고 구호나 웨쳐댄다면 거기에 일반적의미에서의 사상은 있을지 몰라도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적인 사상,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공감시키는 사상적힘은 있을수 없으며 주인공들의 성격장성과정도 제대로 그려낼수 없다.

특히 우리 문학예술작품에서의 혁명적수령관은 주체형의 인간들이 지닌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감정이기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신념의 목소리가 되여야 하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의 거울이 되여야 하는것이다. 따라서 수령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에 대한 주인공들의 체험이 일정한 로정과 단계를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그려져야 혁명적수령관이 생경한 론리로서가 아니라 감성적이며 생동한 생활의 산 형상으로 뜨겁게 안겨올수 있다.

문학예술작품에서 혁명적수령관을 형상으로 옮겨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한 수령관의 구체적인 표현을 잘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수령관의 구체적인 표현을 그린다것은 결국 수령의 위대성을 보고 듣고 느낀 주인공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발현되는 수령관은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 문제로서 그것은 작품에 혁명적수령관을 옮겨 구현할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실지생활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령에 대한 태도와 관점, 자세와 립장은 다양하게 표현된다. 그것은 때로는 수령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과 덕성을 체현하면서 수령에 대한 열렬한 존경과 흠모심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때로는 수령이 이끄는 길만이 가장 정당한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령님께서 주신 크나큰 사랑과 은덕에 보답하려는 실천행동을 통하여 표현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열렬한 흠모심과 실천행동은 밀접히 결합되어 표현되는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혁명적수령관의 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표현과정을 생활 그대로의 진실에 기초하여 심오하고 감명깊게 그려내는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응당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의 하나는 주인공들에게서 표현되는 수령에 대한 흠모심을 잘 그리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창조과정을 지도하시면서 가극에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선을 넣고 그것을 시종일관 끌고나 가니 아주 좋다고 지적하시였다.

흠모심은 수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고매한 덕성을 뜨겁게 체현한데서 우러나오는것으로서 수령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높이 모시고 받드는 숭고한 사상감정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참다운 흠모심은 심장속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절절하게 흘러나오는것이기때문에 그것을 잘 그리는것은 주인공들이 지닌 혁명적수령관을 사상정신적측면에서 옮겨 구현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실천행동을 통하여 표현되는 충실성의 바탕을 심원하게 밝혀낼수 있게 한다.

흠모심은 구체적인 형상에서는 다르게 될수 있지만 흠모의 선을 설정한 작품에서나 그렇지 않은 작품에서나 다 심오하게 그려져야 한다.

흠모의 선을 설정한 작품에서는 그것을 일관하게 끌고나가면서 거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것이 중요하다.

흠모의 선을 일관하게 끌고나간 작품이란 그것을 주되는 감정선으로 설정하고 주인공의 사상정신적 높이와 바탕으로 되게 하고있는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주인공들의

흠모심을 어느 한 대목에서 강하게 보여주는데 그 질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인공들이 부닥치는 생활의 다양한 정황에서 끊임없이 열렬하게 표현되고 승화되면서 주되는 감정선으로 줄기차게 흘러가도록 되게 하여야 하는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이나 장편소설 《축원》 등은 긍정적인 시사를 던져준 의의있는 작품들이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선을 핵으로 하고있는 사정과도 관련되지만 작품전반에서 흠모선을 일관하게 끌고나간 작품으로서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아직은 당원이란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당원들과 투쟁의 한대오에 섰던 애 어린 연옥이, 당원들의 자기 희생적인 영웅성을 목격하며 그 당원들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싸우는 사람들 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심중에 확 달아오른것은 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이었다. 환자수송의 무거운 임무를 받고 적후의 준엄한 길을 헤쳐가며 마침내 당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자기의 몸으로 기충탄을 막아 부상병을 구원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치기까지의 그의 짧은 한생이 곧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심이 싹트고 자라나 더욱 깊어지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과정이었다. 작품에서는 그의 이러한 흠모심을 걸음마다 사무치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 장군님의 품에 안기고픈 간절한 소망, 꿈을 꾸어도 장군님을 만나뵈옵는 꿈을 꾸고 죽어서도 장군님의 품에 영생하리라는 등 감동적인 사실을 통하여 주되는 감정선으로 일관하게 끌고나가면서 거기에 주인공들의 숭고한 영웅주의와 혁명적동지에,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 등 모든것을 복종시킴으로써 흠모심의 참다운 높이와 그에 기초한 다양한 감정세계를 생동하게 일반화하였다.

장편소설 《축원》 역시 흠모의 선에 모든것을 복종시켜 일관하게 끌고나간 형상적특성을 잘 보여주고있는바 이 작품에서는 그것이 주인공 한씨와 그 일가를 통하여 주로 표현되고있는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특히 소설에서는 해방된 이듬해 이른봄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개답공사장에 찾아오시여 한씨의 손바닥우에 담배 한대를 놓아주시며 고생한 손에 담배 한대밖에 놓아줄것이 없노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토지개혁의 력사적사변을 마련하시던 숭고한 모습과 인민군대 련대장이였던 한씨의 딸아들 무학이가 최후를 앞둔 순간에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따를데 대한 간절한 부탁을 담아 남긴 유서를 두고 때로는 그것을 사실에 대한 재현으로, 회상으로 여러차례 반복하여 그림으로써 자나깨나 오로지 장군님의 안녕과 만수무강만을 바라는 주인공 어머니의 열렬한 흠모심을 일관하게

잘 그려내었다. 이것은 작가가 소설에서 흠모선을 설정한데 그치지 않고 모든것을 거기에 복종시키면서 그것을 일관하게 끌고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주도세밀하게 노력하였는가를 뚜렷이 보여준다. 작가의 진지한 탐구와 노력이 있음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주인공 어머니의 흠모심은 매번 새로운 높이와 특징을 보여주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줄기차게 흘러가고있으며 그것이 마침내 뜻깊은 선거장에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영원한 충성을 아뢰는 신념의 목소리로 힘있게 울려 퍼질수 있었던것이다.

이처럼 흠모의 선을 설정한 작품에서는 그것을 주되는 감정선으로, 모든것을 거기에 복종시켜 일관하게 끌고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야 주인공들에게서 표현되는 흠모심을 응당한 폭과 깊이를 가지고 감명깊게 그려낼수 있으며 흠모선을 통한 혁명적수령관을 심오하게 밝혀낼수 있다.

흠모의 선을 설정하지 않은 작품들에서는 흠모심이 일관한 흐름을 이루지 않지만 여기에서도 그것을 일정한 계기에서 집중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내는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자면 작품에서는 흠모심이 절절하고 뜨겁게 표현될수 있도록 감정축적과 전체를 잘 주어야 하며 바로 그러한 흠모심이 그렇게 표현될수 있도록 계기를 바로 설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감정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흠모심과 같이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감정은 충분한 생활적인 전체와 축적, 일정한 계기에서 표현될 때라야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킬수 있기때문이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의 리석준로인이나 《생명수》의 정순갑로인은 우리 인민모두가 그러하듯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을 가슴속에 고이 지니고있었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흠모심을 리석준로인의 경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후의 어느날 새벽 보통강반을 거니시다가 앞뭇보는 그를 만나시여 그의 소박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여주시는 감동적인 사실을 통하여, 정순갑로인의 경우에는 물고생으로 늙어오며 얻은 병을 고치고 어지돈물이 흘러드는것을 볼수 있도록 하여주시는 사실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그리었다. 두 작품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로인들의 열렬한 흠모심은 다 착취사회가 가져다준 불행이 가셔지고 평생소원이 풀리는 뜻깊은 순간을 계기로, 피눈물나는 과거생활을 거쳐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참된 삶을 누려오면서 뿌리내리고 다져진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축적된 기초우에서 표현되는것으로 집중적으로 그림으로써 것처럼 절절하고 진실하게 표현할수 있었다.

이처럼 작품에서 표현되는 흠모심은 반드시 전체와 축적과정을 거쳐야 하며 타당한 계기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그려지는 흠모심은 그것이 뜨겁고 절절할수 없으며 형상의 론리에도 맞지 않고 사람들을 감동시킬수도 없다. 주관적욕망이 앞서서 주인공들의 흠모심을 설득력이 없이 그런 작품보다도 어느 한두대목에서라도 축적과 전체를 가지고 일정한 계기에서 표현되는 흠모심을 그려낸 작품이 주인공들이 지닌 혁명적수령관의 높이를 더 잘 보여주며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키는것이다. 이것은 작품에서 주인공들의 흠모심을 형상화해서 반드시 그러한 흠모심이 나올수 있는 감정축적을 잘해주고 타당한 계기를 옹계 설정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혁명적수령관의 구체적표현과정을 잘 그리자면 흠모심과 함께 또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과정을 심도있게 그리는데가 중요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82년 2월 25일 어느 한 영화를 보시고 수령관이 잘 나타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문제는 수령님께서 어떤 방침을 제시하시고 주인공이 수령님께서 주신 방침을 어떻게 관철했는가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수령관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자세와 립장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수령의 절대적지위와 역할에 대한 옳은 관점,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받드는 자세와 립장은 결코 사상감정의 표현으로 그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표현되는 동시에 구체적인 실천행동에서 나타나야 한다. 력사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절대적인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옳은 견해와 관점, 수령을 높이 모시고 받드는 자세와 립장이 흠모심과 같이 사상정신적측면에서뿐아니라 실천적인 행동의 측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 혁명적수령관을 구현하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실천활동은 매우 광범한 내용을 포괄하고있다.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볼 때 이러한 실천활동은 그자체를 형상적으로 재현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보다는 그 때 실천 투쟁과 활동을 수령을 모시고 받드는 자세와 립장과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말하자면 주인공들이 벌리는 실천 투쟁과 활동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정신의 구체적표현이

며 그 과정을 통하여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드는 자세와 립장이 더욱 숭고한 경지에 이르고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인하여야 하는것이다.

이것은 주인공들의 몇마디 대사나 작가의 일반적인 강조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그야말로 수령의 사상과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주인공들의 투쟁의 전 과정에서 수령의 위대성을 체험한데 기초하여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수령의 은덕에 진심으로 보답하려는 혁명적신념과 의리로부터 흘러나오는것으로 되어야 커다란 감화력을 가질수 있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 나오는 오중훈의 형상이 이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오중훈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호모심뿐 아니라 수령님을 옹호보위하고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활동을 통해서 수령님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며 따르는 혁명전사의 숭고한 품모를 보여주는 참다운 전형이다.

다 해어진 짚신을 신고 홀잡뱅이바람으로 유격대에 입대한 오중훈은 사령관동지의 품속에서 처음으로 혁명에 눈을 떴고 10년가까운 세월 대원으로부터 분대장, 소대장, 정치지도원, 중대장을 거쳐련대장으로 자라났다. 이러한 그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호모심은 남달리 뜨거웠고 그만큼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관철하는데서는 한치의 드림도 없었다.

그가 무기와 탄약, 식량 등 전투예비물자를 마련할데 대한 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을 받고 예비물자를 마련하여 지정된 장소에 묻을 때였다. 언제나 기관총에 눈독을 들여온 최창호가 기관총 한정을 자기에게 줄것을 간청해나섰을 때 그의 간절한 심정을 모르는바 아니였지만 오중훈은 사령관동지의 원대한 구상속에서 이 무기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며 또 어떻게 쓰일지 알길 없어도 그이께서 것처럼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련대에 맡겨주신 임무이니 한치도 드릴수 없다고 생각하는것이다. 뿐만아니라 그이의 구상대로 예비물자들이 제때에 원만히 쓰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수첩에 예비물자를 보관한 장소를 적고 락도까지 그려넣는것이다.

사령관동지의 명령집행에서의 이러한 태도와 립장은 위대한 수령님을 진심으로 우러러모시고 받들며 따르는 사상감정으로부터 흘러나오는것으로서 여기에는 오중훈의 남다른 충성심의 열도와 순결성이 응심깊게 체현되어있다.

이와 함께 작품에서는 《문병》왔던 배정식으로 부터 사령관동지께서 한가위가 며칠 안남았다고 하시더라 말을 듣자 즉시 병원을 뛰쳐나와 명절물자를 해결해보내며 회군명령을 받고 달려온 사령부에 사령관동지께서 계시지 않음을 알고는 우리들이 제구실을 쓰게 못하여 사령관동지께서 이 어려운때

에 몸소 험지를 다니시게 한다고 가슴을 치며 자책하다가 이튿날 적정을 알게 되자 사나운 비바람을 뚫고 불철주야로 달려가 적을 단숨에 치고 사령부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오중훈의 눈부신 활동을 통하여 사령관동지께서 명령하고 지시하시기전에 그이께서 의도하시고 심려하시는 문제를 미리 안고 모든것을 다 해결하는 오중훈의 숭고한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펼쳐보이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품은 오중훈이 매 순간마다 하는 첫 생각, 그의 모든 사고와 행동의 중심에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받드는 뜨거운 심정이 자리잡고있으며 그것이 그로 하여금 숭고하고도 영웅적인 행동으로 나가게 하였다는것을 훌륭히 형상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작품에서는 오중훈의 생각하나, 행동하나를 그러도 그자체의 아름다움이나 영웅성에 대한 재현에 그친것이 아니라 무거운 전투임무수행으로부터 스스로 찾아하는 평범한 일 하나까지도 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받드는 립장과 자세와 련관시킴으로써 그가 지닌 혁명적수령관을 잘 형상할수 있었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가 보여준 이 하나의 실례는 우리 작가들이 주인공의 활동을 그리는 경우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그 모든것을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립장에서, 수령을 진심으로 우러러모시고 받들어나아가는 충성심의 구체적인 발현과정으로 부단히 지향시키고 형상으로 진실하게 창조해나갈 때 혁명적수령관 구현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예술작품에서 혁명적수령관을 훌륭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것을 보여줄수 있는 생활을 잘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생활은 주인공들의 사상감정을 나타내며 그 성격을 특징짓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생활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데 따라 인간성격의 사상정신적 높낮이와 규정성이 좌우되게 되는것이다.

특히 혁명적수령관은 그에 고유한 생활내용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작품에서 그것을 옳게 형상하자면 그에 맞는 생활을 찾아내여 잘 그려야 한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벌려나가는 주인공들의 다양한 생활과 함께 그들이 지닌 수령관을 심오하게 천명할수 있는 생활을 잘 그려야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전형적인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하고 성격의 전형화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다.

여기서 작품형상의 전반적견지에서 볼 때 혁명적수령관을 옳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령관을 보여줄수 있는 생활을 일정한 대목들에서 잘 그려내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이러한 생활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선에서 표현될수도 있고 명령지시관철을 위한 실천활동에서도 나타날수 있으며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기 위해 애쓰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표현될수도 있다.

작품에서 수령관을 보여줄수 있는 생활을 군데군데 심어주는 문제와 관련하여 옹당 관심을 돌리고 힘을 넣어야 할 문제의 하나는 의의있는 생활세부를 탐구하여 깊이있게 그리는것이다.

주체적문제리론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헤아릴수 있게 하는것은 예술적형상의 중요한 요구이다. 특히 세부형상은 그자체의 본질적특성으로 하여 그것을 심도있게 그려내면 성격과 생활의 본질을 옳게 리해할수 있게 하는데서 큰 작용을 한다.

작품에서 생활세부를 군데군데 심어주어 혁명적수령관을 옳게 구현하는 문제도 이러한 세부형상에 적극 의거할 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서 오중훈련대장이 3도구밀영에서 원정을 떠나는 날 울거울 설을 어디서 쇠든 설날아침 장군님께 대접하라고 소고기통줄임과 오이통줄임, 한되박가량의 참쌀을 넣은 꾸레미를 영남에게 쥐여주는 세부며 《근거지의 봄》에서 반일공동전선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던 리학산이 어찌다 사령부에 들린 그 짧은 시간에도 사령관동지께서 언제나 시원하고 정갈한 샘물을 마시도록 네모반듯하게 새 박우물을 파는 세부, 예술영화 《만병초》에서 《민생단》 혐의로 사령부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으나 어버이장군님께 드리려고 정성껏 버섯을 따서 배낭속에 차근히 꽂겨넣어 사령부로 보내는 생활화폭 등은 작품에서 혁명전사들의 수령관을 숭고한 높이에서 구현하고있는 생활세부들이다.

이 작품들에서는 지어 평범히 스쳐 지날수 있는 인물들의 형상에서조차 그들의 대사와 행동 등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신뢰의 정을 감명깊게 표현하고있는것을 볼수 있다.

또한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리기들》(제1부)에서 유철이가 길림감옥에서 나와 조직선을 찾아 헤맬 때 체험하게 된 생활은 얼마나 의의있게 심어진것인가. 유철이가 길림거리로 헤매는 나흘간 그가 만난 사람들가운데는 《조선인류길학우회》에 망라되었었다는 한 교원과 늙은 독립군령감도 있었으며 객주집에서 우연히 만난 로동자, 농민과 아낙네며 책방에 드나드는 학생들도 있었다. 작품에서는 그들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기도 하고 또 수령님에 대하여 잘 안다고 하면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세계를 유철에게 전하는 생활을 여러

모로 파고들어 그림으로써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숭고한 사상감정은 유철이는 물론 우리 인민 모두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는것은 매우 감명깊게 밝혀내였다.

하나의 세부까지를 포함해서 수령관을 보여줄수 있는 생활을 작품의 일정한 대목들에서 잘 형상하는것은 이처럼 혁명적수령관을 구현하는데서 매우 커다란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작품창작에서는 일정한 대목들을 잘 선정하여 거기에서 주인공들이 체현한 혁명적수령관을 두드러지게 강조하여 보여줄수 있도록 의의있고 뜻이 깊은 생활을 찾아내어 감명깊게 형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극복하여야 할 문제의 하나는 수령관을 보여줄수 있는 생활을 개성적으로 특색있게 탐구하지 않고 류사성을 범하는것이다. 이 작품에나 저 작품에나 류사한 계기와 장면들, 어슷비슷한 생활내용들과 대사들, 감정조직과 표현에서조차 구별이 없는 현상 등은 작가가 그것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주관적의도와는 관계없이 사람들을 공감시킬수 없다. 이러한 생활은 그야말로 주인공들의 심장에서 싹으로 우러나오는 참다운 수령관의 표현으로 안겨오는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만 앞선 생경한 강조로 느껴지기때문에 인위적인 형상으로 되어버리고만다.

그러므로 작품창작에서는 혁명적수령관을 보여줄수 있는 생활을 작품에 심어주되 그것을 어디까지나 새로운 각도에서, 새롭게 특색있는 형상으로, 개성적으로 그려야 한다. 그래야 같은 생활내용도 새로운 의미와 뜻을 가지고 새롭게 안겨올수 있으며 매 주인공들이 지닌 혁명적수령관의 심오하고 다양한 표현을 감명깊게 나타낼수 있다.

이상에서 문학예술작품에서 혁명적수령관을 구현하는 문제를 그 형상의 각도에서 몇가지 언급하였다. 물론 혁명적수령관을 예술적형상으로 구현하는데서는 이밖에도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있으며 또 새롭게 탐구하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도 많다.

혁명적수령관을 구현하는 문제가 현시기 창작실천에서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원칙적이고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로 제기되고있는것만큼 우리 창작가들은 작품창작에서 수령관을 구현하기 위하여 더 많이 사색하고 탐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작되는 매 작품마다 혁명적수령관이 심원하게 형상되어있는것으로 하여 그 사상예술적품위가 비상히 높고 사람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생활과 투쟁의 참다운 교과서로 되게 하여야 할것이다.



# 행복

전병선

어느덧  
수령님께선 떠나시고  
끓어번지던 선광장  
터져오르던  
만세소리도 멎었건만

내 지금  
얼 잃은듯  
수령님 자옥어린  
선광장 비탈길을  
그 몇번째  
오르고 내리오

주고가신 영광  
받아안은 행복이  
내 온몸을 감싸  
나로서도 내 마음  
진정 못하오

...

선광장을 훌륭히 건설했다고  
이제는 유색금속고지가  
눈앞에 환히 보인다고  
무더위를 이기며  
마천령 넘은 피로도  
다 풀린다 하실 때

내 작은 가슴  
터질듯 부풀어오르고  
심장의 더운 피  
꺼꾸로 솟는것을  
어쩔수 없었소

착공의 그날부터  
구슬땀 흘리며 뛰고 달리고  
깊은 밤 잠결에도

준공의 시각을 꿈속에 그리며  
이날 위해 살았건만  
내 미처 몰랐소  
수령님 그리도,  
그리도 기뻐하실줄은

선광장 가득  
그이의 밝은 미소 비껴갈 때  
걱정에 솟구친 뜨거운 눈물  
내 눈앞을 흐리울 때  
나는 부르짖었소  
내 삶의 환희를!-

아 행복이란 무엇이겠소  
날마다 받아안은 그 사랑만 행복이겠소  
수령님 우리 한일 보아주시고  
잠시라도 기뻐하시면  
그게 곧 혁명에 몸바친  
전사의 행복이 아니겠소

내 정녕  
충성다한 보람으로  
이런 행복 찾을수만 있다면  
덜고선 이 땅  
보화로 가득찬 이 마천령 산악을  
사나이 불붙는 가슴으로  
억척같이 끌어안고  
나라의 유색금속고지를 온몸으로  
심장으로 받아들여올리고싶소

아 내 바라는것 무엇이겠소  
수령님 기쁨을  
가슴터지도록 안아보는 행복  
그게 바로  
내가 찾는 행복  
내 삶의 전부라오.

# 어머님께서는 마음의 고향집

민향숙

백살구꽃 만발한 회령의 고향집  
후일오마 하시던 어머니 기다려  
오늘도 기다려  
고향집 사립문은 열려있는가

우러르면  
봄날처럼 환한 미소 지으시고서  
두팔 벌려 어머니 이 딸을 안아주실듯  
그리움 넘쳐나는 이 뜨락에 서니  
더더욱 깊어지는 어머니생각

정녕 이 집이었구나  
눈물속에 이 뜨락을 나서시어  
항일의 혈전만리  
긴긴 세월 불속에서도  
언제 한번 잊은적 있었던가  
어머니 언제나 그려보시던  
마음의 고향집

걸음걸음 내 옷자락 가벼이 쓰다듬으며  
불어오는 봄바람은  
고향 그리며 우리를 품어주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런가  
아, 달려가 안기고싶은 마음속에  
쫓구쳐오르는 뜨거움이여

사령부 불빛지켜 지새우실 때면  
장군님 모시고 고향에 돌아갈 날  
파연 언제일가  
가슴가득 차오르는 그리움 지그시 누르시며  
아득한 별무리너머로  
그리도 뜨거이 안으시던 고향집

너는 정녕 받아안았으리라  
그날에 어머니 심장으로 부르고부르신  
사랑가의 영원한 노래를

너는 정녕 안았으리라  
고향엔 후엔들 못가겠느냐고  
회령행 차표 끊은 투사들의 그마음 달래시며  
오늘을 그려보시던

어머니의 후더운 숨결을

너는 정녕 간직하였으리라  
새 조국 건설에 바쁘신 장군님  
그이의 안녕지켜  
교대없는 초소에서  
동터오는 새벽노을 맞으시던  
어머니의 숭엄하신 영상을

아, 흠모로 뜨거우시고  
충성으로 불타오르신  
한없이 자애로운 어머니의 크나큰 품속에  
달려가 안기는 우리의 마음

꽃피고 향기 풍기는 고향집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어머니생각  
잊지 못할 그날의 그 사연 속삭이는가  
마당가의 지붕에 꽃잎은 사뿐히 내리고

어머니 그리며  
차마 발길 떼지 못하는 마음  
우러르면  
장군님 모시던 그날처럼 밝게 웃으시며  
어머니 오늘도 꽃속에 싸여계신듯

아, 쌓이고쌓인 고향 그리움  
수령님 모시는 길에 묻어두시고  
가시는 걸음걸음 충성을 고이신  
해빛같은 어머니의 그 미소  
충성의 그 이야기 길이 전하며  
온 나라의 마음속에 더욱 높이 솟은 집

어머님께서는 오늘도 계시여라  
어머니 따르는 마음들  
충성의 대하되여 굽이쳐흐르는  
여기 정갈한 회령의 고향집  
목메여 어머니 우러르는  
우리모두의 가슴속에  
수령님 받들어 모시는 전사의 끝없는 행복  
영원한 그날의 그 위치 가르쳐주시며

# 어머님의 숭고한 사랑앞에

한상호

오산덕의 꽃들은 피고피어서

오실날 기다리는데

해방의 그날에도

고향으로 오시는 길 뒤로 미루신

김정숙어머님

어린시절 나물 캐러 가시던

살구꽃 하얀 이 산길이 생각나시면

땅을 분여받은

농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과 함께 씨를 뿌리고뿌리시며

새 조선의 풍년길 이끌어주셨고

저기 두만강가에서

눈물속에 헤여지던

일가친척들의 얼굴이 떠오르면

찾으셔야 할 그 혈육들보다도

부모 잃은 원아들을 더 생각하시여

학원으로 가신적 그 얼마이시던가

아, 안고오신 새 조선을

장군님의 큰뜻으로 가꾸시는 길에서

새 삶의 꽃으로 피어나는

정든 고향도 마을사람들도 그려보시며

고향으로 오시는 시간마저

조국위해 다 바치신 우리 어머님

푸른 들 분여지에 설레이는

한포기 곡식도

회령땅에 꽃을 가꾸시는 심정으로 키우시고

가시는 건국의 일터마다에서

만나시는 그 많은 사람들도

마음깊이 찾고찾으시던 혈육들처럼

한품에 모두 안아키워주신 그 사랑!

뜨거운 그 사랑 가슴에 지니셨기에

그립던 고향집의 정겨움도

들리시는 어촌마을 초가집

해당화 붉은 그 뜨락에서 안아보시고

못잊던 오산덕의 백살구꽃 향기도

방직공처녀들 기쁨으로 수를 놓는

해방연의 그 꽃수에서 다 안아보셨나니

회령아

어머님 안고사신 마음의 고향아!

진정 너를 사랑하신 어머님의 그 마음

얼마나 크셨으면

이렇듯 조국을 빛내이신것이나

백두의 그 머나먼 행군길에서

언제 한번 잊은적 없으신 회령이였어도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 못잊음과 그 열렬한 사랑을

조국을 안아키우시는 길에 다 바친

우리 어머님!

오산덕에 꽃들이 만발하면

어머님의 그 마음인줄 우리 알고

조국의 산과 들에 오곡백과 향기로우면

어머님의 그 사랑인줄 우리 아나니

빛나는 조국 위해

한생을 다 바치신 김정숙어머님

꽃피는 민주의 새 조선을

그대로 하나의 정든 고향삼아

온 누리에 찬연히 빛내주셨구나

어머님의 그 숭고한 조국애를 안고

회령은 어디서나 빛나라

## 구룡연에서

김희종

물소리  
물소리  
하지만 예와같은  
물소리 아니구나

칠색 물기둥 하늘에 세우고  
하많은 아름다운 전설을  
너 물구슬에 새기고  
물안개에 피어올리며  
바위 넘어 세월 넘어 흘러왔다만

내 오늘은 듣는다  
우리 어머니  
김정숙어머니  
너를 가까이 바라보시면서도  
못내 오르지 못하신 이야기

천하의 물풍경  
한번만이라도 어머님께 보여드리고싶어  
물소리 물소리  
어머님을 부르며 온 골안에 메아리쳤건만  
그날도 수령님의 점심참 마련하시며  
오르지 못하시었으니

가시는 길  
머무시는곳  
그 어디라 할지라도  
어머님의 길은 언제나 백두의 밀림  
사령부의 안령을 지켜가시는 길

가사

해방연의 날  
회령땅을 령너머 바라보시면서도  
새 조국 건설의 불길 세차게 지펴가시는  
수령님의 바쁜 길 받으시여  
그리운 고향길도 뒤에 미루시더니

쉬임없는 혁명의 행군길  
변함없는 친위전사의 그 길을  
금강산에 찾아오신 그날  
잠시면 가 닿으실  
구룡연 가는길에도 남기시였던가

들어도 들어도  
이 가슴 송엄히 젖어오고  
이 마음 한없이 정갈해지는  
물소리  
물소리

어머님의 백옥같은 충성의 마음  
물구슬에 비끼여 더 아름다와지고  
어머님의 고결한 인품  
노래에 담아 더 우렁찬  
네 물소리 아니더냐

차마 내 발걸음 쉬히 떼지 못함은  
그날에 이어이어  
우리모두를 세워주시며  
어머님 영원히 두고 가신  
이 구룡연이기때문이구나

## 정다워라 직기바다 갈매기

박미성

꽃물결 설레는 바다런가  
아득히 펼쳐진 직기바다  
비단필 흐름에 나래펼친  
너는야 갈매기  
아, 정다운 직포공처녀야  
은실금실 골라 오색비단짜는  
네모습 아름다와

알뜰한 네 일손 스쳐가면  
꽃무늬 곱게도 피어나고  
갈매기 너 한번 나래치면  
비단필 물결치네

아, 정다운 직포공처녀야  
은실금실 골라 오색비단짜는  
네모습 아름다와

비단필 설레는 직기바다  
여기에 정들어 꽃핀 처녀야  
마음껏 비단필 펼치여라  
삼천리 한끝까지  
아, 정다운 직포공처녀야  
은실금실 골라 오색비단짜는  
네모습 아름다와

## 소원

류정옥

## 1

부채살같은 자귀나무꽃술에 맺힌 이슬이 금빛으로 반짝이었다.

더위를 재촉하듯 베짖이가 울기 시작했다.

찌룩, 찌룩...

한손에 자그마한 수첩을 드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생각에 잠기여 정원길을 천천히 거니시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정문쪽을 자주 살피기도 하셨다.

담쟁이가 기어오른 울담벽밑에서 걸음을 멈춘 그이께서는 손목시계를 보며 멀리 기적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어쩐지 이번엔 옥분이를 찾으러 간 영희가 꼭 그를 앞세우고 정문으로 들어설것만 같아 더욱 기다려지셨다.

어머님께서서는 다시 걸음을 떼시었다.

해방된 조국에서 녀성문제 해결을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찾아야 할 사람, 바로 잡아야 할 문제들이 걸음마다 그이를 기다렸다.

동평양 선교리의 형편만 보아도 성인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 녀자들이 있다는것이다.

그중에도 복동이어머니란 녀인은 아예 얼굴도 한 번 내밀지 않는다고 한다.

복동이어머니란 처음 듣는 말이 아니시었다.

얼마전 어머님께서서는 선교리 로동자구에 몸소 나가 제 8 구 가두녀성들을 친히 만나보시었다. 그들은 거의가 다 문맹자들이었다. 의식수준도 말이 아니었다.

어머님께서서는 우리 녀자들도 나라의 주인이 되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새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자면 글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지만 녀인들은 그 뜻을 인차 리해하지 못하고 무척 놀라와했다.

제집안 주인도 못되는 녀자들이 어떻게 나라의 주인이 되겠는가?

이제 글을 배워 어디다 써먹겠는가? 지어는 녀자도 《인민》인가고 묻는 녀인도 있었다. 어머님께서서는 글을 배우면 차차 모든것을 다 알게 된다고 하며 성인학교를 무어주시었다. 녀인들모두가 공부에 열성을 냈다. 현대 그날 거기에 오지 않은 녀인들도 몇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복동이어머니란 녀인은 단벌적삼을 빨아서 오지 못했노라고 했었다. 현대 오늘까지도 열썬하지 않는다는것이다.

그 지구 문맹퇴치사업을 말아보는 영희의 말에 의하면 본인이 뜨적해하는데도 원인이 있지만 시아버지가 막는다고 한다.

(혹시 나이가 많은 녀인이여서 글 배우는걸 두려워하는것이나 아닌지? ... 윤옥분이기도 어디 가서 복동이어머니란 녀인처럼 생각하며 집안에만 묻혀살지나 않는지?)

문득 베짖이 울음소리가 멎었다.

룩감적으로 인기척을 느낀 어머님께서서는 얼른 돌아보시었다.

영희가 정문을 지나 다가오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영희보다 먼저 그의 뒤를 한동안 살펴보시었다. 허나 누구도 따라들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저절로 어깨가 처지시었다.

무척 서운하셨지만 먼길을 다녀온 영희를 생각하여 다심한 눈길로 그를 맞이하셨다.

《기차에서 곧바로 오는 길이었구만요.》

《예.》

영희는 행여나 하는 기대가 어린 어머님의 눈길을 피하여 말씀을 올렸다.

《거기 있는 윤옥분은 량부모가 다 있는 녀인이었어요.》

《그래요?》

어머님께서서는 허전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으나 곧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수고했어요. 피곤하겠는데 가서 좀 쉬세요.》

그러나 영희는 자리를 뜨지 못하고 들고 갔던 자그마한 보통이만 내려다보았다. 어머님께서 옥분이에게 주시려고 손수 지은 옷이었다.

어머님의 눈길도 거기에 쏠리시었다.

어머님의 눈앞에는 작년 초여름의 어느날에 있는 일이 되살아왔다. 벌써 1 년하고도 두달이 지나갔다.

...그날에는 초여름의 첫 소나기가 쏟아졌다.

별안간 검은 구름이 몰려들며 거리가 어두워졌다. 뒤이어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우뢰소리와 함께 비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졌다. 때이른 소나기였다.

동평양지구 공장기업소에 나오셨던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길옆의 어느 집 처마밑에서 비를 그으셨다.

대줄기같은 비발이 엉틀멍틀한 언덕길을 요란하게 두드려대며 뿌연 물보라를 피워올렸다. 그 장막속에 무엇엔가 시달리는 하나의 모습이 보였다. 누군가 손달구지를 웅덩이에 빠뜨리고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달구지는 좀처럼 끌려나오지 않는 모양이다. 그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저마다 비

를 피하는데 급급해할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어머님께서는 처마밑에서 나와 그곳으로 빨리 걸어가셨다.

그사이 손달구지의 임자는 모든것을 단념해버린 듯 손달구지옆에 주저앉고말았다. 더는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비는 여전히 기세를 죽이지 않았다.

손달구지군은 뜻밖에도 처녀였다. 그는 울고있었다. 가느다란 흐느낌소리와 함께 가냘퍼보이는 잔등우에 드리운 외태머리가 흔들리었다. 비줄기는 사정없이 그의 몸에 온통 물을 쏟아부었다.

가름하고 무척 온순해보이는 처녀의 얼굴에선 머리칼과 비물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다.

웅덩이에 빠진 손달구지에는 농작만한 나무통이 실려있었다.

《같이 끌어내보지요.》

어머님께서는 처녀를 달래듯 정겹게 말씀하셨다. 허나 처녀는 비발속에 서계시는 어머님을 의아스레 쳐다보기만할뿐이다. 잘 이해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러다가 어머님께서 달구지채를 먼저 잡으시자 눈이 동그래서 쳐다보며 주춤주춤 일어섰다.

《정말이시나요?》

흐느낌조차도 멎은듯했다.

어머님께서는 말없이 달구지채를 잡아당기시었다.

《왜 그러구있어요? 뒤에서 밀어요!》

그때야 처녀는 모든것을 깨달은듯 허둥거렸다.

어머님께서는 앞에서 끌고 처녀는 뒤에서 밀었다. 손달구지는 생각보다 쉽게 평평한 길우에 끌려나왔다.

처녀는 고마움과 미안해하는 눈으로 후줄근하게 된 어머님의 옷자락을 살펴보며 송구해하였다.

《일없어요. 옷이야 말리면 되는건데.》

소나기는 쏟아지기 시작한 때처럼 성급히 네발을 걷기 시작했다.

손달구지에 실은 통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풍겼다. 술지게미였다.

《집에서 돼지를 쳐요?》

《네, 주인네가...》

《주인이라니요?》

《전 목장주인집에서 살아요.》

《부모들은요?》

《없어요.》

처녀는 여덟살 때 부모를 다 잃은 고아였다. 목장에서 일하던 부모들은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후 주인은 여덟살에 잡힌 계집애를 저의 집에 두고 돼지풀 뜯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돼지를 치게 한다는것이였다.

어머님께서는 안색을 흐리며 처녀를 유심히 훑어보시었다. 흰빛도 재빛도 아닌 닳아빠진 적삼, 그

어떤 행복이나 기쁨에 대해서는 아예 단념하고 포기해버린듯싶은 서글픔이 실린 눈빛.

어머님께서는 가슴이 아프셨다. 처녀가 방금전에 흐느껴운것이 다만 힘들고 안타까와서만이 아니었으리라는 짐작이 드시였다.

맥이 진한듯이 밀려나는 구름짍으로 해발이 비치기 시작했다.

처녀를 데리고 시내를 조금 벗어나신 어머님께서는 길에서 좀 떨어진 너럭바위를 찾아 앉으셨다.

《여기서 잠간 옷을 말리지요.》

시내의 소음을 멀리한 조용한곳이였다.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이름이요?》

처녀는 뭔가 생소한 말을 들었을 때처럼 되물다가 멀리 아득한곳에서 불려오듯 한참만에야 대답했다.

《본래 이름은 윤옥분이에요.》

이상했다. 처녀의 표정이며 그 어조, 그리고 본래 이름?

《그럼 윤옥분이 말고 이름이 또 있어요?》

처녀는 손에 묻은 티점불을 털어버리며 주저주저 대답하였다.

《저- 사람들은 나를 그저 돼지어멈이라구 불려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

처녀는 더 말이 없었다. 시내가 언덕의 푸른 잔디만을 물끄러미 바라보고있었다.

비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 슬픔에 잠긴 채를 뿌린 듯한 두눈, 어머님께서는 더 묻지 않으시였다. 조용히 처녀의 머리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기여 젖은 머리를 비다듬어주시기 시작하였다.

처녀는 빠져나가려하는듯 몸을 웅크렸으나 곧 한숨처럼 길게 숨을 내쉬고는 조용해졌다.

어머님께서는 천천히 젖은 머리채를 풀어서 해빛쪽으로 놓아주셨다. 그리고는 얼마후에야 물으시였다.

《돼지를 친다고 해서 <돼지어멈>으로 불리게 됐나요?》

《그렇지만도 않아요.》

처녀는 잠시 입을 다물고 다람쥐꼬리같은 바랭이만 뽐아지며 시름에 잠겨 말을 뱉었다.

《내가 돼지풀을 뜯기 시작했을 때 주인집에는 나만한 사내애가 있었어요. 그랜 내 허리에 매달린 돼지풀 다래끼를 뽐처럼 차면서 늘 지부렁거리곤했어요.》

옥분은 파란 바랭이 털씨를 하나하나 뜯어내리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느 하루 그 애는 마루에 눕적 었디여 숙제를 하였다.

옥분은 그가 부러웠다. 학교에 다니며 글을 배우는 그를 볼 때면 죽은 오빠 생각도 자주 났다.

오빠는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했었다.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오빠에게 아버지는 살림형편이 좀 풀리면 다음해엔 꼭 학교에 보내주겠다고 했었다.

옥분은 어린 소견에도 자기까지 학교에 간다는 건 어렵도 없는 일이란 걸 알았다.

《그럼 나 오빠한테서 글 배울래.》

《그래 내가 배워다 너한테 꼭꼭 가르쳐주겠다.》

오빠는 싱글싱글 웃으며 약속하였다.

《자, 이거.》

남매는 기쁨에 넘쳐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오빠와 함께 땅속 깊이깊이에 영원히 묻혀버리고말았다.

(오빠가 있었으면 나도 글을 배울수 있을진데.)

소녀는 마루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글을 쓰고 읽을 줄 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장해보였다.

윤옥분이란 글자는 대체 어떻게 쓸까? 소녀는 사내의 공책을 할끔할끔 곁눈질해보았다.

《뭘봐?! 앎나이야.》

애너석은 뺨새눈을 할기적거렸다.

소녀는 깜짝 놀라 두손을 가슴에 뚫고 비실비실 뒤걸음쳤다.

《야! 아스께끼나 사와, 에- 덩다.》

소녀는 눈을 빚냈다.

《그저 사다주면 내 이름자 써줄래?》

《좋다, 얼마든지.》

옥분은 왕복 오리가 넘는 길을 올 때에는 줄곧 뛰여왔다. 나무밭통에 든 얼음파자가 다 녹아버리면 이름자를 써주지 않겠다고 트집을 잡을가봐 작은 심장을 할딱거리며 달려왔다.

《이름》자가 적힌 종이장을 받아친 소녀의 얼굴은 피어나는 꽃송이처럼 환해졌다. 헌데 이름자는 네글자였다. 왜 그럴까? 소녀는 손가락으로 꼭꼭 짚어가며 속으로 읽어보았다.

《윤옥분이》 딱 맞았다. 그는 애너석이 쓰다버린 콩다리 연필과 종이를 얻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그 글자들을 그렸다. 뽀뽀뽀뽀한 글자들이 그 종이에 뽀뽀이 잘 때까지 썼다. 기뻐다. 자기도 글을 쓸 줄 안다는 것, 이름자를 쓸 줄 안다는 것이 마치 그 무슨 보물이라도 얻은듯이 흡족하였다.

그는 동네 아이들에게 이름자를 내보이며 자기를 자랑하였다. 헌데 글을 아는 아이들은 배를 그러안고 대굴대굴 굴어가며 웃어댔다.

옥분은 어리둥절했다. 왜 그럴까. 아버지가 지어주었고 오빠가 다정하게 불러주었으며 사람들은 내 이름을 참 좋다고 했는데?!

《야, 이 바보야, 이건 네 이름이 아니라 <돼지어멈>이란거야.》

소녀는 두손으로 얼굴은 싸쥐고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때부터 옥분은 《돼지어멈》으로 불리게 되었다.

처음엔 아이들이 장난으로 불렀고 놀려주느라고 불렀다. 소녀는 분하고 억울하여 울었다. 약이 올라 흠을 쥐여뿌리며 울기도 했다.

점점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싫어졌다. 돼지풀 다래끼가 가는 허리를 아프게 졸라매고 맥이 진하여 한결음이 새로운 때도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눈에 띄우기만 하면 멀리 길을 에둘곤했다.

그의 몸에 돼지먹이가 늘 붙어다니는 것처럼 《돼지어멈》이란 이름도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옥분이란 이름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돼지어멈》으로 굳어졌다.

나중엔 어른들까지도 그렇게 불렀다.

세월의 흐름은 체념이란 것을 만들어주었다. 처녀는 차츰 그 누구든 《돼지어멈》하고 불러도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물기 힘들어하는 상처처럼 때로 도지곤하였다.

한적한 산기슭에 묵묵히 솟아있는 아버지 어머니 묘지앞에 퍼터버리고 앉아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묘지둘레 잔디밭에는 할미꽃들이 다복다복 피여 있었다. 빨간 자주빛 비로도털을 안에다 숨기고 곁에는 흰머리를 드리우고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처녀는 쓸쓸한 애수에 잠겨 할미꽃을 벗삼아 하소하였다.

할미꽃! 그 누가 이처럼 고운 꽃을 할미꽃이라고 이름지었을까? 이 꽃도 나처럼 심술사나운 애너석이라도 상대했었는지?

옥분은 아이들속에서 불리우는 할미꽃 노래의 구절을 외워보며 슬퍼했다.

...

씩날 때에 늙었나 꼬부라진 할미꽃  
젊어서도 할미꽃 늙어서도 할미꽃

나도 저 할미꽃처럼 세상밖에 나올 때부터 어멈이었던말인가.

천만가지 꽃중에 무슨 꽃이 못되어  
가시돋고 등굽은 할미꽃이 되었나  
하하하하 우습다 호호백발 할미꽃

...

수천만 사람중의 나는 어째서 돼지어멈이 되었을까...

옥분은 긴 이야기 끝에 고개를 숙인채 가늘게 한숨을 쉬었다. 그의 발앞에는 파랭이털씨가 파랗게 널려있었다.

어머님께서는 한팔로 턱을 고이신채 오래도록 말쑥이 없으셨다.

흙을 쥐어뿌리는 소녀, 말없는 무덤앞에 하소하는 처녀의 모습이 눈뿌리를 아프게 찔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처녀의 머리를 빗겨주시었다. 주실수 있는 온갖 애정을 다 기울이며 그의 술진 머리를 갈피갈피 빗질을 하시며 땀아내렸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에서 흐르는 뜨거운 인정의 숨결이 오리오리 머리칼을 타고 옥분의 가슴속으로 스며들었다.

돼지를 먹여오는 오늘까지 돼지털을 쓸어주는 사람은 적지 않았지만 처녀의 머리를 비다듬어주는 이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옥분은 끝내 어깨를 들먹이었다.

옥분이란 이름과 함께 영원히 잃어버린 어머니의 애정과도 같은 살뜰한 손길이 가슴속에 얼어붙은 설음을 녹여준것 이다.

처녀의 볼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그의 적삼앞설에 점점이 얼룩을 지웠다.

《울지 마세요. 이젠 그 일을 안해도 돼요. 돼지어멈이란 말도 더는 듣지 않을거예요.》

어머님의 말씀이 막혔던 설음을 터치기라도 한듯이 옥분은 더욱 흐느꼈다.

어머님께서서는 안색을 흐리시었다.

인간이 이 세상에 고고성을 올린 다음 맨처음으로 받게 되는것이 이름 석자이다. 사람은 이름과 함께 인권, 존엄, 명예를 지니며 이름과 함께 생존한다.

옥분은 이름자와 함께 모든 권리와 존엄, 생의 기쁨을 빼앗긴 처녀다.

어머님께서서는 분명히 손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연필을 꺼내어 윤옥분이라는 세글자를 정자로 쓰시었다. 손이 떨리어 글자가 잘되지 않으셨다. 다시 쓰고 또다시 쓰시었다.

《이게 동무의 이름자예요. 똑바로 새겨봐요.》

옥분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수첩을 들여다보았다.

그이께서는 매 글자를 연필끝으로 짚으며 《윤옥분》 하고 소리내어 익혀주셨다.

《더는 그 누구도 이 이름을 짓밟지 못해요. 앞으로 마음대로 글을 배우게 돼요. 열심히 배우세요.》

그날 어머님께서서는 옥분을 데려다 그가 술지게미를 나르러 가던 제탕공장에 입직시켜주셨다.

그때로부터 달반이 흘러간 어느날이었다. 어머님께서서는 자그마한 옷보자기를 들고 처녀를 찾아가셨다.

처녀의 람루했던 옷자락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아 일군들이 모처럼 마련해드린 비단으로 처녀의 옷을 손수 지으셨다.

옥분에게 옷도 입혀주고 성인학교에 나가 공부도 잘하는지 알아보실겸 시간을 내셨다. 현대 그는 이미 공장에 없었다.

옥분이 술지게미를 사러 다닐 때부터 보아오던 한 청년이 그를 안해로 삼아 홀로 된 늙은 시아버지가 있는 어느 한 농촌으로 데려간지 며칠후였다.

그 주소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후로 어머님께서서는 농촌사업이나 녀성사업을 지도하는 과정에 혹시나 하는 기대밑에 녀성조직명단이나 성인학교 명단들에서 옥분의 이름을 찾아보시곤하셨다. 허나 좀처럼 그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럴수록 좋지 못한 예감이 드셨다. 성인학교에도 녀성조직에도 망라되지 않은게 아닐가. 하는 우려가 생겨났던것이다.

그 우려는 점점더 커졌다. 개별적일군들에게 과업도 주셨다. 그러던 차에 마침 어느 한 지방에서 그 이름을 찾으셨다.

어머님께서서는 사업일정을 바꾸어 그 지방 지도사업을 앞당기시었다. 허나 이름이 같았을뿐 사람은 딴 사람이었다.

그러한 걸음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며칠전에 또 주변군에서 같은 이름이 알려졌다. 나이도 비슷했고 문맹자라는것도 같았다. 이번엔 틀림이 없으리라는 예감에 마음이 앞섰지만 짬을 낼수 없어 영희에게 부탁하셨던것이다.

찌-룩, 찌-룩...

다시 베짖이가 울었다.

어머님께서서는 침묵속에 서계셨다. 옥분에 대한 생각속에 묻힌듯싶다. 아니 그 안색은 의연히 윤옥분을 찾고계셨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영희를 돌아보셨다.

《어서 돌아가 꼭 쉬세요. 오후엔 선교리에 나가 보지요.》

《알겠어요.》

영희는 어머님께서서 사업수첩에 《오후 선교리》라고 써넣으시는걸 보았다.

영희가 자주 보는 수첩이었다. 어머님께서 찾아가시는 크고작은 마을들과 공장기업소들이 적혀지고 어느날 어느때라는 일정이 밝혀지곤하는 사업일지였다. 거기엔 윤옥분을 위해 걸으신 길도 한두번이 아니게 적혀있었다.

집안에만 묻혀있던 우리 녀자들을 해방된 새사회에 높이 내세워주려고 굳게 닫힌 문고리는 또 얼마나 많이 잡으셨는가.

일제의 총칼이 살판치던 그날에 불안과 설음을 안고 떠나셨던 고향집에도 가보셔야 했다. 어린 시절 고향집의 삼작문을 떠나실 그때에는 그래도 어머님이 계셨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다. 오늘은 부모님도 오빠도 동생마저도 모두 바람겨친 이 국땅에 묻고 쓰린 가슴을 안고 오시었다.

찬바람 불던 캄캄한 그날에 홀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데론가 떠나가는 어린조카를 피눈물 삼키며 바래운 어머님이시다. 그 조카의 생사도 알아보셔야 했다. 혈불이라고는 그 하나뿐이다.



유년시절의 동요를 그대로 간직하였을 고향집 울바자에는 살구꽃이 만발하고 진달래가 활짝 피어나 오늘일가 래일일가 어머님을 기다리고있으려면 어머님께서 고향집 키낮은 삼작문고리를 잡으실 날은 언제이겠는가.

그 모든것을 뒤로 미루면서도 거리에서 잠깐 만났던 한 처녀를 이처럼 찾으신다.

더는 그 누구의 머슴으로도 되지 않을것이며 좋은 청년을 만났다니 의지까지 없는 교아도 아니다.

옥분이가 시집가는걸 본 공장사람들은 그를 두고 부러움에 차서 말했었다.

일손을 놓을 나이였지만 해방후 첫해 농사를 짓지는 시아버지는 그걸 몽땅 잔치와 머느리웃감에 바쳐 옥분이를 눈부신 비단으로 단장시켜 꽃방석에 태워갔다고...

옥분은 시아버지와 신랑의 손에 떠받들리워 한떨기 꽃처럼 활짝 피어날것이라고들했다.

이제는 그에 대해 더 생각지 않으셔도 좋으련만 여전히 잊지 못하는 어머님의 그 마음속 깊이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높이는 어디일가?

## 2

맑은 날씨다. 햇숨같은 구름이 등실 떠가는 푸른 하늘아래로 새떼들이 자유로이 날아돈다.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영희를 앞세우고 선교리 로동자구 골목길을 걸으셨다.

영희가 말아보는 제 8 구 성인학교로 가시는 길이다. 공부에 등한시하는 녀성들도 만나보시고 학생들의 실력도 보실겸 두번째로 찾으신다.

영희는 새떼를 향해 맑은 미소를 보내며 공지에 차서 말했다.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녀인들의 글 수준이 꽤 빨리 높아지고있습니다.

처음 나오셨던 날 어머님께서 써주신 <제 8 구 성인학교>라는 간판이며 교실에 써붙여주신 구호들을 뜬금으로 외우고 쓰는 녀자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

《그래요! 영희동무가 수고 많았겠어요. 영희동무의 정성이 그만큼 있으리라고 봐요.》

어머님께서서는 그날 성인학교의 간판을 쓰면서 함께 써붙인 구호들을 상기해보았다.

《지식은 광명이고 무식은 암흑이다!》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자!》

이 구호들을 쓸 때 어머님께서서는 청봉의 이빨나무에 장군님의 뜻을 담아새기시던 글발들이 눈앞에 어려왔다.

《조선청년들, 속히 달려나와서 항일전에 힘있게 참가하자.》

《조선혁명 만세!》...

그날의 그 열정과 기개를 담아 어머님께서서는 이제 겨우 이름자를 그리기 시작하는 녀인들앞에서 붓끝에 힘을 주시였다.

《배우고배우고 또 배우자!》

어머님께서서는 그날 붓을 든 자신을 신기한듯이 우러르던 녀인들의 순박한 얼굴들이 하나를 떠오르시였다.

그들속에 옥분의 얼굴도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지금은 꽤 달라졌으련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얼굴은 흙을 쥐어뿌리며 울던 애어린 소녀, 《돼지 어멈》이였고 천대와 설음 속에 짓눌려 시들어가는 처녀, 할미꽃을 벗삼아 슬퍼하던 모습이였다.

문득 필갑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패의 조무래기들이 책보를 흔들며대며 학교운동장에서 뛰어나왔다. 좋은 때를 만난 애들이였다. 하나를 배워주면 하나를, 열을 배워주면 열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시기이다.

그들을 바라보시는 어머님의 눈앞에는 수염이 허연 로인들과 아이를 업은 아낙네들이 성인학교에 모여앉아 힘들게 한자한자 박아쓰는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어머니와 아이들, 할아버지와 손자들이 한시간에 다 같이 글을 배우게 된 시대이다.

이 새시대의 사변적인 기쁨과 우리 인민의 행복 앞에 어머님의 마음은 밝아지셨다. 그러나 곧 가슴 한옆으로 스며드는 그늘을 느끼시였다. 한창 배워야 할 시절을 지주집 꼴머슴으로, 아이보개로, 부엌데기로 흘려보내야 했던 그들을 본것이였다.

세기적인 기쁨이면서도 하루속히 가서내야 할 모순이다.

짚가당, 짚가당...

필갑소리는 명랑한 메아리처럼 울리며 멀리로 사라져갔다.

어머님께서서는 성인학교쪽으로 꺾어드는 갈림목에서 영희에게 물으셨다.

《복동이네 집이 이 근방 어디겠지요?》

영희는 슬며시 걸음을 늦추며 고개를 숙였다. 어딘가 내키지 않는듯한 표정이였다.

《그 집엔 가나마나합니다. 시아버지가 어찌나 완고한지 이가 들지 않습니다. ... 뭐 녀자는 아이를 잘 키우고 살림살이나 잘하면 된다는겁니다. 남녀평등권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소용없습니다. 글소리나 할려면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라나요. 당자자 신도 아이 핑계며 무슨 구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더 어쩔수 없잖습니까.》

어머님께서서는 영희의 긴 불만을 너그러이 들어주셨다.

《단단히 푸대접을 받았군요. 허지만 그래선 안돼요. 우리 녀성들은 누구보다도 고된 생활고와 문명밖에서 놀리워 살았어요. 인생의 기쁨도 인간의 귀중함도 모르고 빛이 없이 살아온 그들이에요. 복동이 어머니도 역시 그럴거예요.》

《...》

《영희동무는 이 선교리지구의 수백명 녀성들을 상대하는만큼 복동이어머니 하나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수도 있어요. 그러니 문맹이 가져다 주는 불행을 그 녀인이 깨닫게 될 때 그의 후회는 생활의 전부로 될것이에요. 일생을 그런 후회속에서 살게 해서는 안되잖겠어요.》

영희는 붉어진 얼굴을 숙이고 걷기만했다.

공장지구의 한낮은 활기로 넘쳤다. 신문과 잡지 같은것을 받아친 청년들이 뭉개 열렬히 논쟁을 하며 지나갔고 저자바구니를 든 녀인들의 웃음어린 얼굴이 마주왔다.

어머님께서는 문득 물으시였다.

《복동이어머니, 이름을 뭐라구 해요?》

《그저 복동이어머니라고들 합니다. 이사해온지 얼마 안되는 집이랍니다.》

《좋아요. 어쨌든 가보지요.》

### 3

7자로 된 아담한 목조가옥이었다.

뒤뜰에는 꽤 넓은 터밭이 달렸고 벼나무와 느티나무가 울타리를 이루었다. 아마도 왜놈의 어느 집장이 살던집 같았다.

《이 집입니다.》

영희는 마당가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미닫이유리문을 활짝 열어놓은 마루에는 짙은색시와 수염이 허연 로인이 갓난애기를 눕혀놓고 마주들여다보고있었다. 뭔가 불안스러운 기색이 어린 모습이였다.

《들어가보지요.》

어머님께서는 앞서서 마당으로 들어서시였다. 아이를 들여다보고있는 녀인의 옆모습이 꺾도 낮익으셨다. 끝이 둥실한 마늘코며 발그레한 귀뿌리가 더욱 그랬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녀인이 돌아보았다.

순간 어머님께서는 이름할수 없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하여 우뚝 멈춰서시였다.

《아니?!》

그 얼굴은 소나기속에서 울고있던 그 모습이였다. 머리도 쪽지고 가름한 얼굴이 활짝 피였으며 떨시와 천대의 굶은 때를 말끔히 벗었지만 일년나마 머리속에서 사라지지 않던 바로 그 윤옥분이였다. 정말 뜻밖의 일이었다.

《어마나!》

윤옥분도 허둥지둥 일어나 넘어질듯이 마루를 내려섰다. 그는 신발을 꺼꾸로 끌며 다가와 어머님께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다.

어머님께서는 그의 팔을 잡아일으켰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농촌으로 갔다더니?》

《공장이 확장되면서 기능공들을 찾는통에 애아버지를 따라 다시 여기로 이사오게 되었어요.》

윤옥분은 눈물이 그렇게서 말을 더듬었다.

《몹시 찾아뵙고싶었지만 어데 계신지 몰라서 그만... 아버지.》

윤옥분은 어머님에게 손을 잡히운채 로인쪽을 돌아보았다.

《이분이 저를 공장에 데려다주셨던 그분이예요.》

로인도 놀라며 벌떡 일어섰다.

《하, 이거 귀인이 오셨습니다. 며늘애한테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고마운분한테 인사도 못올리고 산다고 저엔 늘 외웠습니다.》

《저도 윤옥분물 무척 만나보고싶었습니다. 이렇게 곁에 있는걸 모르고 먼데서만 찾았군요.》

어머님께서는 영희쪽을 돌아보셨다.

기연가미연가해서 번갈아보고만있던 영희는 놀란 소리를 했다.

《그럼 이 동무가 바로...》

《그래요.》

영희는 무안을 당한 사람처럼 몸둘바를 몰라했다. 농촌으로 갔다는윤옥분이가 여기에 있을줄은 상상도 못했었다. 그래서 이 근방에서는 애당초 찾아볼 생각조차 안했던 영희였다. 그랬기에 좀전에 어머님께서 그의 이름을 물었을 때도 심상히 대답했었다.

그 이름을 벌써 알아보았더라면 어머님을 이미 기쁘게 해드렸을것이다.

영희는 자기 사업에 빈구석이 한두가지가 아님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영희동무.》

어머님께서는 의미있게 영희를 돌아보셨다.

영희는 어머님의 눈길에서 무엇인가 잊으신듯 아쉬워하는 빛을 가늠해보았다.

그제야 영희도 어머님께서 그로록 정성들여 지어놓으신 윤옥분의 웃이 생각났다.

이 감격적인 상봉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당장 가져와야 했다.

영희는 선자리에서 돌아섰다.

윤옥분은 얼른 마루에 돛자리를 펴고 어머님을 모신 다음 옆에서 자고있는 복동이의 머리를 짚어보았다.

《않는가요?》

《예, 좀전에 약을 먹였더니 잠들었습니다. 일없을거예요.》

복동이의 베개머리에는 약봉지가 놓여있었다.

윤옥분은 다시 기쁨을 머금고 어머님쪽으로 향했다. 그 눈길은 반가움과 놀라움에 차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 집을 찾아내셨나요?》

어머님께서 미소를 지으셨다.

《나는 단벌적삼을 빨았다던 복동이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아이 어찌나!》

옥분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허나 로인은 감사의 표정을 짓고 어머님께 인사 말을 올렸다.

《오늘까지 잊지 않고 또 이렇게 찾아와주셨으니 이거야말로 조련치 않은 일입니다.》

《아버님!》

옥분이는 로인에게 허아래소리로 일렀다.

《이분은 성인학교에서 나오셨어요.》

《성인학교에서?》

로인은 그제야 알아차린듯 입을 다물었다.

옥분은 얼굴을 숙인채 떠엄떠엄 말했다.

《저- 사실은 그날 적삼을 빨은게 아니라...》

그때 석침한 최로인의 목소리가 머느리를 대신했다.

《그건 내가 막은 일입지요.》

흰수염속에서 움직이는 두툼한 입술은 뭔가 사연을 물어두고있는듯했다.

《로인님께서요?》

《예.》

로인은 장죽에 담배를 눌러담을뿐 더는 입을 열지 않았다.

어떻게 돼서 옥분에게 또 배움의 길에 장애가 생겼는가? 흔히 로인들에게 있는 봉건유습인가.

옥분을 두고 막연하게나마 심중에 짊어던 일이 현실로 된것이 몹시 서운하셨다. 그러나 어머님께서는 밝고 친절한 눈길로 로인을 대하셨다.

《옥분동무야 누구보다도 글을 많이 배워야 할 사람이 아닌가요.》

《해방이 됐는데 글을 모른다고 다시 그런 수모야 받을라구요. 이제야 아이어미가 됐는데 살림이나 잘하고 아이를 잘 키우면 됐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주 탈이 나는 아이인데 뭐 어쩔새도 없습지요.》

어머님께서서는 로인이 돌아보는 복동이쪽으로 눈길을 돌리시였다. 한번 안아보고싶으셨지만 기척없이 자고만있는 복동이였다.

로인은 더 말이 없이 장죽만 빨며 프락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해빛이 쟁글쟁글한 프락의 터발으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다. 갓가지 남새며 보라빛 감자꽃이 가볍게 설레였다.

어머님께서서는 너그럽고 인자한 마음으로 말머리를 돌리셨다.

《터발농사를 잘 지으셨습니다.》

《성한 이 두손을 놀릴수 없어 하는 일입니다.》

로인은 다시 활기를 띠었다.

《애아범이 혼자서 공장일을 해도 우리 네식구가 살아가는데는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로인은 착한 머느리와 귀한 손자, 푸르싱싱한 터발, 그리고 네식구가 살기에는 어울리지 않으리만

큼 넉직하고 아담한 집을 둘러보았다. 그 눈귀엔 흐뭇해하는 미소가 어렸다.

《행랑살이와 머슴살이나 하던 우리 신세가 꿈엔들 생각이나하던 은덕입니까.》

아늑한 처마밑에 매달린 제비둥지에서는 노란부리들이 오구구 어미를 맞이했다.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었다.

오늘의 이 행복에 만족해서 그 무엇도 더 바랄것이 없는 로인인듯했다.

어머님의 마음을 알아차린듯 그는 또 입을 열었다.

《머늘애에게 그토록 깊은 은정을 베푼 은인앞에 내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나는 장군님의 은덕이 고마와 나라에서 시키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설 마음이 섰습니다. 나날이 살림이 풍족해질수록 지난날 지지리도 고생한 머늘애를 더 아끼게 됩니다.》

어머님께서는 한해 농사를 잔치와 머느리 옷을 마련하는데 다 바쳤다는 로인의 마음이 이해되셨다.

《로인님, 머느리에게 주시는 그 지극한 사랑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정말 기쁩니다.》

어머님께서는 소녀 《돼지어멈》과 처녀 《할미꽃》의 옥분이가 다시한번 눈앞에 떠올라 진정한 마음에 인사를 올리시였다.

어머님의 말씀에 로인은 흐뭇한 기색을 띄우고 풀썩풀썩 담배연기를 날렸다.

다감하시고 진정이 흐르는 어머님의 말씀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잘입히고 잘먹이는것만이 머느리를 위하는것이겠습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되는것이 많습니다. 로인님은 지금 살림형편을 만족하게 여기시지만 이제 첫걸음을 떼는데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먹고 입는데서 더 풍족하게 할뿐만아니라 세상리치를 깨닫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일하게 됩니다.》

아마 저 복동이 세대에 가면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이 잘살게 됩니다.》

어머님께서는 자고있는 복동이를 바라보시며 따뜻하고 친절하게 말씀하셨다.

《그러자면 누구나 없이 배워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서는 한결음도 나설수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 부모들이 그 모진 가난과 천대 속에서도 자식들에게 왜 공부를 시켜보자고 모지름을 썼겠습니까. 알아야 앞을 내다볼수 있고 알아야 체구실을 할수 있기때문이었지요.》

어머님의 어조는 조용했고 그 안색에는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가 흘렀지만 로인의 얼굴에 어렸던 흐뭇한 기색은 차츰 사라져버렸다.

《저는 지금도 어린 소녀에게 <돼지어멈>이란 이름이 붙었던 옥분동물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문득 옥분이의 가느다란 한숨소리가 숨새나왔다.

처음 글소리가 나오자부터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복동이 머리말에 쪼그리고 앉았던 옥분이었다.

어머님께서는 고개를 숙이고있는 그를 사랑어린 눈길로 바라보셨다.

온순하고 내성적이며 순종하는데 버릇된 옥분이니 시아버지의 의사를 따를수밖에 없었으리라는것이 리해되었다. 옥분이결에 누운 복동인 여전히 자고있었다.

《로인님, 저 복동일 보십시오. 저 앤 이제 그 이름처럼 복을 한껏 받게 될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마치 친아버님이나 친아드님을 놓고 말씀하실 때처럼 기쁨과 명상에 잠기셨다.

《우리 부모들이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걸 바치는것을 락으로 삼는게 조상전래가 아닙니까. 저 복동일 위해서도 저나 옥분동무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알아야 합니다.》

조용한 어머님의 어조가 더욱 가슴을 울려준것인지 로인은 긴 담배대를 한쪽 입귀에 댄채 움직이지 않았다. 가느스름해진 그의 눈은 감동과 자책이 뒤엉킨듯 복잡한 빛을 띠고있었고 복동이 주먹만한 그의 대통에서는 이미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다.

어머님께서는 복동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셨다.

그만 잠에서 깨어나 발쭉발쭉 웃는 복동일 한번 안아보고싶어 가까이 몸을 굽히시였다.

《복동인 늘 저렇게 잘자는가요?》

《웬걸요. 원래 꽤 보채는 축인데 약을 먹였더니 편안히 잘잡니다.》

로인은 별로 경황이 없는듯 심상히 대답하였다.

그러나 아이의 모습을 가까이 들여다본 어머님께서는 머리를 기웃하셨다.

파리끼레해진 조그만 얼굴, 잿아드는듯한 숨결, 싸늘한 손발, 불길한 예감이 드셨다.

어머님께서는 복동일 흔들어보셨다.

《복동아! 복동아!》

손발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드시여 얼른 안아일으키셨다. 아이의 두팔이 밑으로 축 늘어졌다.

그이께서는 아이를 줄곧 주시하며 물으셨다.

《무슨 탈이 났어요?》

《기침을 하며 몸에 열이 났어요.》

옥분은 불안을 숨기지 못하며 대답했다.

《무슨 약을 먹였어요?》

《고뿔에 먹는 약입지요.》

로인이 대답했다. 그는 의아해하면서도 감기약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옥분은 애기 배개머리에 놓였던 약봉지를 집어 어머님께 드렸다.

《이겁니다.》

약봉지에 갈겨쓴 약이름을 읽어보신 그이는 무척 놀라와하셨다.

《의원이 이 약을 주던가요?》

《그런게 아니라 집에 있던걸 먹였습네다.》

《이건 감기약이 아니라 잠자는 약입니다.》

《예?!》

두사람은 동시에 눈이 둥그래졌다. 서로 쳐다보기만하다가 옥분이 먼저 일어나 장둥서랍에서 다른 약봉지를 꺼내다 어머님께 보였다.

《그럼 이건가요?》

《웁아요. 약을 바꿔먹었군요. 봉지에 감기약이라고 다 써있는걸... 갓난애에게 수면젤 먹이다니.》

《이런 변이라구야.》

로인은 불안해서 허둥거렸다.

옥분은 울상을 지었다.

그제야 그는 고질적인 천식증이 있는 시아버지가 기침때문에 밤잠을 못잘 때 먹던 약과 복동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먹이던 약을 한군데 두었었다는게 생각났다. 약이 서로 비슷하여 글자를 모르는 옥분이와 로인은 헛갈렸던것이다.

《복동아! 복동아!》

옥분은 아이를 또 흔들어보기도 하고 젖을 들려보기도 했지만 입도 안벌렸다.

《어쨌으면 좋아요?》

겁먹은 옥분의 눈길이 어머님을 지켜보았다.

어머님께서는 대답대신 약봉지를 풀어 그 량을 가늠해보셨다. 어른들의 량 그대로였다. 어머님의 표정도 당황함을 숨기지 못했다.

《안되겠어요. 이러다간 아예 깨나지 못할거예요.》

그이는 부리나케 아이를 포단에 싸서 안으셨다. 옥분이가 등을 돌려뒀지만 어쩔새없이 몸소 품에 안고 급히 병원을 향해 마당을 나서시였다.

로인과 옥분인 오금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와서 허둥지둥 어머님의 뒤를 따라셨다.

## 4

복동인 맑은 눈동자를 말뚱말뚱 굴리었다. 자기를 내려다보는 지붕처럼 둘러싼 각이한 얼굴을 가려보는듯했다.

안도와 기쁨에 찬 얼굴들, 그러면서도 자책과 서글픔을 띤 얼굴도 있었다.

한곳을 주시하기도 하는 그 눈동자는 마치 자기 생명의 은인이 누구이며 그 생명을 희롱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알아보기라도 하려는것 같았다.

해독제 주사며 여러가지 약으로 구급치료를 받은 복동인 지금 자기 집 마루에 다시 누워있었다.

김정숙어머님과 영희, 그리고 로인과 옥분이가 복동을 둘러싸고있었다.

《정말 큰일날뻔했군요!》

옥분에게서 전말 사연을 다 듣고난 영희가 하는 말이었다.

영희는 빈집에 한발 먼저 도착하여 영문을 모르고 마당가에서 서성거리다가 병원에서 돌아오는 어머니와 집주인을 만났던 것이다.

옥분은 울먹이며 말을 더듬었다.

《전 정말... 저분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복동인... 그만.》

깊은 생각에 잠겨 담배만 피우던 로인이 옥분을 쪽을 돌아보며 뭔가 입속말과 함께 눈짓을 했다.

《알겠어요.》

옥분은 급히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려고 했다.

어머니께서는 그의 치마자락을 잡아 도로 앉히시었다.

《그러지 말아요. 인차 가야 해요.》

그리고는 밝게 웃으시며 영희가 가져온 옷보자기를 그앞에 내놓으시었다.

《이제야 주인을 찾았군요.》

《?...》

영문을 몰라 어머니와 영희를 살피기만 하는 옥분에게 영희가 말해주었다.

《이 공책과 비단옷은 옥분동무에게 주시려고 벌써 일년전에 어머니께서 손수 지으시고 마련하신거예요.》

옥분은 왈칵 눈앞이 흐려와 손을 내밀지 못하였다.

그는 눈물어린 눈을 들어 어머니의 모습을 우러러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다. 그분의 옷차림새에 새삼스레 가슴이 찢어졌다. 일년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까만 치마에 흰 당목적삼을 입고계셨다.

그러면서도 비단옷을 주시다니, 고개는 점점 숙여지고 손은 나가지 않았다.

어머니께서는 옥분의 손에 옷을 안겨주셨다.

《동무가 시집갈 때도 옷 한벌 해주지 못했는데... 어서 받아요.》

옥분은 옷보자기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먹이였다.

《저같은게 뭐라고 이렇게 일년이 넘도록 찾으시면서...》

어머니께서도 그의 어깨를 쓰다듬어주시며 말씀하셨다.

《나도 옥분동무에게 이 옷을 주자고만 찾은게 아니예요. 그보다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나라의 주인된 옥분동무 보고싶어서 찾았어요.》

조용하신 어머니의 어조에는 기대와 어긋난 자식을 보는데와도 같은 심정이 배어있었다.

《이제는 로인님이나 옥분동무가 다 나라의 주인입니다. 주인구실을 하자면 글을 배워야 합니다. 글을 모르고서는 자기 집 자식 하나도 훌륭하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옥분은 죄책감에 더욱 어깨를 떨구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해버린 소나기 쏟아지던 언덕길, 그 누구의 손길도 닿아본적 없는 비에 젖은 형

클어진 머리, 애정을 담아 그 머리를 빗겨주셨고 소망을 담아 써주신 이름자, 그 모든 은정을 어느새 벌써 한갓 추억속에만 간직해버렸었다.

억울한 멸시속에 잃어버렸던 이름자를 찾아주셨건만 오늘은 옥분이자신이 그저 《복동이어머니》란 《이름》에 모든 행복을 느끼며 만족해버렸었다.

복동이가 작은 주먹을 흔들며 어머니를 지켜보았다. 옥분은 그 작은 주먹이 쇠망치가 되어 가슴을 두드려주는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분의 품에서 새로 태어난 아들이었다. 어제는 이름을 찾아주셨고 오늘은 아들을 살려주셨다.

그분께서는 《돼지어멈》에게 눈을 띄워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우려고 찾고 또 찾아오셨다.

한편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로인이 문득 어머니를 감동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주름깊은 그 얼굴은 다함없는 존경과 고마움, 그리고 한가닥의 흑으로 가득차있었다.

《저- 실례입니다만 뉘십니까? 아무리 보아야 성인학교에서 오신것 같지는 않습네다.》

영희가 입을 열려고 하였다. 어머니께서는 슬며시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셨다. 주인댁을 웅색하게 만들수 있는 정황에서는 늘 피하셨다.

《로인님, 저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평범한 일꾼입니다. 이 영희동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로인은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평생을 막돌처럼 굴러다니던 인생들을 그토록 은정깊이 생각해주시는 고결한 품성과 높은 레의법절은 아무나 지니는것이 아니지요.》

《로인님, 말씀을 낮추십시오. 재삼 말씀드리지만 저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일할뿐입니다. 우리 녀자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새 조국 건설에 한몫하는데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도록 하시려는 장군님의 뜻이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저저의 소원입니다.》

《이젠 조금도 녀려 마십시오. 며늘애와 함께 나도 성인학교에 나가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로인님!》

《늦기는 했어도 나갑니다.》

어머니께서는 로인의 손을 두손으로 잡으시었다.

《로인님, 늦지 않았습니다. 옥분동무도 늦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로인님, 고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거듭 말씀하시며 옥분의 손도 따듯이 쓸어주시었다.

옥분은 눈물을 닦고 옷보자기를 풀어 시아버지쪽으로 밀어놓았다.

하늘색 비단 치마저고리우에는 새 공책들이 놓여있었다. 표지엔 윤옥분이란 글자가 정자로 씌여있었다.

옥분의 눈길은 그 이름자우에서 못박혔다. 반질그릇 맨밑창에 건사해둔 너럭바위우에서 써주신 그

수첩의 글자와 꼭 같았다. 옥분은 저도 모르게 입속으로 읽어보았다.

《윤-옥-분》

그랬다. 두번째로 다시 찾아주신 그 이름이었다. 윤옥분!

어머님께서서는 마음속으로 읽어가는 옥분의 글소리를 듣고계시었다.

빨래줄에 얹은 한쌍의 제비도 그 소리를 듣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경사스러운 가정의 한집 《식구》가 된것을 기뻐하는지 삼씨같은 눈알을 되록거렸다. 어머님께서서는 한시름 놓은듯이 밝게 미소를 지으셨다.

영희는 숨엄한 감정에 젖어들었다.

이제야 모든것을 알았다. 옥분이를 왜 그토록 찾으셨는가를 깨달았다.

인간의 존엄과 녀이 짓밟혔던 한 녀성에게 광명한 인생의 봄을 안겨주시기 위해서였다.

이 나라의 모든 녀성들을 무지와 몽매에서 해방시키고 문명하고 유족한 새 사회 건설의 담당자로 키우려는것이 바로 어머님의 소원이시다.

어머님께서서는 로인에게 거듭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마치 자신께서 그 무슨 사례라도 받은듯이 기뻐하시는 김정숙어머님!

어머님의 저 소원, 자신을 위한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한 저 소원, 옥분은 자기결에 와닿은 저 소원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 로정을 걸쳤으며 자기가 지금 얼마나 고결한 사랑속에 있는가를 다는 알지 못할것이다.

어머님의 저 소원속에 인간의 녀이 소생하고 존엄이 높아지고있으며 조선녀성들의 행복이 자라고있다.

어머님께서서는 복동이네 집을 떠나셨다.

로인과 옥분은 큰길까지 따라나왔다. 옥분인 복동이를 안고있었다. 그는 이제야 겨우 목을 세우는 복동일 어머님쪽으로 곧추 세워안았다. 어머님의 모습을 어린 눈동자속에 깊이깊이 새겨주고싶은 마음에서였다.

《복동아, 저 귀인의 모습을 잘 기억하거라.》 그는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실은 자신에게 하는 소리기도 했다.

어머님께서서는 다시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드셨다. 붉게 타는 노을속에 멀어져가는 그 모습을 우려했던 로인도 옥분이도 다시한번 깊이 머리속여 인사를 올렸다.

그러나 그들이 어찌 자기들의 은인이 바로 김정숙어머님이라는것을 알수 있으랴.

노을은 점점더 아름답게 퍼져갔다. 어머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하늘에 새기려는듯, 그 숭고한 뜻을 붉게 꽃피우려는듯.

×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였다.

3.8 국제부녀절 기념대회에 참가하여 토론하게 된 윤옥분은 또다시 어머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그때에야 옥분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품에 안겼는가를 알았다.

## 가사

# 아, 조국아

김석

백살구꽃 향기를 가슴에 안고  
눈물어린 두만강 건너온지 몇해더나  
아 조국아 고향산천아  
네 모습 그려보는 이 마음 뜨거워라

진달래꽃 붉게 핀 조국땅 바라보니  
원한서린 가슴에 다진 맹세 불타네

아 조국아 기다려다오  
짓밟힌 강산에 광복의 봄 안고가리

해방의 기쁨안고 설레는 강산에  
위대하신 장군님 태양으로 모시리  
아 빛나라 나의 조국아  
인민의 행복은 영원히 꽃피리

## 당일군의 전형창조와 작가적탐구정신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에 대하여-

장영

최근년간에 이르러 왕성하게 창작발표되고있는 소설작품들에서 주목할만한것은 사회주의현실을 그린 작품의 비중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것이다. 이것은 우리 소설가들이 온 사회가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어가는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고 현대인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시대가 제기하는 인간문제들에 사상에술적해답을 주려는 적극적인 창작태도를 가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소설가들에 의하여 창작된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들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는 우리 현실의 시대적전형들이 많이 등장하고있다. 공장과 농촌, 광산과 어촌, 학교와 병원, 조국보위초소 등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긍정적주인공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령도밑에 혁명하는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자신의 명예나 공명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누가 보건말건 성실하게 일하는 주체형의 새 인간의 전형적성격들이다.

우리 소설문학에 등장한 이 시대적전형들가운데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의 기수들인 주체형의 당일군의 전형적성격들도 들어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작품들을 돌이켜볼 때 단편소설을 제외하고는 주체형의 당일군의 전형을 작품의 중심주인공으로 내세운 장편소설을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다. 많은 경우 로동계급과 농민, 지식인의 전형적성격을 중심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들에 대한 당적지도문제를 형상적으로 밝히며 작품의 정치조직선을 살리기 위하여 당일군을 등장시키고있을뿐이었다. 따라서 이런 소설들에서는 중심주인공을 축으로 하여 벌어지는 인간관계의 발전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몇개의 장면들에 당일군을 등장시키는데 그침으로써 그의 전형적성격을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보여줄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은 주체형의 당일군을 작품의 중심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그의 사상정신적품모를 전면적으로 형상하였다. 여기에 바로 이 소설이 우리 소설문학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군중을 존경하고 너그럽게 대하여 군중과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는 군중의 친근한 동지가 되고 벗이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주체형의 당일군의 제일생명으로 되고있다.

주체형의 당일군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으로 되고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이러한 충실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상감정에 기초할 때 참다운 충실성으로 발현될수 있는가 하는것은 당일군의 전형적성격창조에서 매우 중요한 리론실천적문제로 나서고있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은 이러한 문제에 옳은 예술적해답을 주기 위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우리 시대에 새롭게 탄생한 주체형의 당일군은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불타는 뜨거운 심장을 지닌 참다운 인간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작품의 핵으로 삼고있다. 이리하여 소설은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불타는 뜨거운 심장을 지닌 당일군만이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해나갈수 있으며 바로 그러할 때에라야만 당사업과 경제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사상을 현상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불타는 뜨거운 심장을 지니는것, 이것은 인간중심의 주체철학을 세계관적기초로 하고있는 주체형의 당일군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성격적특징의 하나이다. 가령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고 뒤흔든 심장을 지닌 사람이 당사업을 하게 된다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는것을 목적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이 바라시는대로 정확히 관철해나갈수 없다.

우리 시대 당일군의 전형적성격창조에서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이 장편소설은 과거의 정치생활에서 문제가 있는 시공조직설계

기사 박정호와 로동생활경험이 없는 제대군인출신의 연공 김석철에 대한 제철련합기업소 책임비서인 중심주인공 신철민과 금속공업부 부부장 차병진, 기사장 림영택의 각이한 관점과 태도의 대립과 충돌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불신과 냉담, 배격에 대하여 예리하게 비판하고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소리높이 구가하면서 주체형의 당일군의 전형적성격을 빛나게 창조하였다.

중심주인공 신철민이 우리 시대 주체형의 당일군의 전형으로 되는것은 우선 그가 원칙성과 인간성을 겸비한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이라는데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원칙성이란 사업과 생활에서 당적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그와 어긋나는 현상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견결한 품성과 혁명적사업기풍을 말한다.

당일군에게 있어서 엄격한 원칙성을 가지는것은 필수적인 품성의 하나이다.

당일군이 원칙성을 가져야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철저히 세우고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을 비롯하여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정도적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물론 모든 사업을 당의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갈수 있다.

그런데 당일군의 필수적품성인 당적원칙성은 결코 인간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그 모든 방침들은 철두철미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부터 출발되고있으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귀착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원칙성을 지킨다는것은 곧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가장 인간적인 숭고한 사업을 실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가장 철저한 원칙성은 곧 가장 풍부한 인간성의 발현으로 되며 가장 풍부한 인간성은 곧 가장 철저한 당적원칙성의 구현으로 된다. 만일 원칙적인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인간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숭고한 리념이 없다면 그것은 벌써 원칙적인것일수 없으며 인간성이라고 하는 그것에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혁명적원칙의 요구가 깃들어있지 않다면 그것은 벌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성일수 없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한 당적원칙성과 인간성은 상반되는 개념인것이 아니라 서로 통일된 하나의 개념 즉 충성심의 두 측면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따듯이 돌봐주고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이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용광로대보

수공사를 두달안에 성과적으로 해제끼도록 힘있게 이끌어주는 소설의 주인공 신철민의 성격이 바로 그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신철민이 지니고있는 원칙성과 인간성을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내고있는것은 박정호와 김석철에 대한 그의 믿음과 사랑이다.

박정호로 말하면 조국이 시련을 겪고있던 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적들앞에 굴복하여 죄를 지었고 몇해전에는 3천마력전동기를 설치하는 기초공사를 벌리면서 오작시공을 하여 국가에 많은 손실을 줌으로써 권리정지라는 당책벌까지 받은 사람이다.

만일 신철민이가 책상머리에 앉아 리력문건이나 뒤지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냉담한 인간이라면 차병진이나 림영택이 그러한바와 같이 과거의 정치생활에도 허물이 있고 현행에도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을 결코 믿을수 없을것이며 더우기 그에게 중요한 과업을 맡길수도 없을것이다. 왜냐 하면 이런 사람에게 중대한 과업을 맡겼다가 혁명앞에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손실이라도 끼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당조직을 책임진 비서 그자신이 지게 될것이기때문이다.

하지만 신철민은 차병진이나 림영택이들이 말하듯이 《사람과의 사업에서 우경을 범》하여 당일군으로서의 자기의 정치생활에 엄중한 후파를 입게 되지만 앓을가 하는 그런 보신적인 태도로 사람과의 사업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범속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인간을 뜨겁게 사랑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대한 충성심을 인간의 가장 귀중한 량심으로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키워주는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여기고있다.

물론 사업에서 우경적편향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우경은 투항주의를 의미하며 그것은 혁명을 배반하는 길로 굴러떨어질수 있다. 그러나 우경적편향을 경계한다는 미명아래 좌경적편향을 범하는것도 그만 못지않게 유해로운 일이다. 좌경은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고 군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억제하며 나아가서 혁명을 말아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박정호기사의 경우 설사 그의 과거정치생활에 허물이 있다하더라도 그가 오늘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려 할진대 그의 과거를 문제시 할 필요는 없는것이다.

언제나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군중과 함께 생활하는 신철민은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깊은 밤 길가의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치는 박정호를 보았으며 그 누가 시킨 일도 없었는데 3년전부터 벌써 용광로대보수기간을 앞당길수 있는 새로운 시공법을 탐



색하면서 수많은 밤을 밝힌 그의 깨끗한 량심을 보았던것이다.

3년동안이나 그리고 또 그리면서 찢진곳을 덧붙인 설계도면, 이 하나의 세부에는 애국적열정을 가지고 애쓰며 모대긴 박정호의 량심이 깃들어있었던 것이다.

박정호의 이런 깨끗한 량심을 본 신철민의 심장은 그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으며 만일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것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확고한 립장에서 그를 믿고 중요한 과업을 맡기는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관철함에 있어서 당일군들이 취하여야 할 옳은 태도이며 우리 당의 원칙적요구이기도 한것이다.

차병진과 림영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호의 설계안을 지지해주고 그가 용광로대보수공사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우도록 하며 그 혁신의 나날에 그의 아들이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원으로 달려가 밤을 새우는 신철민의 형상은 참으로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예술적화폭으로 된다.

그런가 하면 그는 기사장이 그렇게도 믿지 못하던 제대군인출신의 연공 김석철이가 제기한 엉뚱한 발기안에서도 새작을 발견하고 로동계급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어 그들이 낡은 용광로를 하나하나 해체하는것이 아니라 통채로 자빠뜨려 그 해체작업을 한달이나 앞당기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마침내 기사장이 내놓은 다섯달짜리 대보수시공조직설계안에 비하여 훨씬 혁신적인 새로운 설계안에 기초하여 두달동안에 용광로대보수공사를 해체키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게 되었던것이다.

이것은 당일군이 인간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불타는 뜨거운 심장을 지니고 사람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면서 그들을 로력적위훈으로 불려일으킬 때 얼마나 커다란 충성의 기적을 창조하게 되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감명깊은 화폭이다.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사람들의 심장에 충성의 불을 지펴주며 그리하여 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당의 경제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도록 하는 신철민의 성격이야말로 우리 당이 가르쳐준대로 원칙성과 인간성을 겸비한 주체형의 당일군의 참다운 전형으로 된다.

신철민은 이처럼 근로대중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어 그들이 지혜의 나라를 활짝 펴고 창조적적극성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고있을뿐아니라 당적원칙성과 뜨거운 인간애를 가지고 경제지도일군들의 사업과 생활도 따듯이 보살펴주고있다.

사회주의건설시기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경제사업을 잘해나가는것이다. 당사업은 언제나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어야 한다. 경제사업을 떠난 순수한 당사업이란 있을수 없으며 당사업의 성과는 경제사업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여기서도 특히 당일군들이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하는 현상을 막고 정치사업을 선행하여 누구나가 다당의 정책적요구를 잘 알며 경제지도일군들로 하여금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경제사업을 조직집행하도록 당적지도를 보장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신철민은 생산밖에 모르는 지배인 리형삼의 그릇된 관점을 깨우쳐주어 그가 용광로대보수공사의 앞장에 서도록 하는 한편 고혈압병으로 고생하는 그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돌봐주어 그로 하여금 당의 경제정책의 요구대로 일을 잘하는 참다운 경제지도일군으로 자라도록 한다.

신철민의 성격이 당적원칙성과 뜨거운 인간애를 겸비한 주체형의 당일군의 전형으로 생동하게 형상된것은 또한 그의 가정인정신을 작품의 중요한 복선으로 진하게 깔아놓은것과도 관련된다.

안해가 10년가까이 입원생활을 하고있는것을 생각할 때 신철민은 가정적으로 불행한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다.

하지만 신철민은 그 불행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을 스스로 가슴에 받아안고 그 시련의 고비를 넘으려고 모대기는 인간이다.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치는 전화의 그날 부상당한 자기를 구원하려다가 적의 포탄파편이 복부를 관통하여 후방병원으로 후송된 간호장 송경심, 그의 생사여부를 알길 없어 안타까와하던 신철민은 전후에도 여러해가 지나서야 그가 살아서 어느 구역당위원회 지도원으로 일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며 그와의 접촉과정에서 련정을 느끼고 마침내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된다.

하건만 신철민에게 보내온 경심의 회답은 어떠하였던가.

《...철민동무,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저에게는 동무의 청혼을 받아들일수 없는 남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를 단념해주십시오.》

경심의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의 척추에 원썬놈의 포탄파편이 두개나 박혀있어 그 어느때엔가는 그것으로 하여 하신마비가 올수 있다는것을 알았을 때 만일 신철민이가 리기적인 인간이라면 그로부터 물러설수도 있었을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는 도의감에서는 일시 피로움을 느낄른지 모르지만 개체생활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안락할수도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신철민은 결코 그런 인간이

아니었다. 자기를 구원하려다가 부상당한 한 처녀에 대한 도의감도 없는것은 아니었으나 그보다도 그는 경심이를 《한생을 같이 혁명의 길을 걸을수 있는 좋은 동무》라고 보았던것이다. 그런 인간에게 불행이 닥쳐울수 있다고 하여 자기의 안락만을 꿈꾸면서 그로부터 물러선다는것은 《참다운 사랑도 인간의 의리도 모르는 너절한 인간》으로서 규탄을 받아야 마땅하며 따라서 그런 인간은 그 아무리 안락한 가정을 꾸린다 하여도 결코 행복할수 없다는것이 철민의 생활관이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는 서슴없이 처녀의 한생을 《책임》지겠다고 나섰던것이며 그리하여 오늘은 10년가까이 안해를 병원에 보내놓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는 안해의 입원생활로 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것처럼 자신을 《가정생활에서 더없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한적은 한번도 없었다. 비록 마음고생은 하지만 그는 그 어떤 다른 녀성들에게서는 받을수도 없는 안해의 고결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있었으며 그에 대한 자신의 뜨거운 사랑으로 또한 무한히 행복하였던것이다.

마음 같아서는 대수술을 받고있는 안해의 곁으로 자주 가보고싶지만 자기가 안고있는 일감이 너무도 많고 중대하여 자리를 뜨지 못하는 신철민의 심정과 그가 안해와 주고받은 편지의 글줄들은 그들이 서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고열의 병마와 싸우는 침상에 누워서도 용광로대 보수공사에 써달라고 벅어리장갑을 스무켄레나 만 들어 지원물자로 보낸 안해의 심정과 그의 편지의 글줄들도 뜨겁지만 안해의 그 사랑을 받아안고 그에게 보내는 신철민의 편지는 또 얼마나 뜨거운가.

《경심이,

나는 오늘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있으며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온 심장으로 느끼었소.

...

당신이 편지에서 깨우쳐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러버렸겠소. 나는 이곳의 일을 저버리고 허둥지둥 당신에게로 달려갔을것이며 그것으로 해서 당신에게 더 큰 정신적고통을 주고 지금까지 충성의 한길에서 붉게 꽃피워온 우리의 값높은 애정을 한갓 범속한 세태적인 애정으로 욕되게 했을 것이요.

경심이, 정말 고맙소. 당신과 같은 충실한 혁명동지를 한생의 길동무로 가진 나는 더없이 행복한 사람이요.》

한편의 서정시와도 같은 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는 안해에 대한 신철민의 사랑이 얼마나 고결한것인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사랑이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감정으로서 거기에는 그 어떤 리기적인것도 있을수 없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것은 사랑받는 대상을 위하여 자기를 바친다는것을 의미하며 그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긴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할 때에야 그 사랑은 참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되는것이다.

신철민에 대한 안해의 사랑이 그러하며 안해에 대한 신철민의 사랑이 또한 그러하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그들의 애정륜리관계는 이처럼 고상하고 그들의 정신세계 역시 더없이 아름답고 풍부하다.

신철민의 가정인정선에 대한 묘사에서 어머니인 한씨와 아들 명진의 형상은 비록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주인공의 성격을 다면적으로 풍부하게 보여주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며느리를 대신하여 손자들을 거두어주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어머니의 수고로움을 생각하는 자식으로서의 신철민의 심정과 대학에 가고싶어하는 아들을 상급학교가 아니라 로동현장에 내보내는 아버지로서의 신철민의 엄격한 사랑은 그 얼마나 그의 인간적품모를 돋보이게 해주는것인가.

장편소설은 이처럼 주체형의 당일군의 전형적성격을 다면적으로 풍부하게 보여주고있을뿐아니라 그를 완성된 인간으로 리상화하지 않고 산 당일군으로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세상에는 완성된 인간이란 있을수 없다. 그 아무리 준비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상외의 난관에 부딪치면 일시 주저감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가도 인차 자기의 마음을 바로잡고 난관을 극복해나가는 불굴의 정신을 발휘하게 되는것이다.

당일군의 형상을 창조하면서 사업과정에 있을수 있는 마음의 일시적 동요나 고민, 모대김을 전혀 무시하고 그를 타고난 특수한 존재처럼 그린다면 심장이 뛰는 산 성격을 보여주기가 어렵게 될것이다.

장편소설은 신철민의 성격을 형상하면서 50톤기 중기의 시운전이 실패하자 두달짜리 용광로대보수공사에 미치게 될 엄중한 후과를 생각하며 일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던 그가 오랜 로동계급인 장범도아바이로부터

《...책임비서동무, 너무 걱정 마시우다. ...이제 또 모두 달라붙어 머리를 짜내느라하면 좋은 궁냥이 트이겠지요. ...》

라는 말을 듣고 인차 자신의 나약성을 뉘우치며 《아바이, 깨우쳐주어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지켜보는 로동자들앞에 나서서 그들을 새로운 위훈으로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를 살아움직이는 산 당일군으로 형상할수가 있었다.

장편소설은 이와 같이 신철민의 형상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불타는 뜨거운 심장을 지닌 주체형의 당일군의 전형적성격을 생동하게 창조하면서 우리 사회에 충성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성격이 배출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자애로운 사랑의 품이 있기때문이라는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과연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이 아니었다라면 지난날 탄부의 아들로 태어나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모진 고생을 다 겪던 신철민이가 어떻게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당일군으로 자라날수 있었겠는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몸가까이 모신 당중앙위원회에서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따라배우며 일하다가 당의 높은 신임에 의하여 제철련합기업소에 책임비서로 파견되여온 그의 모든 긍정적인 성격특징들은 오로지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의하여 형성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신철민을 이처럼 주체형의 혁명적당일군으로 내세워주시였을뿐아니라 그의 사업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용광로의 대보수공사를 제때에 하지 않아 밀통이 터지는 사고를 일으켜 당에 걱정을 끼쳐드렸을 때에도 책임비서와 지배인을 부르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점심식사도 함께 나누시면서 친어버이심정으로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들을 하나하나 일깨워주시고 《화를 복으로 만들자》고 하시면서 이왕 용광로의 바닥을 헤칠바에는 그 용량을 200립방이나 더 늘구어 더 많은 선철을 뽑으라고 현명한 가르치심을 주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또한 철민이가 안해의 입원으로 하여 마음고생을 한다는것을 헤아리시고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히 병원에 전화를 거시여 환자의 병상태를 알아보시고 유능한 의사와 귀중한 약을 보내주시였으며 용광로대보수공사가 끝난 그 날밤에는 제철소에 전화를 거시여 철민에게 《...이젠 공사도 성과적으로 끝났으니 래일 어머니와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떠나오.》라고 한량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신다.

그런가 하면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50톤기중기시운전의 실패와 관련하여 신철민이가 곤경에 처하였을 때 당중앙위원회 부장을 파견하여 사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도록 하고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용광로대보수확장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그의 사업을 고무하여준다.

소설은 이렇듯 신철민이가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불타는 뜨거운 심장을 지니고 사람과의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 제철련합기업소앞에 맡겨진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의 결과라는것을 설득력있게 보여주면서 철의 기지에 살고있는 모든 일군들과 노동자들의 운명이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의 자애로운 품과 하나로 련결되어있다는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장편소설은 또한 제철소당위원회 위원이며 로력영웅인 제관직장 고문 장범도를 비롯한 오랜 세대의 로동계급들과 김석철을 비롯한 새세대의 로동계급들이 제철소의 주인으로서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휘하는 모습을 다양한 개성적인 성격들로 잘 보여주었다. 특히 낡은 용광로를 통채로 자빠뜨리는 대담한 작전과 대보수과정에 부닥치는 난관을 굳센 의지로 뚫고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 나라 영웅적로동계급의 불굴의 기상을 그대로 보여주주고있다.

그런가 하면 철의 기지 녀성들이 신철민의 노력에 의하여 사랑과 행복을 되찾는 모습들도 정이 가게 잘 묘사되고있다.

기사장인 남편의 사상적병집으로 하여 고민하다가 신철민의 일깨움을 받고 안해로서의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서 더 뜨거운 사랑으로 남편이 옳은 길에 들어서도록 도와주는 오현숙기사. 몇몇치 못한 남편의 과거로 하여 늘 불안을 안고 살다가 신철민에 의하여 보람찬 삶의 길에 들어서는 박정호기사의 안해 윤명희, 석철이를 열렬히 사랑하면서도 오빠의 과거때문에 석철이의 어머니에게서 부절을 당하고 고민하다가 신철민에 의하여 사랑을 되찾게 된 박정호의 누이동생 박운옥 등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녀인들은 유순하면서도 강직한 조선녀성의 품성을 지닌 생동한 개성들로 잘 안겨온다.

이러한 성격들로 하여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맺힌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사람들을 충성과 위훈으로 불려일으키는 당일군 신철민의 인간미가 더욱 강조되고있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고 깊이 파는것은 성격과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리기 위한 중요한 형상방법의 하나이다.

주체형의 당일군을 중심주인공으로 한 이 장편소설이 신철민의 성격적특징을 다면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는것은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잘 짜고 그것을 극적기대와 흥미를 가지고 볼수 있도록 깊이 파고든것과 관련된다.

소설에는 신철민을 한편으로 하고 차병진과 림영택을 다른 편으로 하는 서로 다른 인물들간의 대립

과 충돌이 중요한 갈등선으로 되고있다. 이 갈등관계의 심화발전은 이들의 사상과 지향, 신념과 의지를 드러내는 극적정황들을 무수히 낳으며 그 결과 그들의 대립과 충돌이 어떤 경지로 발전하고 또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극적기대를 가지게 한다.

유람식일본새에 매달려 전횡과 관료주의를 부리는 차병진은 신철민이가 박정호의 혁신적인 설계안을 지지하고있는데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의 후퇴시기 허물이나 전동기기초오작사고를 낸 죄파로 봐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보지 못한 이상 그가 무슨 마음을 먹고 그런 위험천만한 설계안을 내놓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과의 사업에서 우경을 범하지 말라는겁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의 환심을 살수 있으나 언젠가는 반드시 그 보복을 받는다는것을 명심하는게 좋을겁니다...》

차병진이 말하는 그 보복이란 책임비서가 사업과의 사업에서 《우경》을 범하여 당일군으로서의 정치생활에 엄중한 후파를 입게 된다는것을 념두에 둔 말이다.

그런가 하면 자기보신을 위하여서는 당적량심도의 리도 모르는 전형적인 보신주의자로 굴러떨어진 립영택은 이렇게 도전한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런 사람을 이런 중요한 사업에 끌어들일순 없지 않습니까. 전번 전동기기초오작사건과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구도 담보할수 없지 않습니까.》

차병진과 립영택의 사상적병집은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 즉 인간에 대한 불신과 팽대, 배척과 자기보신이 그들의 사상적본질인것이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열정으로 심장이 불타는 신철민의 사상적지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것으로서 이 두 사상과 신념간의 대립과 투쟁은 심각한 극성을 나타내고있다.

박정호를 믿지 못하여 그가 내놓은 혁신적인 설계안을 반대하는 차병진의 사상적병집을 비판하면서 한 신철민의 다음의 대화는 참으로 인간옹호의 송가와도 같이 자랑스럽게 울린다.

《당에서 우리들에게 맡겨준 일자리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당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묶어세워 혁명을 잘하자고 해서 맡긴 자리지 당권이나 직권을 람용해서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권리를 유린하는 전횡을 부리라는 벼슬자리는 아닐겁니다. 그런데 부부장동무는 어째서 애매한 사람을 그처럼

가혹하게 억누르고 모욕합니까? 그것이 과연 당중앙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일하는 일군의 태도겠습니까?》

자신보다 혁명을 먼저 생각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위한 일이라면 한몸을 서슴없이 바칠 각오가 되어있는 신철민에게 있어서 당이 안겨준 뜨거운 심장이 있는 한 두려울것이 없었다.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가리키는대로 사람들을 아끼고 귀중히 여겨 혁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는 일이라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와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이 그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다 하더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 그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도록 한다.

아직 혁명화되지 못한 일군들을 깨우쳐 그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도록 이끌어 나가려는 신철민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내면적인 체험세계는 참으로 심오한 극성으로 충만되고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소설은 주인공이 겪게 되는 심오한 극적체험을 독자들에게 안겨주어 극적 기대와 흥미를 갖게 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기본 갈등선과 교차되면서 복선으로 깔린 안해에 대한 신철민의 가정적인 인정선은 이 소설의 예술적향기를 더욱 돋구어준다.

오래동안 입원한 안해가 그나마도 병세가 시원치 않아 대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고 그 대수술을 무사히 겪게 되기를 바라는 주인공들의 관심이 곧 독자들의 극적 기대와 흥미의 하나로 되고있는것이다.

소설의 문제를 보면 멋진 문장으로 독자들을 현혹시키는 대목은 별로 많지 않으나 모든 표현들이 짙고 정확하며 대화가 진실하다.

언어의 묘사력이 특별히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설이 독자들에게 극적 기대와 흥미를 주는 것은 주인공이 체현하고있는 극성이 심오하고 등장인물들의 운명발전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안겨오도록 인간관계가 잘 짜여있는것과 관련된다. 바로 여기에 이 소설의 형상적기교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은 주체형의 당일군의 전형적성격을 훌륭하게 창조한 성과작으로서 주체문학예술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고 당의 두리에 많은 사람들을 굳게 묶어세우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시대와 함께 발전하는 우리 주체문학의 자랑스런 면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성과로 된다.

## 우리 선전비서

장기성

천둥소리에 문석은 잠을 깼다. 시퍼런 번개불이 창문을 녹이려든다. 비가 얼마나 되게 퍼붓는지 그 소리에 귀가 멍멍할 지경이다.

(언제부터 이런 큰 비가…?)

문석은 집에 비거둬질할것이 없음을 피여 생각했다. 토끼장이 눈앞에 떠올랐지만 나가볼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비바람을 받기에는 너무도 긴 채양 밑에 토끼장이 놓여있는것이다. 다음순간 생각은 공장으로 달려갔다. 선반작업장, 휴게실, 소재창고… 언제 비 한방울 새본적 없다. 경비원들이 돌아보았을게고… 하긴 기계공장사람이 비걱정을 할진 뭐람.

번개불의 반사광이 벽시계를 비쳐준다. 2시가 다 돼온다. 그러니 저녁교대를 마치고 돌아와 누운지 이제 한시간이 좀 넘었다.

옆에서 깊은 잠을 자고있는 안해의 동안 뜬 숨소리와 세살짜리 은심의 쉼근거리는 숨결이 겨끔내기로 어서 잠들라고 속삭이는듯싶다. 눈등이 저절로 내려감진다. 자자.

으르릉거리는 우뢰소리, 소연한 비소리, 다시 번개…

그때 언뜻 자동차발동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차가 이 밤중에 폭우속을…?) 불현듯 가슴속에 까닭모를 불안감이 서려올라 문석은 눈을 떴다.

발동소리는 두무강쪽으로 멀어져간다.

(두무강쪽에 무슨…?)

생각을 굴리던 문석은 그만 무엇에 놀란 사람처럼 벌떡 몸을 일으켰다.

(아니 혹시 발전소건설장에…?)

순간 문석의 눈앞에는 군당 선전비서 박형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발전소건설장에 대한 생각이 그의 모습을 연상시키는지 몰랐다.

《자 문석동무, 새 상표를 붙인 담배인데 맛이 어떤가 피워보라구.》 아까 애저녁에 기대옆에 왔았던 선전비서의 인사말이었다. 《발전소건설장에 보낼 부속품들을 다 깎았다면서?…수고했구만. 내 그곳으로 나가는길에 가지고 가려고 들렀소. 이 배낭에 넣어주요.》 그는 늘 가지고 다니는 물날은 보위색배낭 아구리를 벌렸다. 《아니 비서동무가요? 이게 쇠덩어리들인데 얼마나 무겁다구…》 문석이 만류하려 들자 그는 벌써 웃었다. 《허 일없소. 등짐은 땅땸만 하면 가는게요. 날 너무 약골로 생각지 마요.》 그는 초리굽은 눈섭을 쫓긋해보이며 계속했다. 《발전소건설장소식을 알고싶겠지? 거기선

지금 마감공사인 가배수로막이전투를 벌리고있소. 래일부터 하게 돼있는데 무더기비가 예견되오. 통보를 받고 앞당겼지. 비가 제발 오늘밤만은 오지 말아야겠는데. 자 그럼 수고하오.》 그리고는 어깨를 파고드는 배낭을 추슬리며 떠나갔었다.

《에이 무슨놈의 날씨람.》 문석은 큰 홍수가 저 발전소건설장에 위험이 닥친것만 같아 마음이 다급해났다.

그는 작업복소매에 팔을 꿰며 현판으로 나갔다. 장화 한짝을 신고보니 반대쪽족이였다. 《제길.》 그는 덤벼치는 자신을 나무랐다.

《아니 자다말고 어딜 가요?… 그럼 비웃을…》 어느새 켜 안해가 아니었다면 비웃도 걸치지 않고 문을 나섰을것이였다.

문석은 대줄기같이 쏟아지는 비속을 뚫고 내달렸다. 얼마쯤 달리는데 때마침 자동차 한대가 달려오다가 옆에 멎어섰다. 운전칸문을 반쯤 열고 누군가 소리친다.

《어딜 가요?》

《발전소건설장.》

《그럼 타오.》

문석은 급히 적재함에 매달려올랐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타고있었다.

부르릉… 자동차가 떠났다.

번개, 퇴성, 비, 비, 비…

하늘이 통채로 쏟아져내리는것 같다.

발전소건설장의 외등불은 자연의 광란에 겁먹은듯 기가 죽어있었다. 큰 풍막들을 무어친 가배수로막이타입장에만 고속등이 빛나고있다. 와르릉거리는 콘크리트혼합기의 동음도 우뢰소리, 비소리, 강물소리에 눌러져 들리는듯마는듯했다.

그 모든 소음을 짓누르며 격조높은 방송소리가 울려퍼진다. 군 방송차 처녀방송원의 힘있는 목소리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마지막전투를 벌리고있는 여기 건설장에 계속 수많은 지원자들이 달려오고있습니다. 화학공장의 엄도빈, 문세월동무들, 일용품공장의 지용세, 박형빈동무들, 편의관리소의 탁호식, 김성규 동무들이 사품치는 강물속에 뛰어들어 방수벽을 높이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뒤따라 장공장에서 달려나온…》

오목눈처녀방송원의 목소리는 듣는 가슴들에 승벽심을 불러일으키며 짜랑짜랑 울려퍼졌다.

(어느새 벌써 술한 사람들이 달려나왔구나, 내가 이거 제일 늦게야...)

문석은 남먼저 자동차에서 뛰어내렸다. 무슨 일을 하라는가고 물을 필요가 없었다.

문석은 모래담는곳에 뛰어들었다.

《그건 내가 뻘시다.》 문석은 한사람이 금방 끌어 내오는 모래가마니를 빼앗듯 닝큼 들어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는 방수벽쪽을 향해 급한 걸음을 내짚었다.

《숨이나 돌리고 뭘것이지 원.》 누군가의 탓하는 듯한 말소리가 뒤에서 울렸다. 갈린 음성이지만 정겹게 들린다. 어딘가 귀에 익다. 그 말이 나를 두고 한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아니.》 이어 문석은 자기의 추측을 부정했다. 《이런 밤에 나를 어떻게 알아보았을라구.》 하면서도 그 후더운 정을 느끼며 문석은 걸음을 다그쳤다.

가배수로막이현장과는 달리 방수벽어방은 어두웠다. 자동차를 두대씩이나 세워놓고 전조등을 내비치지만 창살같은 비발을 뚫지 못했다. 번개가 자주 일어 주위를 밝히곤하는것이 다행스러웠다. 번개빛에 마구 불어오르며 굼니는 강물이 떠였다.

《자 여기-여기!》

《빨리!》

《비켜서오.》

다급한 목소리, 급한 발걸음, 가쁜 숨결...

문석이 첫가마니를 부리고 돌아설 때였다. 그는 불시에 자기 귀를 의심했다.

(아니 방송에서 내 이름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길에서는 네일 내일이 따로 없다는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여기 발전소건설장에 계획외에 많은 기계부속품을 깎아보내준 기계수리공장의 차문석동무! 차문석동무가 지금 돌격전에 나선 병사의 심정으로 두어깨에 모래가마니를 메고 달리고있습니다.》

(아 내가 온걸 고 오목눈이 언제 보구?! ) 순간 문석의 가슴은 뿌듯해났다.

(뭘 두어깨에 메고 달린다구... 허 내가 왜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고 오목눈이 령리하거던)

어느새 모래담는곳에 이른 그는 한가마니를 닝큼 들어 어깨에 올린 다음 다른쪽 어깨를 옆사람앞에 들이댔다. 《자, 하나 더 메워주.》

《차, 이사람 둘씩 메구 가낼가.》

《글쎄 올려놓으라니까.》

문석은 달렸다. 무거운줄도 힘든줄도 몰랐다. 비발은 잦으나 몸이 달아오르고 힘이 솟구쳤다.

(거 방송원이 내가 온줄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 도착해서 고작 삼사분이나 뻘을텐데... 누가 알려줘서? 알려줬다 한들 언제 원고를 써서 그렇게... 모를 일이야.)

문석은 문득 열적어졌다. (내가 이거 방송에 한번 난걸 너무 궁지롭게 생각하는거 아니야. 애들처럼...) 어쨌든 가슴이 벅차오르고 신바람이 났다...

일은 날이 희뵘히 밝아올 때 완전히 끝났다. 비물과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모두 웃으며 헤어들었다.

문석은 방송차열을 지나려다가 마침 마주 내다보는 방송원처녀의 오목눈과 시선이 마주쳐 병싯 웃었다. 그러자 오목눈이 류달리 광채를 뿜으며 반기었다.

《아이 수고했어요!》

《뭘 한 일이 있다구... 그런데 날 언제 알아봤어?》

문석은 흥그러운 기분으로 처녀에게 물었다.

《아니 전 못봤어요.》

《?...》

문석은 갑자기 어리벉벉해졌다.

《아니 그럼 방송으로 어리집작 허풍선이를 친단말이야?》

문석은 처녀한테 놀리우는것 같은 맹랑한 생각이 들어 통명스레 말했다.

《호호, 왜 허풍선이겠어요.》

처녀는 까르르 소리내여 웃더니 말을 이었다.

《비서동지가 써준 방송원고인데요뭘. 비가 쏟아지고 캄캄해서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방송하겠는가고 내가 걱정하자 비서동지는 그럼 미리 원고를 준비해두자고 하면서 직접 써주었어요.》

《...》

《술한 사람들의 이름이 밝혀진 원고를 받아들고 제가 이들이 나올지 말지 어떻게 알겠는가고 하니 까 비서동지가 뭐라고 한줄 아세요. <아니 이 동무들은 꼭 나오오. 당에서 이 중형발전소건설을 일마나 중히 여기는줄을 다 잘 아는 동무들이니까>라고 했어요.》

《!...》

문석의 마음은 대뜸 후더워올랐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온지 딱 삼분후에 방송했나말이요. 그래 추측이...》

《비서동진 그 비바람속에서도 흠가마니를 맨채 삼분이 멀다깝게 저한테로 달려오군했어요. 누구누구가 나왔으니 어서 뵈다 방송하라고 기뻐 소리쳤어요. 문석동무가 나온것도 그렇게 알게 된거예요.》

순간 문석의 가슴은 몽클해났다. 아까 비바람속에서 들던 정다운 음성이 다시 귀전을 때린다. 《아 우리 선전비서!》 하는 소리가 저절로 터져나갔다.

《방송을 끝마칠 때 비서동지는 군내 모든 사람들을 자기처럼 알고 믿을수 있다고 말했어요.》

감심된 어조로 노래하듯 이야기를 하면서도 처녀는 옆을 지나는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누었다. 눈길

이 마주칠 때마다 그의 오목눈엔 섬광같은 빛이 반짝였다.

《아이 어쩌면 비서동지 예견이 그렇게도 꼭 맞을가요. 비서동지가 나온다던 사람들은 정말 신통히 다 나왔어요!》

처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환성같은 소리였다.

《그래, 맞지 않구, 맞지 않구...》

문석은 부푼 심정에서 처녀의 말을 받았다.

《우리 선전비서동무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까!...》

《아니, 저길 보세요. 언제우에 비서동지가...》

문석은 처녀의 눈길따라 언제쪽을 바라보았다.

거기 언제 한가운데에 선전비서 박형진이 서있었다. 그는 온몸이 흠뻑 젖어서도 흠뻑 젖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정겨운 미소를 보내고있었다.

아침노을은 그의 동실한 얼굴을 붉게붉게 불태우고있었다...

## 그들의 고향

-월미도 영웅전사들을 노래함-

김형준

어데라더나

그대들의 고향은

봄이면 사과꽃 피어나는

백리과원의 그 언덕

아담한 기와집 마을인지

가을엔

황금과도 설레는 들관

가없이 들린 하늘아래

벼수확기 달리고

백학이 무리져나는곳이나

은모래 반짝이는 백사장

활짝 핀 해당화를 보아도

한아름 꽃 꺾어 안은 영육이

웃으며 달려나올듯

아, 여기가 그대의 고향 아닌가

달밝은 농장의 밤

가야금 안고 농장회관을 나서는

고운 너인의 얼굴을 보아도

그의 손을 잡고 물어보고싶구나

취사원아바이의 딸이 아닌가고...

처녀와의 첫 사랑을

조국의 래일과 약속하며

손잡고 건넌던 개울가 돌다리는

다시 올 그들을 기다려

흐르는 세월에도 이끼 덮이지 않았거니

거리의 우편통앞에서

발꿈치 고이며 편지를 넣는 소녀

결전의 그날에

영웅전사들이 고향에 보낸 편지에

회답의 편지를 넣는거나

오, 그들이 지닌 고귀한 삶앞에서

내 그들의 고향을 묻지를 앎마

꽃피는 과원이여

오곡설레는 대지여

해당화 피는 바다여

내 어린시절

어머니 부르며 고향집을 들어설 때

수령님 만세 높이 부르며

그대들은 크나큰 조선의 고향

수령님 품에 영생의 넋을 맡겼나니

내가 태어난 땅

그네들 자란 정다운 산천

우리모두 안겨사는 조국의 품

태어나고 태어나는 미래의 마음속

그것이 그대들의 고향이었구나.

## 내 나라 외 2편

-한 귀국동포의 수기에서-

김윤철

오늘 딸애가 퇴원한다기에  
나는듯 넓다란 병원문 들어설 때  
마주 나오던 간호원이 하는 말  
-영희는 오늘 퇴원하지 못해요  
  
순간 가슴속에 근심이 덜경  
(간밤에 아이 병세 더해졌나  
아니면 그새 그 애가 쓴  
귀한 약값도 퍼그나 났네니...)  
  
위생복 갈아입고 생각에 잠겨  
소아과병동 찾아 조용히 들어서다

때마침 마주 나온 안해의 말에  
그만해야 문고리 잡은채 굳어섰네  
  
-애기가 얼마나 잘 놀게요  
짜자깁도 잘 치고 걸음마도 탔어요  
그런데도 하루밤만 더 지나보고  
퇴원시켜준댔어요, 선생님들이...  
  
불시로 눈시울이 화끈 달고 젖어들어  
슬머시 머리 돌려 창가로 다가서니  
아 하늘 푸르고 해빛 눈부서라  
은혜로운 어머니 내 나라!

## 기쁨

포도넝쿨에는 포도송이 무너질듯  
복숭아나무엔 익은 열매 가웃가웃  
담장안에 해바라기 꺾충 솟아 미소하고  
접시꽃은 울밑에서 수집게 방긋 웃소

줄당콩꼬투리는 제가 먼저 익었노라  
성급히 탁탁 배가죽 튕기고  
감자밭이랑새에 울강냉이 또 있어  
밭가운데 할머니 머리 검어진다오

합각지붕농가 기름진 트랙에  
농사란 농사는 다 퍼놓았으니  
삶의 기쁨이 그렇게도 많다오  
해빛이 하도 밝아 하도 따사로와서

아들네는 농장의 큰 밭을 가꾸고  
할머니는 텃밭농사 직심해  
생활을 가꾸고 나라살림 보탬하는  
그 정성 알알이 흐릿이도 영글었소



## 산골물 돌돌...

산골물 돌돌 그 소리에  
골짜기도 따라서 돌돌...  
소년단원 하나 조약돌 주어  
씻고 또 씻어 바구니에 담는다

산골물 돌돌... 그 소리에  
산새들도 즐거이 지중 배배  
바구니 안은 새별은 소년단원  
길가 황철나무아래에 간다

산골물 돌돌... 그 소리에  
내 가슴에도 뜨거움이 끓어  
소년과 나란히 조약돌을 깬다  
수령님 서계시던 황철나무두리에

산골물 돌돌... 그 소리에  
방글방글 웃으며 소년은 갇어도  
온 종일 내 마음속에 나뉘기는  
소년의 가슴우에 불타던 넥타이!

## 봄날아침에 외 1편

-총련 구라시까 초급중학교 모범교원 김정임동무를 대신하여-

김래경

귀청을 때리는 소음속에  
봄철은 소문없이 왔다 가고  
숨막히는 도시의 단칸방에서  
벗꽃은 속절없이 피었다 스러지는  
이런 봄철 봄날은 얼마이더냐

검은 구름 뒤덮은 하늘밑에선  
숨막혀 머리를 쳐들수 없고  
대지는 가없이 넓고넓어도  
서야 할 한치의 땅이 없어  
봄을 모르고 계절을 모르고  
살아온 사십여평생이었어라

해마다 맞는 봄이건만  
오늘 따라 내 마음 설레여라  
꽃들은 피어나 만발하고  
꽃새들은 날아며 노래하여라

봄별은 이곳으로만 비쳐드는가  
도시 한복판에 우뚝 솟은 우리 학교에  
람홍색 우리 기발 봄바람에 휘날리고  
조국에서 보내온 꽃씨와 나무

우리의 마음마냥 피어났어라  
울긋불긋 진달래꽃 살구꽃이  
입학생을 맞는 화창한 봄날아침에  
망울을 터뜨리며 활짝 피어났어라

수령님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진정 새 봄을 찾고 봄철을 맞는  
입학생들의 어린 가슴에도  
따사로운 봄바람이 물결치고  
입학생을 맞는 내 머리우엔  
조국의 하늘이 맑게 띄워  
태양의 해발이 찬란히 빛났어라

## 깊은 밤에

몰려드는 잠 뿌리치며 뿌리치며  
다시 복남이와 이 한밤 마주앉는다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난 그때문이나  
굴레벗은 망아지처럼

제 빨대로 돌아치던 복남이를  
어루 달래여 마주앉았건만

별빛 총총한 깊은 밤에  
내 너를 붙들고 마주앉는건  
우리 서로 마음 편치 않는 일

하지만 우리는 마주앉아야 한다  
우리는 서로 배워야 한다  
우리의 말과 글을  
조선사람의 참된 녀과 마음을

조국이란 발음을 익히기 위해  
오늘도 백번은 더 익혔다만  
뜻대로 되지 않아 안타깝구나

장단에 맞춰 노래부르면  
신바람 나서 노래를 부른 네가  
오늘은 소리마다 시들먹하고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는데  
조국이란 참 뜻을 되새겨서나

내 이야기를 되새겨듣는  
너의 눈에선 불꽃이 튀고  
다물린 입에서 환성이 터지누나

그렇다 나의 복남아  
네 심장에 조국이 살아있고  
네 머리우에 원수님의 영상이  
찬란히 빛날 때  
배우는 속도는 백배로 빨라라

복남아 사랑하는 내 아들이  
덩지만 커서야 사람이냐  
조선의 녀이 없이 산다면야  
살아도 죽은 몸이지

내 한번 너의 마음속에 심어준  
조국에 대한 불같은 사랑은  
천금 주고도 살수 없거니  
내 이런 밤을 새우라면  
석달열흘도 하루와 같이 새우련다

아 네 얼굴에 피는 웃음 커질수록  
인민교원의 영예가 커가거니  
수령님의 혁명전사를 찾은 기쁨에서나  
깊은 밤 못별들이 유난히도 빛나누나

## 초석

리상민

## 1

○○행급행렬차가 역구내에 서서히 들어섰다.

떠나는 사람, 배웅나온 사람들로 역은 붐비었다. 손짐을 든 사람, 트렁크를 멘 사람들이 열차쪽으로 몰려갔다. 확성기에서 울려나오는 방송원처녀의 목소리가 그들의 걸음을 더욱 재촉하는듯싶다. 설명절기운이 채 사라지지 않은 정월초닷새날이라 기모노를 입은 녀인들의 모습이 유난히 사람들의 눈을 끈다.

대합실을 나온 김성진은 열차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겨놓았다. 자그마한 가방을 멘 그의 손에는 조선소설책이 들려져있다.

뒤따라 한 처녀가 걷고있다. 처녀는 종이꾸레미를 랑손으로 받쳐 앞가슴에 꼭 껴안았다. 머리를 가볍게 숙이고 걷는 처녀의 차림새는 소박했고 이쁜 얼굴에는 수심의 그늘이 비졌다.

처녀는 김성진의 약혼녀 은실이다.

김성진은 은실에게 무슨 말인가 할듯할듯하면서 도 그냥 걸었다. 그는 은실이와 작별하는 이 순간에 꼭 자기의 결심을 말해줘야 한다는것을 모르지 않았으며 은실이도 지금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며 배웅하고있다는것도 알고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인차 입이 열리지 않았다.

열차의 출발을 알리는 기적소리가 길게 울렸다.

성진은 그때까지 은실에게 자기 결심을 말하지 못하고 서성거리다가 열차승강대로 성큼 올라섰다. 그리고는 흠에 서있는 은실에게로 돌아섰다.

은실은 약간 당황한 기색으로 성진의 시선을 피하며 땅을 굽어보았다. 잠시후 그는 눈길을 들지 못하고 가슴에 안고있던 두개의 종이봉투를 말없이 내밀었다.

봉투에서는 고소한 양념냄새가 풍겼다. 성진은 무심중 봉투속을 들여다보았다. 주먹밥과 반찬거리를 싼 비닐팩이었다. 거기에서는 아직도 식지 않은 주먹밥의 온기가 따스하게 느껴졌다.

또 다른 봉투에는 뜨개옷이 들어있었다.

은실은 제 신발끝만을 굽어보며 머뭇거리고있을 뿐이다. 숨털이 보르르한 처녀의 귀방울은 어느새 발그레하게 상기되었다.

이윽고 열차차장이 부는 호각소리가 길게 울렸다.

은실은 그제야 숙였던 머리를 들었다. 도톰한 입술이 바르르 떨리더니 기여드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쪽은... 줍다는데요...》

지난 5년동안 휴가를 받고 집에 왔다 떠날 때면 언제나 이렇게 따라나와 성진을 바래주곤하던 은실이였다. 약혼을 한 2년전부터는 점심까지 싸가지고 나와 자기의 살뜰한 심정을 보여주곤했다.

오늘은 뜨개옷까지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애써 미소를 지으려는 이쁜 얼굴에는 두줄기 눈물이 번뜩이였다.

성진은 코마루가 찡 하고 가슴에서 방망이질이 일었다. 울컥 치밀어오르는 애뜻한 걱정을 막을길이 없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지금까지 마음속으로 바재이던 결심을 은실이앞에 털어놓았다.

《은실이, 너무 상심 마오. 내 이번에 조동문제를 제기하고 꼭 돌아올테니까!...》

열차차동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거나말거나 성진은 계속 큰소리로 웨쳐댔다.

《인차 돌아올테니 기다리라구!》

덜커덩 하는 소리와 함께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차창너머 열차를 따라 걸어오는 은실의 토실토실한 아릿다운 얼굴엔 흥조가 떠오르고 물기어린 까만 눈동자에는 기쁨이 반짝이였다.

《잘 가세요!》

방금전과는 달리 뚱뚱하고 탄력있는 은실의 부르짖음이 벌써 간격을 이룬 차창밖에서 들려왔다.

은실의 모습은 차츰 작아지며 멀어지더니 사라져 버렸다.

객차안으로 들어온 성진은 좌석을 정하자 거기에 털썩 주저앉았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한대 불어물었을 때에야 그는 제정신이 든것 같았다.

열차는 어느사이에 시가지를 벗어나 유유히 흐르는 강변을 따라 펼쳐진 벌판을 끼고 달렸다. 성진은 차창밖 저멀리로 흘러가는 부드러운 산발들을 넋없이 바라보면서 휴가기간에 있던 일들을 더듬었다.

3일전인 정월 초이튿날이였다.

성진의 집으로 은실이네 부모들이 찾아왔다. 겉으로는 새해인사를 한다지만 실상은 사돈을 만나러 온것이나 다름없었다.

성진은 기쁨절반, 불안절반의 복잡한 심정으로 그들을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버지들사이에 서로 허물없는 술잔들이 오가고 부엌에서 은실의 모친이 어머니와 함께 술안주를 장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 입술이 버그러져 코노래가 새어나온 성진이였다. 누이동생 성숙이가 옆구리를 쿡 찌르며 귀뜸을

해준 뒤에야 제깁에도 쑥스러워 얼굴이 홍당무처럼 새빨개졌던 성진이였다.

그날밤 집에서는 작은 아들인 성진의 결혼문제를 두고 이야기들이 오갔다.

성진은 자기앞에 놓여진 문제의 심각성으로 어느 정도 들떴던 기분이 사라져버리고 사뭇 생각이 깊어졌다.

그는 《ㄷ》 조선초중급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교원이였다. 학교는 성진이 나서자란 《ㅅ》시에서 멀리 떨어진 《ㅂ》시에 있었다.

조선대학교 문학부를 졸업할 때 그는 《사업초소와 지방을 가리지 말자》는 조직의 요구를 누구보다도 맨먼저 받아들였다. 조청활동가가 되건 교원이 되건 후방일군이 되건 그리고 부모 슬하를 멀리 떨어진 타지방이라도 조직이 요구하는곳이라면 달게 여기고 떠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는것이 조선대학에서 공부한 조선청년의 본분이라고 하였다. 그후 그는 근 5년동안 홀로 《ㅅ》시에 가서 교원생활을 했으며 이제는 제법 숙련된 교원으로 자라났었다.

결혼문제와 관련하여 이제는 부모가 있고 약혼녀가 있는 자기 지방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였다.

강변을 따라 달려가던 렬차가 어느덧 강물을 가로질러 철다리를 건느기 시작했다. 렬차바퀴소리가 귀에 거슬리게 시끄러워졌다.

렬차가 철다리를 다 건는뒤에야 성진의 생각은 다시 계속되였다.

《그쪽 학교에선 교원이고 여기 학교에선 교원이 아니더냐. 교원을 영영 그만두고 장가들란 말도 아닌데... 이번 가면 꼭 조동문제를 제기하고 돌아오도록 해라!》

아들을 타이르다가 끝내 대답을 받아내지 못한 어머니는 잊혀져 떠나는 아들의 짐을 꾸리면서 이런 나무람까지 했다. 누이동생 성숙이도 은실언니를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겠느냐고 하면서 야속한 마음을 터놓았다.

성진은 나무람하는 어머니와 누이동생 앞에서 그저 머리를 수그린채 묵묵히 앉아있었다.

그들의 심정을 몰라서도 아니였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것을 리해 못한것도 아니였다. 그리고 조동문제를 제기하면 조직에서도 해당한 조치를 취해 주리라는것도 알고있었다.

그렇지만 웬일인지 스스로 조동시켜달라는 말은 입밖에 내지 못할것 같았다.

학교를 졸업할 때 다졌던 결의가 량심을 꺼리게 했고 《ㄷ》 학교에서 보낸 5년동안에 사귀고 정들인 모든것들이 그의 발목을 붙잡는것이였다.

그러나 오늘 은실이앞에서만은 단호하게 결심을 내려 조동문제를 제기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간절한 소원이 비긴 은실이의 애뜻한 모습은 성진으로 하여금 더는 망설이고있을수 없게 하였다.

결심을 내리자 어느 정도 마음이 가벼워진듯싶었다. 하지만 성진은 인차 생각에서 깨어날수 없었다.

결심한 조동문제가 어느길을 거쳐 어떻게 락착이 되어 언제 집으로 돌아오게 될것인가를 두루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되는것이였다.

렬차는 성진의 생각을 싣고 험한 산길을 누비면서 달렸다.

## 2

은실이가 싸준 점심팩을 풀다 말고 성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맥주나 한병 들이키고 요기를 하자고 매대를 찾아떠났다.

객차를 두칸 지나 세번째 객차통로에 들어섰을 때였다. 《선생님!》 하는 소리에 그는 몸을 흠뻑하며 소리난쪽을 돌아보았다.

《김성진선생님!》

한 소녀가 반색을 하며 객차의 중간쯤에서 달려왔다.

《아-니, 리순영학생이 아니냐?》

소녀는 성진이 교편을 잡고있는 《ㅅ》 조선초중급학교 중급부 1학년생이였다.

성진은 소녀의 량손을 잡아준 다음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소녀는 렬차칸에서 뜻밖에 자기네 학교의 선생을 만나게 된 기쁨을 감출길없어 성진의 옷자락을 잡아흔들면서 반가와했다.

《어데 갔다오는 길이나?》

《예, 설인사하러 친척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랬구만. 그래, 잠깐 여기서 기다리거라...》

성진은 매대가 있는곳으로 가서 파즙을 두병 사가지고 왔다.

성진의 칸으로 자리를 옮긴 순영학생은 성진이가 권하는 파즙을 한모금 마셔보고는 옆에 놓여있는 소설책을 집어들었다.

《선생님, 이 소설이 재미있나요?》

《재미있구말구... 소설에 꽤 흥미를 가지고있는것 같구만.》

순영학생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듯 회색이 만면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읽은 소설의 제목들을 꼽아나갔다. 머리를 끄덕거리면서 듣고있는 성진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소녀가 꼽는 소설책들은 아직 13살 밖에 안되는 중급부 1학년생이 읽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내용이였기때문이다.

《선생님, 전 국어시간과 글짓기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어서 2학년생이 되여 선생님의 수업을 받고 싶습니다!》

순영학생의 당돌하면서도 령리해보이는 두눈에는 기대가 반짝거렸다.

성진은 중급부 2, 3학년의 국어와 글짓기수업을 담당하고있었다.

원래 얌전하고 온순한 성미로 알려진 성진이였으나 문학에 관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정가였다. 대학시절에는 《문학청년》으로 불리웠고 교원이 되어서는 《ㄷ》학교의 《말박사》라는 《청호》를 받고있었다. 교원들은 저마다 모르는 말이 나질 때면 사전을 찾기보다 성진을 먼저 찾았다.

그러므로 성진은 순영학생이 꼭 자기에게서 배우고싶다고 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것이였다. 하지만 성진은 교육자답게 학생을 타일렀다.

《학생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군. 동무를 가르치는 현신철선생님도 훌륭한 선생님이신데 그런 말을 해선 안되지.》

성진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두...》

순영학생은 성진의 나무람을 느끼고 머리를 수그린채 말끝을 얼버무렸다.

현신철은 《ㄷ》학교의 국어분과장이다. 나이는 성진보다 두살 우이고 대학시기의 선배이기도 했다. 그 역시 출신은 《ㄷ》시와 멀리 떨어진 《ㄸ》현이였다.

성진의 머리속에는 생활에 지친것 같은 현신철의 침울한 표정이 떠올랐다.

학생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심정도 어느 정도 리해되는듯싶었다. 제작년 가을에 장가를 든 이후로 현신철은 가끔 학교를 쉬는 날이 있었다. 지난봄 새학년도를 앞두고부터는 한사코 담임을 하지 않겠다고 우겼다. 요새는 찍하면 신경질을 부렸고 학교사업을 두고 교장에게 구구한 의견을 내놓곤했다. 성진은 현신철의 그러한 태도가 학생들에게도 불만을 야기시키고있다고 생각하였다.

성진은 어색해하는 학생의 기분을 가서주려고 할기면 어조로 말하였다.

《자, 우리 이야긴 그만하고 점심이나 같이 먹자!》

그는 일부러 코노래까지 부르며 창가에 붙은 반침대우에다 주먹밥과 반찬곽들을 풀어놓았다. 그리고는 순영학생에게 권했다.

《야!》

방금전까지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학생은 밥곽과 찬곽을 들여다보며 환성을 올리더니 성진이가 권한대로 받아들였다.

능금알같은 량볼이 볼록해지도록 주먹밥을 맛나게 먹는 순영학생을 성진은 기특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볼수록 천진하고 순박한 학생이였다. 성진은 웬일인지 마음이 피로와지는것을 느꼈다. 자기의 수업을 열심히 받고 희망을 자래우고싶다는 순영학생의 기대를 그는 풀어줄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는 조동을 제기하고 떠나야 할 몸이였다.

성진의 눈앞으로는 순영학생이 아니라 은실이의 동그스름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자 성진의 상냥한 얼굴로는 이름할수없는 가벼운 그늘이 스쳐지났다.

### 3

놀다란 언덕우에 솟은 《ㄷ》조선초중급학교는 저녁어스름에 잠겼다.

3층교사는 말할것 없고 그 원편에 있는 기숙사 2층건물의 창문들에도 불빛이 없었다. 다만 학교현관복도의 현관등과 교원실에서 켜진 불빛이 새어나올뿐이다. 방학간 학교의 저녁은 언제나 이렇듯 허전하고 적적한 감을 준다.

성진은 기숙사에 있는 자기방에 들리지 않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곧추 교원실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교원실에서는 일직으로 나와있던 오명숙교원이 석유난로곁에서 교수안을 짜고있었다.

《오명숙선생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아이, 김성진선생이 오셨군요! 그간 안녕하십니까!》

명숙은 반색을 하며 성진을 맞아들였다. 그리고는 책상우에 펼쳐놓은 자료들을 치워버리느라고 서둘렀다.

성진은 교원실안을 한바퀴 둘러보고 5년동안 내내 자기가 앉아있던 책상앞으로 갔다. 그는 들고있던 손질을 책상옆에 놓으며 의자에 앉았다. 그런뒤에 명숙한테서 방학동안의 안부들을 물었다.

아이가 달린 어머니교원인 명숙은 언제나 그러하듯 상냥한 목소리로 그동안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것저것 이야기했다. 그러던 명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침울해지고 얼굴에는 수심이 비졌다.

《...놀라지 마십시오. 현신철선생은 그만두었어요.》

《?!》

성진은 인차 말뜻을 알아차릴수 없어 빙뚱한 눈길로 명숙을 바라보았다. 그는 잠시 침묵이 흐른뒤에야 물었다.

《그러니까 교육사업을 아예 포기했단말입니까?》

명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덤덤히 앉아있던 성진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현신철의 책상이 있는곳으로 다가갔다.

책상우에는 언제나 놓여있던 《조선말사전》이며 수업자료, 교재들이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책상서랍을 하나씩 뽐아보았다. 거기에도 역시 있어야 할 물건들이 하나도 없었다.

마지막에 연 서랍에는 학생들이 현신철앞으로 써보낸 여라문장의 년하장이 널려있었다. 성진은 그것들을 집어들었다. 쓰지 않던 붓글씨로 삐뚤삐뚤하게 쓴 글발들이였으나 거기에서는 학생들의 진심

이 느껴졌다. 년하장을 켜 성진의 손이 저도모르게 떨리었다.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현선생! 어떻게 그럴수가...》

성진의 도드라진 이마에는 갑자기 굵은 주름이 잡히고 입술을 깨문 입가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이윽고 명숙이가 허연 김이 무럭무럭 나는 차찬을 들고 성진이결로 다가왔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글쎄요. 저도 자세한 이야기진 못들어봤어요. 뭘 집에 계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장사일을 보겠다는 이야기두 있구... 교장선생님이 설명절 죄는것도 집어치우고 <ㅅ>현에 있는 그의 집까지 찾아갔댔어요. 그렇지만 끝내...》

명숙은 말끝을 맺지 못했는데 그것은 생각이상으로 시무룩해져있는 성진의 표정때문이었다. 명숙은 성진을 위로하듯 말했다.

《하긴 담임이 아니던것이 천만다행이었지요. 이렇게 그만두자구 담임이랑 말지 않겠다고 미리부터 작정했던가봐요. 사람의 마음이란 정말 모르겠어요.》

방안은 썰렁했다.

침묵이 흘렀다.

성진은 어머니교원인 명숙을 들여보내고 자기가 대신 일직을 보기로 마음먹었다.

교원실에 혼자 남게 된 성진은 담배를 붙여 한모금 길게 빨았다. 상념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기의 몸을 쑥 빼버린 현신철의 행동을 두고 그는 실망하였다. 학생들의 수업을 마저 끝내지 못하고 학기도중에 떠나간 그 무책임성을 두고 노여움이 솟구쳤다. 물론 자기도 이제 조동을 제기해야 잘 처지이다.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비렬하게 비조직적으로 달아나지는 않을것이다. 조직적으로 제기해서 결론을 받고 또 자기 집이 있는교장으로 가는 경우도 교원은 계속할것이다. 교육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을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현신철에 대한 분격이 더욱 강렬해졌다.

그러나 한편 불안이 뒤따랐다. 현신철이가 교원을 그만두고 간것으로 하여 자기의 조동문제가 제기된다 해도 결론이 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위구심이 든것이었다.

《찌르릉... 찌르릉...》

전화종소리가 교원실의 고요한 정적과 함께 성진의 생각을 깨뜨렸다. 그는 무거운 동작으로 전화대로다가 가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십시오.》

《아니, 김성진선생이 아니요?》

수화기를 통해 교장의 웅글은 소리가 들려왔다.

《마침 잘됐소. 내 지금 현선생의 문제로 본부에 왔었는데 이제 곧 학교로 돌아가겠소. 현선생의 이야기를 못들었겠지... 뭐, 벌써 들었다구?》

《에... 그런데 교장선생님, 이제 오시려면 밤도 늦겠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니요. 래일이면 다른 교원들도 다 나오겠는데 그전에 내 김성진선생님과 의논해볼 문제가 있어서 그러오.》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저두 교장선생님에게 여쭙 말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있다가 만납시다.》

성진은 수화기를 놓으면서 차라리 잘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가 문제인것만큼 다른 교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동을 제기할수 있는 적당한 기회였다. 래일부터 교원들이 출근하게 되면 교장과 단둘이 마주 앉을 기회도 그에게 차례지기 어려울 것이었다.

교원실의 벽시계가 여덟점을 쳤을 때 밖에서 자동차소리가 났다. 창가에 다가가 밖을 내다보니 교장을 태운 택시가 현관앞에 와 멈춰섰다.

교장실에 들어가 교장과 마주앉은 성진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며칠사이에 교장의 웅모가 몰라보게 달라졌기때문이었다.

귀밑머리에 희끗희끗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으나 불깃불깃하게 혈색이 좋은 살갗이 언제나 나이보다 훨씬 젊어보이던 교장이었다.

그런데 단정하던 머리카락이 헝클어져있었고 얼굴은 살이 쑥 빠졌다. 눈도 한결 우묵해보였다. 여전한것은 정기를 내뿜는 두눈동자뿐이었다.

《현선생은 이제 <ㅅ>현본부에서 교양을 주기로 조치가 내려졌소. 적어도 교원을 했다는 사람이 조직과 영영 떨어진 장사군이 되게 해서는 안되지 않소. 꼭 애국적상공인이 되게끔 이끌어보겠다고 그쪽 본부에서도 연락이 왔소...》

그러니 우리는 그가 없는 조건에서 학교사업을 어떻게 보장할것인가를 생각하는게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는것이요.

난 이 기회에 김성진선생이 국어분과사업을 맡아 주었으면 하오.》

《...》

성진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는 교장의 기대어린 눈길앞에 고개를 푹 떨구었다.

자신이 없어서도 아니였고 부담이 되는 일을 피하자는 소극성때문도 아니였다. 남들이 다 인정하듯이 현신철은 명색이 분과장이였지만 성진이 자기가 그보다 수업시간도 곱절이나 더 맡았고 그것을 열성껏 수행해오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성진은 대답할수가 없었다. 교장의 심정은 이해되었지만 그 심정을 받아들일수가 없었다.

그는 자기가 분과장사업을 맡으면 조동문제가 어렵게 되리라는것을 알고있었다. 따라서 조동될바에는 자기가 맡기보다 다른 교원에게 맡겨 그를 키우는것이 학교적으로 볼 때 유익할것이였다.

《왜 대답이 없소. 난 능히 성진선생이 해낼수 있다고 보는데.》

교장은 채촉했으나 성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교장이 거듭 채촉했을 때에야 성진은 할수없이 더듬더듬 입을 열었다.

《전 아직… 그만한 그만한 실력도 없구… 경험도 어리구…》

《아니, 너무 겸손을 부리지 마오. 선생이야 실력도 있구 경험도 그만하면 괜찮는데…》

《그래두…》

성진은 서로의 관계가 거칠어지지 않게 억지웃음을 지어보이며 교장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거절하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정 그렇다면 할수 없지. 하지만 오늘 밤 잘 생각해보오. 김선생이 책임자가 돼서 그러오.》

교장은 서운해하는 기색을 보이며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까지 따라나온 성진은 교장의 모습이 교문 너머로 사라졌을 때 안도의 숨을 후-내쉬었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교원실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교장이 교원모임에서 현신철선생이 사직하게 된 경위와 그래서 딱하게 된 학교형편을 이야기한것이다.

교장은 교원들의 얼굴을 두루 살펴보며 헛기침을 하였다.

《본부에서 교원을 한명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현선생이 맡고있던 과목수업을 중단할수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선생들이 과목을 더 맡아가지고 수업을 계속하자는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해주시오. 여기 있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교장은 말끝을 맺고 자리에 앉았다.

교원실안은 조용했다.

말없이 앉아있는 교원들의 얼굴을 둘러보던 교장의 눈길은 성진에게 와서 멎었다. 그 눈길은 마치도 성진선생이 말할수 있지 않소 하고 묻는듯했다. 물론 성진은 현신철이 하던 1학년 국어와 글짓기는 대학 문학부를 나온 자기가 맡아야 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자기가 말아나섬으로써 다른 교원들에게 고무적임을 줄수 있다는것도 모르지 않았다. 아닌게아니라 다른 교원들의 기대어린 시선이 성진에게로 쏠리고있었다.

어제저녁 분과장사업을 거절한 일을 생각해서라도 이번만은 자기가 맡겠다고 교장에게 말해야 도리가 옳았다. 그러나 성진은 입을 봉하고 눈을 딱 감아버렸다. 기왕 분과장사업을 거절한 이상 공연히 새 과목을 맡아가지고 조동문제에 난관을 조성시킬 필요가 없었다.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었다.

성진은 이 순간이 극히 짧게도 생각되고 또 몇시간으로 길게도 느껴졌다. 숨이 자꾸만 막혀 제발 이 순간이 어서빨리 지나가기를 바랐다.

《저… 교장선생님!》

낮으나 좀 깔린 목소리가 교원실을 떠돌던 무거운 분위기를 밀어버렸다. 교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난쪽을 바라보았다.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선것은 남혁교원이었다.

《현선생이 하던 수업을 제가 맡아서 해볼가 합니다.》

제가 담임을 안하고있구. 수업도 적게 맡고있으니 괜찮을것 같습니다.》

교원실은 갑자기 술렁거렸다.

성진이도 놀라서 남혁을 바라보았다.

남혁은 지난해 9월, 학년도중에 이 학교에 부임해온 교원으로서 력사와 지리를 전공하고있었던것이다.

교장도 놀라운 시선으로 남혁을 지켜봤다.

《남혁선생이 전공도 아닌 국어와 글짓기를 꽤 해낼수 있겠소?》

《예, 이 학교에 오기전에 스스로 공부를 해서 수업을 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작은 키에 참나무토막처럼 굳건한 인상을 주는 남혁의 얼굴에는 단호한 결심의 빛이 어렸다.

교장은 기쁨을 금치 못해 부르짖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소.》

다른 교원들도 술렁거리며 남혁에게 말없는 찬사를 보냈다.

성진은 어깨가 폭 처지도록 긴숨을 쉬었다. 웬일인지 줄지에 서글퍼지는 심정을 어찌할수가 없었던것이다.

## 4

제3학기수업식을 래일로 앞둔 저녁무렵이었다.

성진은 방학기간을 집에서 지내고 학교에 돌아온 기숙생들의 짐도 풀어주고 호실도 정돈해주고있었다.

《김성진선생님-! 남혁선생님이 찾으십니다.》

《응, 알겠다.》

운동장에서 막 교아대는 학생에게 성진은 안에서 대답했다. 그는 기숙사호실을 한번 쪽 돌아보고나서 교원실로 갔다.

교원들이 다 퇴근해버린 한적한 방에 혼자 남아있던 남혁은 책상머리에 앉아 교수안을 이리저리 훑어보고있었다.

성진을 보자 남혁은 반색을 하며 손에 들고있던 교수안을 내놓았다.

《아니?... 이걸!》

그것은 한주일동안에 진행할 중급부 1학년 국어와 글짓기 과목의 교수안이었다.

《체대로 잘되었는지... 김선생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 그러합니다.》

성진이보다 나이 썩 우인 남혁은 빙그레 미소를 짓고 말했다. 그 미소에는 진심으로 조언을 바라는 기대가 어려있었다. 남혁의 진심에 어쩔수 없어 성진은 교수안을 훑어보았다.

교수안은 탄복을 금할수 없으리만큼 잘되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알기 쉽게 해설도 덧붙여졌다.

성진은 교수안을 권채 한동안 남혁의 얼굴을 바라봤다. 남혁은 마치도 교원앞에 선 학생이 된듯 어쭙은 미소를 띠고 눈길을 떨구었다.

《이전에 국어수업을 좀 해보았다고는 하지만 김 선생님의 눈으로 볼 때는 결함이 많을것입니다. 기탄 없이 말해주시오.》

성진은 대답을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수가 없었다.

그는 속으로 흥분하고있었다. 조언보다도 성진이 자기가 따라배워야 할 대목들이 있었다.

성진은 어휘를 취급할 때도 시간에 쪼들린 나머지 비슷한 말과 반대말을 레로 올릴뿐이었다. 그런데 남혁의 교수안에는 하나의 어휘를 두고도 그저 평면적으로 다른 레와 대비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갔다. 그 어휘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인민들속에 쓰이게 되었는가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적혀있었다. 다만 깊이 전개된 이 모든 내용들을 4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다 전달할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을뿐이었다.

성진의 솔직한 의견을 듣자 남혁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성진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성진선생, 고맙습니다. 이제 한시간만 나에게 더 시간을 내어줄수 없겠소?》

《?!》

《내가 모의수업을 해볼테니 참관해주었으면 해서 그러합니다.》

《그러시다!》

성진은 감동되어 선뜻 응해나섰다.

남혁은 교수안과 교구들을 가지고 교실로 향했다. 기록장을 손에 쥐고 그의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성진은 생각했다.

(내가 사람을 잘못 알고있었구나...)

작년 가을, 산전휴가에 들어간 녀교원을 대신하여 이 학교에 온 남혁을 성진은 그저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성미를 지닌 사람으로만 알고있었다. 성진은 활달하고 유쾌한것을 좋아했다. 그리하여 성진은 자기의 성미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사임상 오가는 말만 하고서 정을 나누어본적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에 보는 남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스스로 어려운 일을 도맡아나서고 그것을 군소리없이 성실하게 해낼뿐아니라 마음 또한 어질고 뜨거웠다.

그날밤, 그들이 있는 교실창문에는 오래도록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그후부터 남혁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주 성진을 만나 의논하곤했다. 그것은 국어수업이 아니면 글짓기와 관련된것이였다.

어느날 남혁은 학생이 지은 작품을 성진앞에 내놓았다.

《아무리 내가 애써본댔자 성진선생이 한번 보고 지도해주는것만 못할거요. 또한번 성진선생의 수고를 끼칩시다.》

작문은 언제인가 열차간에서 만났던, 어서빨리 2학년생이 되어 성진의 수업을 받고싶다던 리순영학생이 지은것이였다.

전국학생문예작품현상모집을 앞두고 학생들속에 글짓기가 한창 절정에 이르고있었는지라 성진은 남혁의 부탁에 쾌히 응해나섰다. 그리고 부탁하는 남혁은 물론 자기에게 수업을 받고싶다던 순영학생의 기대에도 어긋나지 않게 솜씨를 보이리라고 마음먹었다.

## 5

《김성진선생... 김성진선생!》

자기 방에서 나온 교장은 흥분된 어조로 성진을 불렀다.

교원실에서 수업준비를 하고있던 교원들은 어리둥절해서 교장을 바라보았다. 교장은 직관물을 만들다가 엉겨주춤 서있는 성진을 알아보자 환한 웃음을 머금고 켄걸음으로 다가왔다.

《축하하오!》

교장은 성진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하던 일을 중단한 교원들의 시선은 교장의 축하를 받고있는 성진에게로 쏠렸다.

《방금 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리순영학생이 지은 글이 현상모집에서 입선했다오!》

《야!》 교원들은 일제히 환성을 올리며 반가와했다. 그들은 저마다 축하의 말을 건니며 성진에게 악수를 청하였다. 교장은 물론 교원들은 리순영학생의 수업담당은 남혁이지만 성진이가 지도완성하여 올려보냈던 작품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누구보다도 축하가 열렬한것은 남혁이였다.

성진은 여기저기서 내미는 손을 잡으며 축하를 받았다. 어딘가 모르게 계면쩍은 생각이 들었으나 가슴은 마냥 설레였다.

《이제 며칠안으로 <조선신보>지상에 작품이 발표될것ियो!》



교장은 흥분된 심정을 누를길 없어 모여선 교원들을 향해 또한번 말하였다.

교원들은 또다시 환성을 올렸다. 그들의 환성은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리순영학생의 영에는 곧 《ㄷ》학교의 영예였다. 이제 그 사실이 신문에 나오면 《ㄷ》학교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질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일본학교에 보내고있는 이 지역의 동포들에게 영향을 주는데도 좋은 작용을 할수 있는것이였다.

교장과 교원들의 축하를 한몸에 받아안은 성진의 가슴속에서도 점차 억제할수 없는 기쁨이 솟구쳐 올랐다. 작품이 발표된 신문을 높이 들고 정충정충 뛰여오는 순영학생의 모습조차 눈앞에 그려졌다.

그날밤 성진은 자리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현신철이 남기고 간 분과장사업을 거절하고 그의 수업도 말아나서지 못한 일을 두고 불안한 마음을 가슴 한구석에 간직해온 성진이었다. 그때문에 조동문제도 제기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초조해하던 성진이었다.

이제는 그 시름이 다 풀린듯싶었다. 자기가 노력한 보람이 있어 무엇인가 학교에 대한 의리를 갚았다는 만족감조차 느껴졌다.

그는 작품이 신문에 발표되면 자기에 대한 인상이 좋아진 그 기회에 교장을 찾아가 기어이 조동문제를 제기하리라고 마음먹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1등이 없는 2등으로 당선된 순영학생의 글이 《조선신보》 4면에 크게 실리였다.

그 신문이 도착한 순간부터 학교는 법석 들끓었다. 신문을 가지고간 교실마다에서 환성이 터졌다. 신문을 읽어보지 못한 초급부의 나 어린 학생들까지도 때를 지어 신문을 가진 교원의 뒤를 조롱조롱 따라다녔다.

이날 성진은 또한번 교원들의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받았다.

그는 흡족한 기분으로 교원실에서 신문을 펼쳐들었다. 《우리 집의 설명절》이라는 큼직한 제목이 첫눈에 안겨왔다. 제목의 아래단에 학교와 학생의 이름이 찍혔다.

성진은 글의 내용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면서 그는 교장에게 제기할 자기의 조동문제를 생각했다.

혹시 이런 때 제기하는것이 더 불리하지는 않을까. 그러나 다음순간 성진은 자기의 나약성을 타일렀다. 더는 질질 끌고만 있을수 없다. 불리하건 유리하건 학년말은 가까와오는데 이번 기회에 제기해 버리고 말자...

결심이 내려지자 성진은 교장과 조용히 만날 기회를 기다렸다. 수업을 하면서도 성진은 그 생각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오후 첫수업을 끝내고 교원실로 오던 성진은 복도에서 학교를 들쭉하게 만든 당사자인 리순영학생을 만났다. 순영학생은 성진을 보자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순영학생, 축하하오.》

그러나 성진의 손을 잡는 학생의 손에는 기운이 없었다.

어인 일인가? 성진은 의아한 눈길로 순영학생의 얼굴을 살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그의 표정에는 그들이 비졌다.

《웬일이요? 어디가 아픈가?》

《아닙니다.》

순영학생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그럼 왜 그러나? 기색이 좋지 않는데...》

성진은 정말 알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기뻐할뿐아니라 자기의 작품을 입선시켜준 성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할 순영학생이 아닌가? 그런데...

순영학생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전 축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쓴 글이 아닙니다. 제손으로 쓴 글이 입선된 때에 선생님의 축하를 받겠습니다.》

그런뒤에 순영학생은 성진에게 또한번 고개를 숙여보이고 가버렸다.

성진은 머리가 뻥해서 사라져가는 소녀의 뒤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이날은 성진에게 좋지 못한 날이었다. 그것은 교장과 조용히 만날 기회를 얻지 못했기때문만이 아니였다. 순영학생에게서 받은 면박이 참을수 없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어린 소녀한테서 교원인 자기가 그런 면박을 당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돌이켜보면 무엇인가 자기에게도 잘못이 있기는 있다. 남혁에게서 순영학생의 작품을 넘겨받았을 때 밤을 새우며 자기 손으로 가필했다. 그런뒤에 그냥 올려보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렇게 맹랑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기분이 언짢고 가슴이 울적했다.

다른 교원들이 퇴근한 뒤에도 울적한 기분은 가셔지지 않았다.

《성진선생!》

교원실에 남아있던 그를 부른것은 남혁이었다.

《성진선생, 오늘은 일찍 사업을 마쳤는데 나하구 가정방문이나 함께 가지 않겠소?》

성진은 패히 응해나섰다. 남혁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울적한 기분을 가라앉히고싶었다.

그들은 국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어느 정류소에서 내렸다. 시내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XX산밑이였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였다.

거리는 비교적 한적했다.

앞서 걷던 남혁은 어느 한 집뜰안에 들어섰다.

《계십니까!》

남혁은 익숙된 동작으로 현관문을 열더니 집안으로 들어갔다.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짙은 발걸음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현관앞에 한 소녀가 나타났다. 그순간 성진은 자기눈을 의심하며 몸을 흠칫했다. 뜻밖에도 소녀는 낮에 그처럼 자기에게 무안을 준 리순영학생이었다.

(남혁이 무슨 의도가 있어 나를 여기로 데려온 것인가. 내가 무안을 당한 사실을 알고있는가? 아니면 우연인가!)

성진은 어리둥절해서 잠시 몸돌바를 물렸다.

《아이, 선생님들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소녀는 반가와서 발을 동동 굴렀다. 낮에 그처럼 시무룩해있던 순영이답지 않게 목소리가 맑고 얼굴이 명랑했다.

남혁은 어정쩡해 서있는 성진에게 턱짓으로 어서 올라가자고 채촉했다.

두선생을 방으로 안내한 순영학생은 차를 끓이겠다고 급히 부엌으로 내려갔다.

방 한가운데 놓인 전열기앞에 쪼그리고 앉은 성진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았다. 그는 자기의 몸가짐과 눈길의 몹시 기계적임을 느꼈다.

벽에 나무판을 대고 만든 책장에는 언젠가 순영이가 읽었다고 내리쬐던 소설책들이 주렁이 꽂혀있었다.

순영은 잠시사이에 끓인 차와 꿀을 수북이 담은 바구니가 놓인 쟁반을 조심스럽게 들고 들어왔다. 그는 선생님들에게 차와 꿀을 권하고는 무엇을 또 준비하려는지 다시 부엌으로 내려갔다. 순영의 행동은 제법 의젓하고 어른스러웠다.

남혁은 소녀를 불러세웠다.

《순영학생, 우린 일없다, 자, 어서 여기 와 앉거라...》

순영학생은 반가운 빛이 담뿍 어린 량볼을 살짝 붉히며 그들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부모님은 어데 나가셨나?》

《일터에서 아직 안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순영학생이 집을 지키고있었구만. 동생들이랑 저녁은 했나?》

《방금전에 제가 해먹었습니다.》

순영학생의 표정에는 제가 어머니의 일손을 잘 돕고있다는 자랑이 어려있었다. 그의 모습은 보는 사람의 마음에 대견함을 자아냈다. 그러나 성진은 낮에 있는 일로 하여 소녀를 똑바로 바라볼수 없었다. 이상스럽게도 어색한 생각이 자꾸만 그의 시선을 부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선생님, 차가 식겠습니다.》

순영학생은 여전히 반기는 미소를 띠고 성진이 앞으로 차잔을 가까이 밀어놓았다.

(어린 소녀한테 한फल 단단히 먹는다!)

성진은 자기의 어색한 마음을 능치려고 입을 열었다.

《순영학생은 책부자구만. 그래, 지금은 무슨 책을 읽고있나?》

순영은 수줍음과 기쁨이 어린 얼굴로 일어서더니 책장 옷단의 맨 옆에 꽂힌 책을 뽑아다 성진이앞에 놓았다.

《! !》

책은 렬차간에서 이 학생과 만났을 때 성진이 읽던 그 소설이었다.

성진은 보풀이 일기 시작한 두툼한 책을 몇장 번져보았다. 맨 뒤장을 펼친 성진은 인차 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 《남혁》이라는 서명이 씌여져있었던것이다.

령리한 소녀는 성진의 시선에서 그의 질문을 느껴본듯 묻지도 않는 대답을 했다.

《두주일전에 남혁선생님이 읽으라고 빌려주신것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순영학생은 소설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야기하는 소녀의 눈빛은 별처럼 빛났고 보동보동한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고있었다.

《선생님, 전 앞으로 꼭 조선대학교 문학부에서 배우겠습니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소설도 많이 읽구 글도 많이 쓰구 열심히 배워야 하지요?...》

《물론!》

남혁의 공감을 받은 순영학생은 진작 문학부학생이 되기라도 한듯 기뻐했다.

소녀의 꿈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부터 자신을 준비하고있는 착실한 열정을 두고 성진은 속으로 탄복했다.

그의 감동은 리순영학생의 집에서 나온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디디며 말했다.

《순영학생의 리상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난 얼마전까지도 그 학생의 리상을 모르고있었습니다. 과목담임이라는게 그것도 모르고있었으니 뭘 변변히 가르쳤겠습니까. ... 아이들을 옹게 가르치려면 아이들을 잘 알아야 한다구 말은 하구 늘 관심을 돌린다구 하는데두 이렇게 종종 틈이 생기곤하지요. 하긴 아이들이라구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깊이 알아낸다는것은 쉬운일이 아니지요.》

남혁은 마치 자기비판이라도 하듯 깊은 자책에 잠겨 말했다.

그러나 성진은 남혁의 목소리가 자책으로만 들리지 않았다. 자책속에서 간파할수 없는 그 어떤 예리한것이 성진이를 아프게 자극하는것이였다. 비로소

그는 남혁이가 자기를 데리고 리순영학생네 집으로 가정방문을 온 까닭도 리해된듯싶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순영학생의 항변을 남혁 선생은 알고있었는가! 순영학생의 항변이 정당하다는것을 리해시키려고 날 데리고 가정방문을 온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자 성진은 철퇴에 뒤통수를 얻어 맞은듯 머리가 땡했다.

그는 앞에서 걷는 남혁을 바라보았다. 자기 전공이 아닌 국어와 글짓기까지 말아나선 남혁, 아이들을 잘 알면서도 틈이 많다고 자책하는 남혁, 교원으로서 성진이 자기가 잘못된것을 알면서도 말없이 행동으로 깨우쳐주고있는 남혁... 성진은 이밤처럼 남혁이가 뜨겁고 미덥고 웅심깊게 생각되어본적은 없었다.

《성진선생, 뭘 그렇게 생각하오?》

남혁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성진은 자기가 고개를 푹 숙인채 뒤떨어져 걷고있다는것을 느꼈다.

성진이가 따라오자 남혁은 말했다.

《성진선생, 이제는 밤도 깊었는데 혼자 사는 쓸쓸한 기숙방에 가서는 뭘 하겠소. 저기 저 언덕을 돌아가면 내 집이 있소.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쉬고 래일 같이 학교로 나갑시다.》

성진은 웬일인지 남혁의 정을 거절하고싶지 않았다. 그는 남혁에게 끌리어 배스를 타고 그의 집으로 갔다.

집에는 남혁의 어머니만이 있었다.

늙은 어머니는 아들과 한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성진을 친절하고 살뜰하게 맞아주었다.

《어서 난로옆에 앉아 차랑 마시며 몸들을 녹이게. 내 얼른 저녁을 지을게...》

다정한 늙은 어머니는 부랴부랴 부엌으로 내려갔다.

난로곁으로 간 성진은 사모님과 아이들은 다 어디 갔느냐고 물었다.

《아, 아버지 있는데로 갔겠지. 오늘은 거기서 쉬고 올거요.》

《아버님께서서는 어데 계십니까?》

《의대병원에 입원하고있소. 벌써 반년이 지났는걸... 가끔 손자를 보고싶어 병원에 부를 때가 있지. 그러니 오늘은 사양하지 말고 마음 편히 나와 함께 지냅시다.》

남혁의 어머니가 소박하나 진심으로 차려준 저녁을 먹은 성진은 마치도 자기집에 와있는듯 단란함을 느꼈다.

그날밤 성진은 남혁이 자기곁에 퍼주는 이불을 덮고 누웠으나 잠들지 못했다. 왜 그런지 잠이 오지 않았다. 남혁도 자지 못하는듯했다.

《왜 자지 않소?》

남혁이 먼저 물었다.

《잠이 오지 않은군요. 남혁선생도 자지 못하는것 같은데 이야기나 좀 합시다.》

그들은 자리에 누워서 이야기로 밤을 새웠다.

## 6

어느덧 3월도 중순에 접어들었다.

학교에서는 학년말시험이 한창이었다. 이제 시험이 끝나면 졸업식이 있고 재학생들은 한학년씩 진급을 한다. 교원들에게는 년중 제일 바쁜 철이었다.

성진은 학생들의 답안지를 책상우에 무득이 쌓아놓고 채점에 여념이 없었다.

《성진선생!》

눈길을 드니 오명숙교원이 의미있는 미소를 띠고 앞에 와 서있었다. 오명숙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는 성진이 앞에 봉투 한장을 내놓았다.

《편지가 왔어요.》

《편지요?!》

오명숙은 또한번 의미있는 미소를 던지고 가버렸다.

편지는 은실한테서 온것이였다. 성진은 편지봉투를 접어서 안주머니에 넣고 다시 채점을 계속했다. 그런데 채점이 잘되지 않았다, 웬일인지 마음이 자꾸만 불안해지며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것이였다.

편지는 보나마나 조동에 대한 은실이의 독촉일것이다. 은실이는 열흘이 멀다하게 편지를 보내오곤 했는데 날이 감에 따라 조동에 대한 독촉이 로골적으로 강렬해지고있었다. 그리하여 편지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피로와지군하는 성진이었다.

성진은 그날저녁 지기의 기숙방에 돌아와서야 은실이의 편지를 품속에서 꺼냈다.

《그리운 성진동무, 안녕하세요...》

언제나 편지 첫머리에 쓰군하는 은실이의 문안이다. 문안의 마디마디에는 은실이의 따뜻하고 살뜰하고 다정한 애무가 스며있었다. 그리하여 성진은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이면 언제나 은실이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 차오르곤했다.

성진이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은실이는 문안을 쓰기바쁘게 성진이의 조동문제를 꺼내놓았다.

《성진동무! 세월이 자꾸만 가는데 이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될것 같아요. 저도 좀 힘을 써봐야겠어요. 용서하세요.》

래일 제가 본부에 있는 우리 아저씨를 찾아가겠어요. 저를 청년학교강사로 키워준 아저씨는 저의 부탁을 들어주실거예요.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성진동무가 돌아올수 있도록 노력하겠어요...》

성진은 편지를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표현은 부드러웠지만 편지에는 은실이의 단호하고 맵짠 그 무엇이 숨어있었다. 그것은 또한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질질 끌고있는 성진에 대한 은실이의 강렬한

항의이기도 했다. 기회를 얻지 못해 아직 조동문제를 제기조차 못하고있다는 회답만을 받기가 답답하여 그가 직접 나선것이다.

(에라 모르겠다. 한방방이 얻어맞기는 했어도 차라리 잘됐다. 내가 직접 말하기보다는 본부의 힘을 빌리는것이 훨씬 낫겠지...)

성진은 그날밤중으로 은실이의 결심을 지지하는 회답을 썼다. 자세한 이야기는 봄방학때 집에 가서 해주겠다는 변명 비슷한 설명도 회답에 첨부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ㄷ》 학교는 봄방학에 들어섰다.

그때까지 교장도 본부에서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하긴 그 일이 그렇게 빨리 추진될수는 없는것이다.

성진은 은실이가 있고 부모가 있는 집으로 가려고 기숙방에서 손집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진은 떠나지 못했다.

갑자기 주변이 술렁거리 나가보니 남혁선생의 부친이 사망했다는것이였다.

성진은 것처럼 신뢰하는 같은 학교의 교원이며 또 자기에 대하여 각별히 대해주는 남혁이 당한 슬픔을 외면하고 돌아갈수가 없었다.

학교빠스가 30분후에 남혁의 집으로 떠난다는 말을 듣고 그는 입었던 옷을 벗고 검은 양복을 입었다. 집에 가려고 꾸리던 손집도 그냥 팽개쳐둔채 속옷과 세면도구만을 가방안에 집어넣었다.

학교빠스는 《ㄷ》 학교의 교원들을 태우고 불행을 당한 남혁의 집에 도착했다.

남혁의 아버지 남준의 장의는 《○○현본부위원장》으로 성대하게 차려졌다. 총련의 각급 기관들과 개별적인사람들이 보낸 화환들이 주련이 놓인 가운데 고인의 판이 안치되였다. 그앞에서 남혁이네 일가들이 조문하러 온 손님들과 애도의 인사를 받았다.

장의식이 진행되는 절간어구에는 천막을 치고 립시로 접수실을 꾸려놓았다. 성진은 그안에서 찾아오는 조객들의 이름을 정리하였다. 그도 고인을 추모하여 팔에 검은 띠를 두르고있었다.

찾아오는 조객들은 끝이 없는듯싶었다. 혹카이도에서 왔다는 늙은이도 있고 규슈에서 온 아낙네가 있는가 하면 시고꾸의 젊은이도 있었다. 조선도 일본땅 방방곡곡의 기관들- 총련본부를 비롯하여 지방단체와 사업체, 각급 학교들에서 수많은 보내왔다.

성진은 조객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조전들을 접수하면서 고인인 남혁의 아버지가 생전에 이처럼 많은 벗들을 가지고있었으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고인의 영결식은 이튿날 정각 12시에 진행되였다.

영결식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모두 엄숙한 기분에 잠겨 서있었다. 성진이도 옷깃을 여미고 맨 뒤줄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본부위원장이 고인의 경력을 소개하였다.

...일제시기 지긋지긋한 《강제련행》에 의하여 일본에 끌려온 고인은 혹카이도의 탄광에서 해방을 맞이했다. 고향에 돌아갈 일념으로 죽을 고생을 겪으면서 시모노세끼까지 이르렀으나 조국의 남쪽땅이 미제의 식민지로 되였다는 비참한 소식을 듣자 그는 귀향을 단념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길로 규슈의 탄광마을을 찾아간 그는 조선말강습소가 생기자 술선 교원으로 나섰다. 거기서 가정도 꾸렸으며 그때 태어난 첫째가 남혁이였다.

미제의 부추김으로 되살아난 일본반동들이 《조선학교폐쇄령》을 내려 탄압을 가했을 때 끝까지 맞서 싸운 그는 죄아닌 《죄》로 경찰에 잡혀갔다. 경찰서에서 나오자 조국은 미제가 일으킨 전쟁의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었다. 조국에 전쟁의 불을 지른 미제의 군사기지반대투쟁을 과감히 벌린 그는 다시 경찰에 붙잡혀 이번에는 징역형을 받았다. 그가 감옥에서 나온것은 전쟁이 승리한 다음해 여름이였다.

그는 그길로 오사카에 갔다.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안해는 외아들인 남혁을 먹여살리기 위해 조선사람들이 모여사는 오사카로 가서 샅일을 하며 겨우 살아가고있었던것이다.

오사카에 거처를 정한 남혁의 부친은 품팔이로동생활을 하는 한편 총련결성을 위한 준비사업에 헌신분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총련이 결성되자 그는 초창기부터 전임활동가가 되어 사업하였다.

총련조직을 확대할 임무를 받은 그는 동포들이 사는 처시에 내려가 총련지부를 내오고 지부위원장으로 사업하였다.

《○》 조선초중급학교를 새로 철근교사로 개축할 때 그는 그 학교의 교육회장사업을 맡아나섰다.

10년전 ○○현본부일군이 되어 이곳에 이사해온 그는 2년전부터 간염을 앓아 병석에 누웠다가 애석하게도 우리의 곁을 떠나갔다.

예순일곱살의 짧은 일생이었으나 생전에 그가 한 일들을 감탄없이 들을수 없었다. 그에게 벗들이 많은것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차지한것도 그때 문인듯싶었다.

식장의 여기저기서 녀인들의 흐느낌소리가 났다. 성진은 승엄해지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면에 걸린 고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언제인가 남혁에게 어디서 살았느냐고 물었던 일이 회상되였다. 그때 남혁은 초급부는 오사카에서 나오고 중급부는 《ㄷ》 시에서, 고급부는

《교》사에서 나왔다고 대답하였다. 그 말이 지금에 와서야 리해되었다.

아버지의 활동로정을 따라 그 길을 걸어온 남혁이었다. 그에게는 자기 지방이 따로 없었다. 있다면 조직의 요구를 받들고 아버지가 가있는곳이 그에게는 곧 《자기 지방》이었다.

성진은 고인이 그저 남혁의 부친으로만 생각되지 않았다. 총련의 활동가, 혁명가였다는 새삼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의 생애야말로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충성의 한길을 걸어온 빛나는 인생이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몸바쳐 싸워온 혁명가의 삶이었다.

커다란 충격을 받아안은 성진은 영결식이 끝난날 밤 남혁이와 단둘이 거닐게 되었을 때 그에게 말했다.

《남혁선생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분이시였습니다.》

탄복하는 성진에게 남혁은 겸손하게 대꾸했다.

《조선사람으로 자기 본분을 지키려고 했을뿐이지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은덕에 다 보답하지 못하고 갑니다.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이제 내가 해야지요. 그래서 난 아버지의 령구앞에서 마음속으로 결심했지요. 나도 아버지처럼 총련조직이 요구하는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한몸바쳐 싸우겠다고말입니다.》

(그 아버지여 그 아들이라.)

성진은 남혁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부르짖었다.

이미 고인의 생애에서 충격을 받았던 그는 남혁에게 받은 충격 또한 큰것이였다. 충격은 하도 큰것이어서 머리가 핑 돌며 거센 섬광이 번뜩이는듯했다.

(그런 인생, 그런 삶을 누리자고 대학때 진로문제를 그렇듯 열렬히 부르짖었고 그 결의를 지키자고 이 학교에 왔던 내가 아닌가!)

성진은 견딜수 없는 자책감에 고개를 푹 숙였다. 이런 자책을 느껴보기는 그의 생애에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듯싶었다.

## 7

눈깜박할사이에 새학년도가 다가왔다. 교원들은 입학식준비사업에 바빴다.

성진은 교원실에서 새로 맡게 될 학급 학생들의 료해서철을 한장씩 번져가면서 사색에 잠겼다.

남혁의 부친 장례식에 다녀온 뒤부터 성진은 자주 생각에 잠기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면 곧 머리가 무거워지곤했다.

성진은 이번 방학휴가기간에 집에 가지 못했다. 시간적으로 갈 겨를이 없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남혁의 집에서 이틀동안이나 더 묵고 돌아오니

휴가기간이 다 날아갔다. 하지만 지금까지 집에 가지 못하게 된 소식을 은실에게 보내지 못했다.

면목없이 된 자기를 변명하기 위한 구실로 은실이 인정할수 있다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소식을 전할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그때문에 자주 생각에 잠기며 머리가 무거워지는것은 아니였다.

장례식에 가서 충격을 받은 뒤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무시로 그를 덮치곤했다. 날이 감에 따라 그것은 더욱 강렬해지고있었다.

그는 본부의 지시를 받은 교장이 자기를 찾는것만 같아 겁이 났다. 하루에도 몇번씩 그런 불안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교장의 입을 통해 자기가 속으로 조동문제를 생각하고있으며 마침내는 약혼녀를 내세워 본부의 도움까지 받아 내려먹였다는 사실이 폭로될 그것이 두려웠다. 그순간의 자기를 상상해보기조차 무서웠다.

남혁이나 교원들이 성진이 자기를 뭐라고 하겠는가.

현신철분과장이 갔을 때 성진은 진심으로 격분을 금치 못하며 그를 비겁하다고 원망했다. 조국의 아들답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가더라도 조직적인 승인을 받아가지고 갈것이며 가서도 교원을 계속할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기만하고 변명하기 위한 위안에 지나지 않았다.

승인을 받건, 교원을 계속하건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을 내세운다는 의미에서는 현신철이나 성진이 자기나 매한가지였다. 비겁한 인간으로 원망과 비난의 대상이 될 그 일이 생각만해도 끔찍스러웠다.

그렇다고 은실에게 자기는 조동될수 없다는것, 본부아저씨한테 도움을 받는 일을 취소하라는 편지를 보낼수도 없었다. 시간적으로 늦었고 조동문제가 해결되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있는 은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보낼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편지 한장으로써는 은실이를 리해시킬수가 없으며 약혼녀앞에 자기 입으로 한 첫 약속을 어긴다는것이 사나이로서 어느 정도의 수치인가도 알고있었다.

막다른 지경에 이른 이 문제가 어느 길을 거쳐 어떻게 풀릴것인가, 내가 만약 이곳에 계속 머물러있으면 은실이와의 결혼문제는 어떻게 하나?...

성진은 줄곧 이런 생각에 잠겨 머리가 무거웠다. 새학년도준비를 하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기숙방의 이불속에서도 노상 그 생각이 따라다니며 성진을 괴롭혔다.

성진은 새로 말을 학급의 교실을 청소하고있는데 누군가가 성진이를 면회하러 왔다고 알려주었다.

성진이는 웬일인지 가슴부터 섬찝했다. 학부형일까? 아니면...

까닭모를 불안을 느끼며 성진은 운동장 한복판을 걸어나갔다.

교문접수실 가까이에서 이르렀을 때다. 접수실문이 열리며 몸매 날씬한 처녀가 달려나왔다.

성진은 마침내 말뚝처럼 굳어졌다. 처녀는 것처럼 그림던, 그러면서도 두려움을 자아내던 약혼녀 은실이였다.

반갑게 다가오던 은실이라도 굳어져서 고개를 숙이였다. 은실이의 아름다운 얼굴과 귀뿌리는 발갛게 상기되고있었다.

(왔구나! 가지 않으니 기다리다 지쳐서 직접 왔구나. 본부아저씨의 편지를 가지고 자기가 교장을 직접 만나러 온것인가? 아, 내가 왜 머저리처럼 이렇게 그냥 서있는가.)

성진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은실이에게 따라오라는 눈짓을 보내고 교문밖으로 황급히 걸어나갔다.

그는 교장과 학교 교원들이 자기와 은실이를, 그리고 자기와 은실이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굽어보고 있는것만 같아서 겁이 났다. 다행히도 눈치빠른 은실이 인차 자기를 따라나와준 덕분에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성진은 학교앞의 언덕길을 내려 강둑길을 걸었다. 뒤따라오는 은실이의 가쁜 숨소리가 성진의 가슴속으로 파고들며 복잡한 생각을 일으켰다.

성진은 낡은 의지가 놓여있는 버드나무아래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으스스한 곳이었다.

《그래, 어떻게 왔소?》

성진은 복잡한 마음을 숨기고 반가운 태를 보이려고 애썼으나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좀 거칠어졌다.

그 거친 목소리에 기가 질렸는지 아니면 성진의 마음속을 느껴보고 찾아온 죄책감에 사로잡혀서인지 은실이는 고개를 숙인채 대답을 못했다.

성진은 공연히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후회하며 말했다.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겠소.》

말을 해놓고보니 이번에도 어색하기 그지없었다.

은실은 빨갛게 익은 얼굴을 쳐들지 못하고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저... 편지를 가지고왔어요.》

성진은 드디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토록 오지 말기를 바랬던 일이 마침내 현실로 닥쳐온것이였다.

그는 은실이의 내민 봉투를 받지 못하고 초점없는 눈길로 은실이의 얼굴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그렇게 있을수만 없었다. 성진은 기계적으로 봉투를 받아들고 정신없이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교장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오는 편지였다.

성진은 서둘러 귀퉁이를 찢고 속지를 꺼내펼쳤다.

거기에는 은실이의 그 지역의 청년학교강사로 파견돼가는데 수속이 끝날 때까지 잘 도와주라는 본부아저씨의 부탁이 적혀있었다.

성진은 얼떨떨하여 은실이를 바라봤다. 은실은 여전히 고개를 떨군채 서있었다. 빨갛게 상기된 얼굴에는 그 어떤 불만이나 노여움이 아니라 크나큰 자책이 어려있었다.

성진은 자기가 꿈속에 있는듯싶었다. 그러나 분명 꿈은 아니고 현실이였다.

은실이는 기여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본부에서 보내는 저의 파견장이 이제는 여기 지부에 와있을거예요...》

저때문에 정말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전 본부아저씨의 타이름을 듣고서야 저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것이었던가를 깨달았어요. 성진동무를 잘 도울대신 오히려 성진동무를 그른 길로 추동했어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성진동무가 가는곳이면 어데든지 따라가서 저두 전임일군으로 일하면서 성진동무를 힘껏 돕겠어요.》

은실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곱에 맺힌 이슬방울을 훔쳤다.

성진은 은실이를 뜨겁게 포옹해주고싶은 걱정을 억제하며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은실이, 고맙소! 잘못을 빌어야 할 사람은 은실이 아니라 나요. 은실이, 용서해주요...》

성진은 운동장이나 교원실이 아니라 이런 으스스한 곳으로 은실이를 데리고 온 자신을 후회했다. 그는 사람들앞에 자기의 약혼녀를 내세워 자랑하고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곳에서 하던 청년학교사업은 어떻게 하고왔소?》

《성숙은 제가 말했다고 본부아저씨한테 다짐을 받아냈지요.》

은실의 목소리는 한결 밝고 명랑해졌다.

《성숙이가?!...》

은실이, 우리 조직이 요구하는곳이라면 어데든지 가서 조국의 초석이 되지요. 영원히 조선의 아들딸답게 삽시다!》

말없이 공감하는 은실이의 얼굴에는 행복의 미소가 어렸다.

그들의 앞길을 축복해주는듯 버드나무가지에서 새들이 노래불렀다. 그우에 펼쳐진 넓은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었다.

맑고맑은 봄의 푸른 하늘이였다.

(총련조선대학교 교원)

## 숨

정은섭

분녀는 방과제끝에 서서 바위섬사이로 멀리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해질무렵이어서 바다는 숨을 죽인듯 조용하고 수면은 저녁노을에 물들어 장미빛으로 아롱거렸다. 싱그러운 해풍은 분녀의 뺨에 탄 갈숨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기도 하고 하얀 웃고름과 치마자락을 가볍게 날리기도 했다.

분녀는 두눈을 간간지런히 뜨고 귀를 가다듬었다. 통소소리와 비슷한 맑고 은은한 소리가 바람결에 폭죽계 들려왔다.

그는 바삭 긴장해져서 귀를 기울였다.

《봉-》

배고동소리였다. 이윽고 한척의 손님배가 바위섬사이에 나타났다.

분녀는 잔주름이 촘촘한 이마에 드리운 머리칼을 귀밑으로 쓸어넘겼다.

《오는구나.》

그는 잔교쪽으로 총총히 걸어가 몰켜선 사람들의 뒤에 멀찍이 떨어져 란간에 몸을 의지하고섰다.

《아니, 분녀동무가 어떻게?》

수염발이 거뭇거뭇한 중년의 사나이가 분녀앞에 다가서며 말을 건네었다.

《딸애가 오늘 온다구 전보가 왔군요.》

《그럼 해송이가? 벌써 반년이 지나갔다. 빠르기도 하군. 반갑겠수다.》

중년의 사나이도 제일처럼 기뻐하였다.

《참, 분녀동무! 래일 방식상학을 한다지요.》

사나이는 생각난듯 물었다.

《네. 여러 군에서 술한 일군들이 오는데 은덕보 호구에서 하겠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허를 내두를거웨다.》

바위섬에 나타난 손님배는 진을 친듯싶은 사들선들의 사이를 뚫고 호수같이 잔잔한 포구안에 서서히 들어섰다.

분녀는 잔교끝으로 조조조조 걸음을 옮기면서 다가서는 손님배의 갑판쪽으로 눈길을 모았다.

아래갑판의 란간을 부어잡고 뺨꼭이 늘어선 사람들은 호기심어린 눈으로 사위를 두리번두리번 살피는데 대부분이 여기에 처음 오는 정휴양객같았다.

손님들을 쳐다보던 분녀는 그자리에 멎어섰다. 웃갑판의 맨앞에 서있는 딸을 알아본것이다.

딸은 옆에 서있는 청년에게 무엇인가 손으로 가리키면서 열심히 설명하고있었다.

(누굴가?)

그는 딸이 손으로 가리키는쪽을 가늠해보았다. 그것은 바람막이숲이 있는곳이었다. 해풍을 막아 모래불에 푸른 띠처럼 뻗어간 송림은 안개에 덮여 뿌연게 보이기도 하고 아직 안개가 미치지 못한 곳은 검푸른 빛으로 덩이져보였다.

(우리 농장에 오는 손님일가?)

배는 잔교에 닿았다. 사람들이 붐비는 속에서도 분녀는 잠시도 딸한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하기는 해송이가 흥지구의 방풍림조성때문에 가있는 반년 동안 늘 마음 한구석이 텅빈것 같이 살아온 분녀이기도 하였다.

손님들이 웃고 떠들며 그의 옆을 지나갔다. 잔교는 조용해졌다.

분녀는 종종걸음으로 잔교끝에 가섰다. 그는 자애에 넘치는 눈으로 배에서 내리는 딸을 바라보았다.

해송은 풀색 양복을 입고 머리에는 하얀 바탕에 빨간 꽃무늬가 있는 수건을 단정히 썼다.

한껏 피어난 발그스름한 얼굴, 성실하고 순박해 보이는 눈길, 미소가 떠도는 입술, 젊음에 넘치는 딸을 보니 분녀는 저절로 마음이 청신한 풀처럼 정화되는것이였다.

《어머니!》

분녀가 팔을 벌리기도전에 해송은 그의 품에 뛰어들었다. 순간 딸의 응석에 넘친 부름소리는 그에게 강보에 싸여 울던 그때처럼 들리어서 뜨거운 혈액의 정이 가슴저리게 뻗혀왔다.

《해송아!》

분녀는 딸을 그러안았다.

《돌아왔구나. 네가 돌아왔어...》

그의 목소리는 가볍게 떨리었고 딸의 어깨를 쓰다듬는 손길은 뜨겁고 부드러웠다. 분녀의 가슴은 반가움과 안도감으로 가득찼다. 그의 눈길은 오래도록 딸의 얼굴에서 떠나지 못했다.

이윽고 분녀는 자기를 지켜보는 또 하나의 눈길을 감추하면서 딸을 놓아주고 옆으로 건너시 얼굴을 돌리었다.

《어머니, 처음 뵙습니다.》

청년은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누신지?》

분녀는 이목구비가 단정한 청년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저 흥지구에서 일하는 동무예요. 우리 교장의 해안방풍림을 보려고 왔어요.》

청년대신 해송이가 대답했다.

《원, 이렇게 찾아까지 오다니.》

《어머니, 신문에서도 읽고 잡지에서도 여기 경험을 다 봤습니다. 이번에 해송동무와 같이 방풍림조성을 하면서 듣기도 했지만...》

청년의 음성은 낮으나 절절했다. 그의 눈은 분녀의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아둔것을 난감없이 비춰낼 것처럼 영채가 돌았다. 분녀는 그의 말에 끌린듯 미소 어린 눈으로 청년을 바라보며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 경험이 될게 있어야지.》

그러자 해송이가 분녀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어머닌 늘쌍 산림을 가꾸는것이 어렵고 중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산림일군을 키우는것이 더 중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원, 애두, 어서 집으로 안내하렴.》

《어머니, 고맙습니다.》

석암은 다시한번 깊숙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해송이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해송이도 마주보며 방긋 웃었다.

분녀는 돌을 앞세우고 걸었다. 들가방을 마주 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그들의 청청한 모습을 바라보는 분녀의 머리에는 그제야 얼마전에 등지구에서 보내왔던 그곳 책임자의 편지와 해송이의 편지가 떠올랐다.

등지구의 책임자는 편지에 해송이의 성실하고 이악한 노력에 대하여 오래동안 이야기하면서 일군 한명을 보내니 잘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었다. 딸은 편지에 수많은 실패 끝에 겨우 성공의 싹을 찾은 것과 어떤 청년에 대하여 몇줄 안되게 조심스럽게 썼는데 그는 숲을 몹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때 분녀는 편지를 읽으면서 별로 깊은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 청년이 딸과 나란히 걷는 것을 보자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어머니, 빨리 와요.》

멀리 앞에서 해송이가 재촉했다. 분녀는 생각을 가다듬고 바삐 걸음을 옮겼다.

송림속은 고요하다.

저녁의 마지막 별이 소나무가지사이로 거미줄처럼 아물아물 흐른다. 방풍림의 꽃향기와 버섯냄새가 질게 풍기고 꽃송이들이 서로 엉키며 마치도 불덩어리같은 해당화가 하얀 모래우에 떨기떨기 피었는데 그것은 수놓은 비단을 풀어놓은 것 같다.

터실터실한 소나무줄기에 앉은 딱따구리가 부리로 나무를 딱딱 쪼아내고 박새들이 향기로운 대기의 파도속을 헤엄치듯 날아다닌다. 인기척에 놀란 메도끼가 두기를 종긋거리며 오흘 쉴다가 핵 돌아서서 갯완두의 푸른 주단속으로 자취를 감추자 《귀-깽》하는 울음소리와 함께 꿩무리가 순비기나 무사이로 사라지고 새모래덩쿨에 숨었던 메비들이 가 까맣게 떼를 지어 하늘높이 날아오른다.

송림은 새라새로운 세계를 펼쳐놓으며 그들을 깊숙이 빨아들인다.

어느덧 귀에는 파도소리가 들리고 나무가지사이로 검푸른 바다가 보인다. 몇발자국만 더 가면 푸른 장막이 짙 열릴 그 순간 그들은 아름답리 소나무들이 모두 밀둥이 한길씩이나 패워서 검스레한 뿌리가 열기설기 드러난것을 보았다. 그 나무들은 모두 우불구불하며 바다를 향한쪽으로는 가지가 뻗지 못하고 그 반대쪽으로만 길게 뻗어있었다.

《어머니, 이게 웬일입니까?》

소나무를 주의깊게 살피던 석암이가 의혹을 품고 물었다.

《바다바람의 탓이라오.》 하고 분녀는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지금 딛고선 땅은 서른해전까지만 하더라도 풀 한포기 없는 황량한 모래땅(<이동하는 모래산>, <작은 사막>)이었다.

사사구는 우리 나라 동해안의 이름난 사구의 하나로서 그것은 신생대 제4기에 형성된 모래땅으로 되어있다. 사나운 해풍은 700여정보나 되는 이 넓은 지역을 하루밤사이에 모래산을 만들기도 하고 린근의 비옥한 땅과 살림집을 삼켜버리기도 하였으며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583년에 우리의 선조들은 처음으로 사리의 모래땅에 약간의 소나무를 심었다. 풍상고초를 겪으며 수백년의 년륜을 자기 몸에 새긴 이 미끈한 소나무들은 략탈의 첫 대상으로 일제의 사정없는 도끼날에 서글픈 진을 모래땅에 떨구며 며칠사이에 녹아났다.

해안방풍림에 재미를 들인 일제는 1938년 한해만 하여도 우리 나라에서 수백만립방의 백년거목을 략탈해갔다. 발가벗긴 사사구는 또다시 황포한 자연의 광란장으로, 불모의 땅으로, 죽음의 고장으로 변해갔다.

해방과 함께 모래불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들은 다섯돌기의 년륜도 아로새기지 못한채 미체의 함포탄에 재가 되어 날려갔다.

사사구의 사람들은 오늘도 민요 《돈돌라리》를 즐겨부르고있다.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모래 청산에 돈돌라리요

모래땅이 푸른 산이 되면 동이 트리라는 이 노래, 광풍에 모래가 흩날리는 황량한 언덕우에서 운무에 싸인 바다를 바라보며 모래불이 푸른 숲이 되기를 기원하여 불렀다는 이 노래에는 눈물겨운 지난날의 력사가 깃들어있는것이다.

오늘 사사구에는 숲이 성벽처럼 바다를 막아서고 있다. 그 숲은 사나운 해풍과 염기성안개로부터 사람들의 건강과 수백정보의 토지와 과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 아름다운 경치로 하여 휴양소, 정양소, 야영소들의 보급자리로 되고있다.

석암의 얼굴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다.

숲속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나직했으나 점차 높아졌다. 맑고 명명한 노래소리는 바람처럼 숲은 흔들고 분녀의 가슴도 흔들어놓았다.

그 노래는 거품이는 바다를 바라보는 딸애와 같이 나무를 심던 잊지 못할 가을의 노을비끼 저녁을 회상시켜주었다.

그때 분녀의 머리우로는 새들이 무리지어 날아갔다. 분녀는 이제 겨우 뿌리를 내린 자그마한 나무들을 바라보며 잠시라도 새들이 그 나무들에 깃들여주기를 얼마나 바랐던가. 그러나 새들은 무정하게 그냥 날아가버렸다.

가을의 노을비끼 저녁, 무리지어 날아가는 새, 그것은 벌써 먼 과거의 일로 되어버렸다.

《회개과 순애군요. 그런데 저 애는 왜 여기로 왔어요.》

해송이가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도 조르길래 조립반으로 옮겨줬다. 네가 하던 일을 하지.》

《해낼가요?》

《숲에서 자란 앤데 숲을 모르겠니.》

그들은 송림을 지나 나지막한 언덕우에 올랐다. 거기서는 숲이 더 장엄하게 보였다.

분녀의 눈에는 그 무엇이랴 이름할수 없는 숭엄한 빛이 한가득 어려있었다.

《어머니, 이 소나무들이 몇년생입니까?》

밋밋한 나무들의 웅장한 모습을 넋없이 바라보며 놀라움과 부러움을 금치 못하던 석암이가 물었다.

《우리 해송이와 동갑이라도.》

분녀는 모래땅우에 앉았다. 해송이와 석암이도 그옆에 자리를 잡았다.

해는 졌으나 송림속은 아직도 밝았다. 공기는 맑고 새들은 마지막 노래를 부른다. 저녁노을은 나무줄기를 타고 기어올라가 정수리에서 붉게 탔다.

《우리 해송이가 태어났을 때...》

그는 해송이를 언뜻 바라보고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분녀는 기둥에 나붙었던 색깔이 누렇게 바랜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뜯어냈다. 그리고 그자리에 《모든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라는 먹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구호를 붙여놓고 토방에서 내려섰다.

문득 그의 눈길은 읍쪽으로 뻗어간 큰길에 가뒀었다.

술한 사람들이 보짐을 지고 묵묵히 걸어가고있었다.

《또 떠나는구나.》

분녀는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던 곡식들이 하루밤사이해풍에 날려든 모래에 파묻히자 저렇게 이고장을 뜨는것이였다.

그는 원망어린 시선으로 풀 한포기 불수 없는 황량한 모래땅을 바라보았다.

그 죽음의 모래는 날이 갈수록 논밭을 야금야금 먹어가고있었다.

잔등에 업힌 어린것이 울어대는 소리에 분녀는 놀란듯 허리를 굽혀 함지에 땀술을 담기 시작했다.

《예구, 애한테 젖이나 먹이면서 일도 해야지.》

등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분녀는 허리를 펴면서 돌아섰다.

《아니, 형님이... 또 오셨어요?》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어리였다.

《어서 떠를 꾸우.》

녀인은 분녀의 잔등에서 울어대는 해송이를 안아 내리우며 연신 혀를 찼다.

《원, 고생두, 이런 고생을... 두말 말고 짐을 싸우.

내 오늘은 달구지까지 끌고 왔수.》

그제야 분녀는 느침을 질질 흘리는 소며 달구지안에 놓인 굶다란 바줄을 보았다.

《글쎄 해송이 아버지생각을 하면... 바다바람을 막겠다구 나무밖에 모르던 사람을... 하지만 어찌겠나. 같이 가서 살자구. 동서가 여기 혼자 있으니 밥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아. 이런 땀술이나 심어서 언제 먹을 보겠다구 그러나.》

녀인은 아이달래듯 분녀를 달래였다.

《그래두 해풍을 막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 애 아버지부탁도 있고 그이의 무덤이 이 모래땅에 있는데 어떻게 여길 뜨겠어요. 해송이가 먹을 본다구 생각하면 오히려 힘이...》

《그래 안뜨겠단말인가? 고집두...》

한참이나 토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던 녀인은 헛하니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의 땀술을 달구지에 담기 시작했다.

《해송이 큰아버지가 헛걸음한다고 말리던걸 기를 쓰고 왔더니...》

《형님!》

만동서를 바라보는 분녀의 두눈에는 두줄기 눈물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분녀는 얼굴을 돌려 석암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그때 큰집이 있는 그고장이 싫은것은 아니였소. 땀술을 뜨려 산을 찾아 농촌마을을 지날때마다 마당에 곡식단을 쌓아놓고 기쁨을 맛보는 농민들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그때마다 분녀는 남편의 최후를 잊지 않았다.

포연서린 바다가, 쫓겨가는놈들이 방풍림을 찍던 도끼질소리, 살점처럼 모래불에 흩날리던 나무밥, 나무에 묶이운 남편의 이글거리는 눈동자, 마지막으로 남긴 말...

분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을은 나무정수리에서 사라졌다. 숲은 우수수 설레이고 송진냄새가 진하게 풍겨왔다.

분녀는 귀를 기울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참, 소리도 좋지, 나무가 부르는 노래소리가…》

그 말에 해송이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석암이의 귀에는 파도소리밖에 들려오지 않았다.

×

×

집은 조용하였다.

환히 열린 창문으로 멀리 방풍림이 보였으며 그 너머로 바다가 펼쳐졌다. 저녁바다는 노들에 물젖어 금빛으로 아롱이면서 고즈넉한 정적을 몰아가고 있었다.

분녀는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버섯반찬을 석암이 쪽으로 옮겨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따금 손가락을 멈추고 석암이와 딸을 조용히 쳐다보곤 했다.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면서부터 분녀는 총각들을 무심히 대하게 되지 않았다. 그들중에는 분녀의 마음에 드는 총각도 있었다. 총각들은 제편에 분녀가 딸을 멀리 데리고 가지 않음으로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숲을 유산처럼 딸에게 물려주려 한다고 생각하고 한숨만 내쉬었다.

해송이도 언제한번 총각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분녀에게 비취본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분녀는 딸의 눈에 비친 불안과 초조를 읽으면서 증지구에서 보냈던 편지에 씌여진 석암이에 대한 야릇한 감정의 표현들을 되새겨보는 것이었다.

《그래 집에 부모들은 계시오?》

분녀는 까닥 않는 시선으로 석암이를 곧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네, 아버지는 간석지를 막는 일을 하십니다.》

석암이는 영채도는 눈으로 분녀를 마주보았다.

《아버지는 간석지를 막고 아들은 숲을 가꾸어 해풍을 막고… 좋은 집안이요.》

분녀는 머리를 끄덕이며 이번에는 해송이를 바라보았다. 딸은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떨구었다. 분녀는 오래동안 생각에 잠겨있었다.

(새도 깃이 여물면 날아간다더니 혹시 우리 해송이도 사랑을 찾아 여기로, 정든 숲과 어머니의 품을 떠나려 하지 않는가?)

분녀의 가슴은 알수 없는 불안으로 옥죄여들었다. 저녁식사를 끝내자 해송이는 조림지로 떠나갔다.

자박자박 들리던 딸의 발자국소리가 잦아들자 분녀는 때술이 담긴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석암이는 마당에 한가득 자리잡은 애 어린 때술들을 호기심 어린 눈길로 살피면서 물었다.

《어머니, 이걸 모래땅에 심겠군요. 살아낼까요? 이 어린것들이…》

분녀는 잠시 일손을 놓고 석암이를 쳐다보았다.

《그래 아직 어린것들이지, 모래땅에 처음으로 이 때술들을 심었을 때도 좀처럼 뿌리내리기 힘들어했소. 피약벌에 말라죽고 사나운 해풍에 온데간데 없이 파묻히우기도 했었소.》

말이 났으니 우리가 처음 백사장에 때술을 심었을 때 이마가 벗어진 사람이 우에서 내려왔었소. 그 사람은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아이들의 소꿉장난이라고 코웃음을 쳤소.

하기는 해풍이 너무 심하고 만만이나 살수 있는 모래땅이기때문에 나무를 가지고서는 막지 못한다는거요. 외국에서처럼 콩크리트장벽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었소.》

《그래서요?》

석암이는 두키를 강구며 분녀앞에 바짝 다가섰다.

《그래서 여기는 외국이 아니라 바로 조선이라고 했소. 우리 선조들도 여기에 나무를 심었고 전쟁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이라고 왜 우리 식으로 못 하겠는가고 말해줬소.》

《어머니, 전 그런것도 모르고…》

석암이는 머리를 수그렸다.

분녀는 다정한 눈매로 석암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날 밤이었소. 심어 놓은 나무들이 걱정스러워 모래땅에 나가보니 누군가 그곳에서 머물거리지 않겠소. 주먹을 부르짖고 달려가보니 딸애가 나무에 물을 주고있었소. 이마가 벗어진 사람에게 이 에미가 질가봐 글썽 그 어린것이… 달은 왜 그리도 밝았던지…》

사실 분녀에게 있어서 숲과 해송이는 생활의 전부였다. 숲이자 곧 딸이었고 딸이자 곧 숲이었다. 그는 자신이 심은 그 나무들이 딸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자리잡게 키웠던 것이다.

분녀는 젊은 시절중에서 그 하나를 석암에게 꼭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따스한 별들이 깜박이고 파도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분녀는 가슴이 죄여드는것 같은 여름밤의 달콤한 향기를 맡으면서 자그마한 화로불가에 앉아있었다. 그는 이따금씩 불길에 잦아드는 화로불에 삭정이를 던져넣곤 했다. 그때마다 불길은 확 피어오르면서 분녀의 젊고 가름한 얼굴을 환히 비쳐주었다.

그는 나무가지로 불속에서 익은 감자를 끄집어내었다.

《해송아!》

그러자 초막안에서 바스락소리가 나고 뒤이어 소녀애가 화로불가로 다가왔다.

해송이는 손에 쥔 감자를 호호 불다 말고 갑자기 두눈을 둥그랗게 뜨며 분녀의 얼굴을 뵈히 쳐다보는 것이었다.

《엄마, 방울소리가...》

《뭘, 방울소리?!》

분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잠모르는 바다의 설레임 소리만이 들려올뿐이다.

그가 지쳐버린 듯 나직이 숨을 내그으며 팔애를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는 그 순간 숲속에서 방울을 굴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품에 안긴 어린것이 고사리같은 손에 달팽이를 쥐고 어머니의 귀에 대고 흔드는 것 같았다.

마지막 음향이 사라질 무렵, 다시 한번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혹시나 하는 그때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분녀는 치미는 걱정을 참으려고 애썼으나 끝내 새기지 못하고 팔애를 그러안았다.

《해송아, 숲에 새들이 깃들었구나. 새들이 찾아왔어.》

새들의 우짖는 소리는 차츰 크고 높아져서 온 숲을 노래로 가득 채우는 것만 같았다.

《저 방울소리는 어느 새가 부르는 노래나?》

《피꼬리란다. 글썸 피꼬리가 우리 숲에 왔구나. 우리 숲에...》

사그라졌던 불길이 확 피어올라 모래땅에 촌촌히 뿌리박은 소나무의 밑둥을 비쳐주면서 점차 우로 올라갔다.

분녀는 오래동안 까딱 안하고 숲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손을 잡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피꼬리들이 인기척에 놀라 노래를 멈추었다. 그는 나무밑에 숨을 죽이고 서있었다. 그러자 피꼬리는 또다시 방울을 굴리고 그에 화답하듯 메 새들이 열심히 우짖기 시작했다. 그 노래는 나무를 스치고 잎사귀를 울리며 온 숲을 흔든다.

분녀는 숲을 그대로 품에 안고 마음껏 애무해주고 싶었으며 가슴을 헤쳐 마지막 한방울의 젖까지도 뿌려주고 싶었다.

문득 눈앞에 남편의 모습이 어려왔다. 그는 환한 미소를 얼굴에 담고있다. 그렇게 웃는 남편을 언제 보았던가. 분녀는 해송이를 그에게 안겨주었다. 그는 팔애를 번쩍 추켜든다. 팔애는 해죽이 웃으며 나무가지우에 앉는다. 술방울들이 달랑거리고 새들이 팔애의 어깨우에 날아내린다. 잎사귀에 매달린 이 술방울들이 보석처럼 반짝인다. 팔애는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 무엇인가 손짓하며 환성을 지르기도 한다. 팔애는 수많은 새들과 꽃들, 숲이 아름다운 본 것이 리라.

그렇다. 그것은 해송이의 나무, 해송이의 숲이다. 그리고 저 새들의 우짖음은 그가 딸에게 바친 심장의 노래가 아닌가.

《해송아, 피꼬리들의 노래를 무심히 듣지 말아라. 저 노래를 너에게 들려주자고 아버지는 목숨을 바쳤고 어머니는 여기를 뜨지 못했다.》

신선한 바람이 분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난 해송이를 숲과 같이 키워왔소. 그 애는 숲에서 첫걸음을 뒀고 그것을 익혔소. 숲은 그 애에게 아름다움과 관찰력을 주었소. 그리고 자기를 둘러싼 한그루, 한포기의 풀에서 이 숲을 영원히 지켜갈 역센 힘을 키웠던 것이요.》

분녀의 목소리는 것처럼 기대에 차서 절절히 울렸다. 그리하여 석암이는 졸전까지만 하여도 분녀에게 이야기하리라 마음먹었던 그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고 말았다.

×

×

송림은 바다를 끼고 아득히 뻗어갔다. 나무들은 한창 자랄 나이여서 진한 송진내를 풍기었는데 무성한 가지사이로 정오의 물줄기같은 해별도 겨우 실오리처럼 비쳐들고있었다.

《숲이 참 좋습니다.》

송림을 쳐다보던 농장관리위원장이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다.

《분녀동무가 그렇게도 애쓰더니 백정보의 땅이 새로 생기게 됐군요. 정말 숲이 은을 냅니다.》

분녀는 그저 미소를 지을뿐이었다.

《농민휴양소자리를 잊지 마시오. 내 가을에 독특한 기 값을 내겠소. 그럼.》

관리위원장은 일행을 거느리고 바삐 자리를 떴다.

분녀는 송림뒤로 늑연히 펼쳐진 풀밭을 바라보았다. 버림받던 저 불모의 땅에도 오곡이 설레이게 됐다고 생각하니 한시름이 놓이는 듯싶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었다. 그러자 나무들도 천천히 그의 앞으로 다가서며 반가운 듯 가볍게 가지들 설레인다.

분녀는 부드럽고 애무에 가득찬 눈길로 그 하나 하나의 나무들을 더듬어본다. 그것들은 분녀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듯싶다. 그는 조용히 머리를 끄덕인다.

문득 그의 발걸음은 다른 소나무들 보다 엄청나게 큰 한그루의 소나무앞에서 움직일 줄 몰랐다. 분녀는 옷깃을 여미고 허리가 약간 굽을사한 그 아름다운 소나무를 경건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소나무는 자기의 즙으로 키운 부채살같은 가지를 펼쳐들고 바다를 향해 숲을 거느리고 거연히 서있었다.

분녀는 소나무에서 눈길을 땔수 없었다. 모든 생각은 짱그리 소나무에 가있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그 소나무밑에서 남편의 유언을 들었고 딸의 유년시절과 소녀시절이 흘러갔으

며 해송이의 가슴속에 억센 기둥이 뿌리내려졌던 것이다.

분녀는 나무밑으로 다가섰다. 락엽 하나 볼수 없이 깨끗이 쓸어놓은 나무밑에는 두발자국이 가지런히 나있었다.

그는 주위를 살폈다. 해송이와 석암이가 해당화 덩굴이 우거진 모래불로 나란히 걸어가고있었다.

석암이의 걱정예 넘친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다.

《...동무가 등지구에서 왜 여기로 나를 데려왔는지 차츰 이해되는것 같소, 나는 그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들에 어머니의 그토록 뜨거운 마음이 깃들여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소.

해송동무, 이 숲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있는 유산이요... 늙으면 슬하에 있는 자식생각부터 먼저 한다는데 어머니를 모시면서 이 숲을 잘 가꾸오...》

분녀는 조용히 나무밑에 앉았다. 그는 해송이가 소나무에 깃든 이야기를 석암에게 들려주었다는것을 알았다.

분녀의 가슴은 뜨거움으로 차올랐다. 그의 마음은 봄눈처럼 사르르 녹아내렸다.

(그런데 나는 제집에 겁을 냈구나. 해송이가 사랑을 찾아 정든 이 숲과 어머니의 품을 떠나려 했다고 생각했구나.)

분녀는 이 땅에 튼튼히 뿌리내린 딸이 볼수록 대견하였다.

그는 두손을 벌려 터실터실한 나무의 밑동을 쓰다듬으며 지나간 일을 회상했다.

...분녀는 소나무밑에서 처음으로 딸에게 나무꼬챙이로 모래불에 써놓은 우리 글의 자모를 따라 읽게 했다. 그리고 애어린 소나무를 하나 둘 짚어가며 생세기를 익혀주었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백을 넘고 천을 지나 만을 헤아렸다.

분녀는 어둑어둑해질무렵이면 소나무밑에 지어놓은 초막으로 돌아오곤했다. 딸애는 기다리기에 지친 나머지 속이 토라져서 앵 돌아앉는다.

그러면 분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릎에 앉히고는 옛말을 들려주었다.

그의 옛말속에서는 사나운 바다바람을 막아낸 거인에 대한 이야기, 술방울에 대한 이야기들이 쉬임없이 흘러나왔다.

그때면 딸애는 손벽을 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주먹을 쥐기도 했다.

분녀는 이따금 이야기를 맺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

그 노래는 사랑처럼 달콤하고 요람처럼 포근했다. 그 어떤 노래도 분녀의 노래처럼 딸의 마음을 애무해주지 못했다. 분녀의 노래 역시 숲에 대한 노래였다. 그 노래는 숲의 설레임과 같았다. 노래의 구절들은 숲처럼 귀중한 보물은 이 세상에 없으며 그 보물만 가지면 무서울것이 없다는것이였다.

노래의 마지막 구절이 되면 분녀는 딸의 이름을 담았는데 그때면 해송이는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바다가의 소나무》라는 목소리를 들으며 기뻐서 어머니의 품속에 깊숙이 파고드는것이였다.

기다림속에서, 옛말과 노래 속에서 딸의 유년시절이 지나갔고 소녀시절이 흘렀다.

못사람들은 해송이를 속이 굳고 걸이 유순한 보배동이라고 불렀다. 학교에서는 첫손에 꼽히는 달리기선수였다.

그날은 해송이가 중학교를 졸업한 날이였다.

분녀는 딸과 나란히 송림속으로 걸어갔다. 묵묵히 걸음을 옮기는 분녀의 얼굴에는 자못 심중한 빛이 어리었고 들딸기를 찾아 잠시도 그의 옆에 붙어있지 않는 해송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날 줄 몰랐다.

분녀는 송림이 시작되는 어구에 이르자 걸음을 멈추고 모래불에 앉았다. 새들이 떼를 지어 그들의 머리위로 날아갔다. 분녀는 자기옆에 바싹 다가앉아 무리지어 날아가는 새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해송이를 쳐다보았다. 그는 이곳을 떠나 새들처럼 날개를 휘저으며 대학으로 가려는 딸의 똥똥 떠있는 마음을 생각했다. 분녀는 녹아내리는 마음을 다 잡으려는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어디로요?》

딸은 일어나기가 싫은모양이다. 하긴 발바닥을 간지럽히는 따스한 모래불에서 어머니의 옆에 앉아있는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거기 숲으로 가자. 네가 일할곳으로 가봐야지.》

《그럼?》

딸의 손에서 딸기가 모래불에 떨어졌다. 분녀는 걸음을 옮기다가 멎어서서 딸이 오기를 기다렸다. 딸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어서 오너라.》

분녀는 엄하게 불렀다.

둘은 송림속에 들어섰다. 송림에 서리였던 안개는 서서히 사라지고 모래땅에서 꽃들이 붉게 탔다. 하늘을 가리운 술잎들에서는 이슬방울이 맺혔다. 소나무들은 염기배인 안개를 바늘같은 잎사귀로 찢리 이처럼 이슬로 만들어버린다. 덕분에 송림뒤로 펼쳐진 논밭과 과원은 아무런 피해없이 보호되는것이다.

분녀는 키 큰 소나무밑에 이르렀다. 한동안 말없이 소나무밑에 서있던 분녀는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난 오늘 학교선생님들과 이야기하고 너를 우리 농장에 데려오기로 했다. 너도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침략자들은 굶주린 메뚜기처럼 우리 나라의 산림을 닥치는대로 갉아먹었다. 그래서 나라를 찾았을 때 사람들은 산에서 제집을 고칠 석가래감조차 변변히 찾을길이 없었구나. 그리고 바다에서 불어

오는 사나운 바람과 소금기있는 안개를 막아선 숲은 더구나 없었다. 아버지수령님의 품에서 산에도 이 모래땅에도 숲이 생기기 시작했다.

해송아, 아버지는 이 모래땅에 나무를 심어놓고 밤낮이 따로없이 가꾸어왔다. 전쟁때 쫓겨가던 놈들은 바다가에 심어놓은 소나무들을 닦치는대로 찍기 시작했다. 원썬놈들은 나무를 막아선 아버지를 소나무에 묶어놓고 그앞에서 도끼를 휘둘렀다. 살점같은 도끼밥이 그 발밑에 흩날리고 거목들과 애 어린 나무들이 통곡하듯 울부짖으며 하얀 백사장우에 쓰러졌다. 놈들은 피눈물을 쏟으며 몸부림치는 아버지의 가슴에 총탄까지 박았다. 아버지는 이 소나무를 너에게 넘겨주었다.

해송아, 너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산림을 키우는 일군이 돼야 한다.

먼 후날에 네가 손수 가꾸어놓은 나무앞에 섰을 때 너는 그 누구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의심치 않는다.》

분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조용하였다. 그러나 눈은 눈물에 젖어있었다.

해송은 더 참지 못하고 그의 품에 뛰어들었다.

분녀는 딸의 얼굴에 자기의 뜨거운 불을 가져다댔다. 그의 두눈에 맺힌 눈물이 딸의 얼굴에 떨어졌고 딸의 눈물은 어머니의 손등을 적시었다...

분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네가 어찌 어머니와 숲을 떠나려 생각했겠니. 내가 괜히...》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가슴속에 거목같이 든든한것이 뿌리내리고 입가로는 짹짹한것이 흘러들었다.

×

×

분녀는 송림속 오솔길을 걷고있었다. 가지사이로 열린 희끄무레한 하늘가에는 마지막 별들이 깜박거렸다. 성벽처럼 바다를 막아선 소나무들은 가지에 덮였던 흰비단같이 연한 안개를 벗어버리고 번들거리는 줄기와 반짝거리는 잎사귀를 드러냈다. 나무들도 잠에서 깨어난것이다. 새벽바람이 가슴에 솔솔 안겨들고 향긋한 풀냄새와 송진내가 가벼운 물결처럼 얼굴을 스친다.

분녀는 사열이나 받듯 줄지어 서있는 나무들을 천천히 더듬어갔다. 그의 눈에는 기쁨이 고요히 빛나고 활짝 열린 가슴속에는 그 모든것을 다정히 쓸어주고 애무해주고싶은 마음으로 가득찼다.

문득 숲속 어디선가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밤피꼬리가 자기의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분녀는 자리에 멈춰서서 송림을 살폈다. 순간 그는 피꼬리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해송이와 석암이를 보았다. 해송이는 숲을 가리키며 무엇인가 나직이 속삭이고있었다.

분녀는 모닥불가에서 처음으로 피꼬리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반짝이던 딸의 눈을 회상했다. 그러자 주위의 모든것이, 오솔길이며 모래불이며 붓도랑이며 나무들이 딸과 깊이 영겨있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지금 그가 걷고있는 오솔길도 해송이가 학교에 입학하던 날 걸어간 길이였다. 그래서 해송이는 그 길을 등교길이라고 불렀다. 가지가 휘어진 저 소나무에도 다람쥐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그 나무에서 해송이가 처음으로 다람쥐를 본것이다. 그 무엇인들 숲과 떨어져 생각할수 있으랴.

아버지의 낫이 깎든 나무밑에서 그는 눈물 흘리며 입당청원서를 썼고 한그루의 소나무때문에 휴양소를 짓던 입담드센 건설자들이 그앞에서 얼마나 혼썰이 났던가.

숲은 그의 힘이었고 생활의 디딤돌이기도 했다. 숲에는 해송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었으며 삶의 모든것이 자리잡고있었다.

분녀는 딸이 진심으로 이 숲을 사랑하기에, 숲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기에 밤을 패우며 등지구를 위해 석암이를 도와주고있다는것을 가슴뜨겁게 느꼈다.

분녀는 방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책상우에 사진첩이 놓여있는것을 보았다.

아마도 해송이가 사진첩의 장을 넘기며 숲에 깃든 생활을 석암이에게 들려준듯싶었다.

이미 모든 장들에 사진이 붙어있는 가정의 유일한 사진첩이었다. 그는 몇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남편과 같이 찍은 젊은 시절의 모습이 있었다.

토지개혁이 있던 그해 가을, 나무심은 작업장에 사진사가 왔다. 남편은 못사람들의 눈길에 쏟아지는 가운데서 모래땅에 심어놓은 나무앞으로 그를 이끌었다.

분녀는 부끄러워 머리를 들수 없었으나 가슴에는 행복이 물결쳤다. 며칠후 남편은 사진을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은 기쁨을 가까이 하면 안된다. 나무를 가꾸는 일이나 농사짓는 일이나 수확을 바라는 그 마음은 같다. 농민은 수확의 기쁨을 해마다 맛보지만 산림일군은 자기 생애의 마감에도 그 수확을 보지 못할수 있다. 그러나 산림일군들처럼 가슴속에 큰 기쁨을 묻어둔 사람은 없을것이다. 사람중에서도 기쁨을 멀리에 두고 사는 사람이 진심으로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고...

분녀는 사진첩을 덮고 의자에 앉았다. 그는 등지구사람들이 걷고있는 그 간고한 길을 그려보았다. 그것은 그의 모든 과거를 회상시켰으며 이제는 그에게도 그들을 도울 힘이 있다는것을 깨닫게 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줄것인가.

지나간 이야기와 경험... 분녀는 그것이 아니라는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그렇다면 해송이를 그곳에... 그러나 산림일군이  
란 계절조처럼 자기의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법이  
없지 않는가. 그는 생애의 마지막에야 볼수 있는 그  
기쁨을 위해 그곳에 영원히 뿌리내려야 하는것이  
다. 다시 돌아올수 없는곳...

순간 분녀의 눈앞에는 포연서린 바다가, 쫓겨가  
는놈들이 방풍림을 찍던 도끼질소리, 살점처럼 모  
래불에 흘날리던 나무밥, 나무에 묶이운 남편의 이  
글거리는 눈동자가 떠올랐고 그가 남긴 마지막말이  
머리를 쳤다.

《여보, 기쁨을 멀리에 두고 살아가오. 멀리  
에...》

분녀는 가슴이 후둑후둑 뛰었다. 남편이 바라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자 잠시나마 주저했던 자신이  
그지없이 혐오스러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분녀는 자기뒤에 말없이 서있는 딸을 보았다.

《해송아, 난 너를 증지구에 보내기로 마음 먹었  
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안돼요. 전 못가  
요. 내가 어떻게...》

《난 네 마음을 다 안다. 너밖에 다른 사람은 없다.  
정든 채고장에서 사는것도 좋지만 다른 고장에 가  
서 숲을 가꾸어 수령님의 뜻을 꽃피우는것이 얼마  
나 좋은 일이나.

해송아, 우리 기쁨을 멀리에 두고 살아가자.》

《어머니.》

분녀는 품속에 뛰어드는 딸을 끌어안았다. 그는  
오래동안 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침이다. 분녀는 해송이와 석암이를 앞세우고  
송림속을 걷는다. 새벽노을은 사라지고 송림은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다. 장엄하니 해풍을 막아 하

늘높이 서있는 소나무들이 인사나 하듯 분녀의 앞  
으로 자꾸만 다가선다.

새벽이슬에 아래도리가 후줄근히 젖은 수염발이  
거뭇거뭇한 중년의 사나이가 숲속에서 장대를 거머  
쥐고 나왔다.

《아니, 분녀가 어떻게?》

《해송이가 떠나기에...》

《증지구로?! 그 애를 보내다니... 정말 장하워  
다.》 사나이의 얼굴에는 감동의 빛이 한껏 어려있  
었다.

숲속에서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처음에는 나직했  
으나 점차 높아졌다. 온 나라에 숲이 무성하라는 이  
지방의 민요였다. 그 노래는 아침해살처럼 밝고 백  
사장의 해당화처럼 열렬했다.

분녀는 가슴이 울렁거리 진정할수 없었다. 저도  
모르게 두눈에 맑은 이슬이 고였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처음으로 맛본 기쁨의 눈물이라.

분녀는 앞을 내다보았다. 그는 해송이와 석암이  
의 어깨너머로 푸른 숲에 겹겹이 둘러싸인 강변과  
해안, 산과 골짜기, 마을과 도시들을 보았으며 클락  
새와 금강초롱, 사슴떼와 꿩무리를 보았다.

남편들이 지켰고 그네들이 살아온 그리고 해송이  
네들이 가꾸어 갈 푸른 갑옷을 입은 조국이, 창조의  
숲을 가진 조국이, 어버이수령님품속에서 풍요하  
고 아름답게 변형하는 어머니조국이 그의 앞에 무  
변광대하게 펼쳐져있었다.

분녀는 곳곳이 걷는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  
소가 흘러넘친다. 이제 조국의 새로운 지구에 또 하  
나의 숲이 가꾸어지기에, 그때면 조국의 값은 또 얼  
마나 커질것인가.

송림은 아침해살에 더욱 붉게 타오른다. 우수수  
설레인다.

## 유보도 배길

최치영

배당은

이편

저편

하늘가엔 은빛창가 마주 옷소

유보도 낚시꾼 낚시대엔

하늘중천 팔뚝같은 잉어가 푸드득...

-저 봐라

그러자 와르륵

버들숲 속삭이던 처녀총각도

아예 그만 넋 잃었소

오가던 배손님들도 아니 보면 후회될가봐

배머리엔 누구나 키돋움하오

어화라 좋네

주체사상탑-**김일성**광장 오가는 배길

이 배길론 반도반도 볼수 없어

아이 어른 누구나 한마디

-이 배길 좀더 길었으면...

-이 배길 저 룡라도 다 돌았으면...

아마도 오가는

대동강유보도 배길 하좋아

바쁜길 시간도 다 잃었는가봐

누구도 선듯 발길 못떼니

배길은 짧아도

길게길게 흐릅니다려

## 쌀에 대한 생각

### 리대상

행복한 오늘의 우리 생활을 두고 사람들은 흔히 흘러간 지난날의 추억속에 잠기곤할 때가 종종 있다.

그날은 유치원에 다니는 막내이의 생일날이어서 나는 그 애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상점에 들러 장난감들과 꽃사탕, 과일통조림, 장수면... 등 이를테면 선물을 한가방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퇴근해오기를 오래 기다렸던듯 막내이가 쪼르르 달려나와 매달리며 어리광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아버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나?》

《알구 말구, 오늘은 우리 막내이 생일날이지. 하하...》

막내이는 자기 생일날을 맞힌것이 얼마나 기쁜지 나의 목을 끌어안으며 야단을 쳤다.

《맞혔어. 아버지, 그럼 생일선물 사왔나요?》

《생일 선물? 그럼, 아버지가 오늘은 가방에다 한가득 선물을 사왔지.》

하며 나는 상우에다 사가지고온 선물을 올려놓기 시작하였다.

《야, 좋네.》

밝게 웃으며 상우에 쌓여지는 선물을 바라보던 막내이는 왜서인지 얼굴이 시무룩해졌다.

《아버지, 이것도 좋지만 송기떡이 없네. 엄마는 오늘도 찹쌀떡밖에 안해요. 나 송기떡, 송기떡 먹어봤음 좋겠네.》

《뭘, 송기떡?!...》

순간 나는 막내이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왕칭같은 송기떡이란 말에 어리둥절하였다.

《응, 할머니랑 그러는데 아버지랑은 생일날에 송기떡을 맛나게 먹곤했대요. 난 왜 안사다주나요?》

후에 안 사실이지만 찹쌀을 담그며 할머니가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두고 부지불식간에 막내이에게 옛날 너의 아버지는 생일날에도 송기떡을 먹곤했다는 말을 했던 모양이다.

(송기떡!...)

나는 송기떡이란 말을 다시한번 입속으로 외워보며 불야경을 이룬 거리가 한눈에 굽어보이는 창가로 천천히 다가가다.

나는 입맛을 돋구는 하많은 음식가운데서 하필 송기떡을 찾는 막내이를 탓할수 없었다.

아마도 막내이는 송기떡이란것이 이 세상에서 좀해 맛보기가 드문 진귀한 음식처럼 느껴진 모양이다. 하기가 배고픈 설음과 고통을 모르고 행복의 요람속에 묻혀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자라나는 나의 막내이는 송기떡이야말로 한번도 맛보기 힘든 희귀한 음식일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긴 지금에 와서 《송기떡》, 《쑥떡》, 《겨떡》의 맛은 물론 그이름조차 나의 기억에서도 사라지고 있으니말이다.

그러니 이 철없는것을 어찌 탓하랴!

나는 기억에서 아득히 사라진, 꿈에조차 상상하기 피로운 추억의 갈피를 번지기 시작하였다.

해방전 어느해 겨울,

그해따라 추위도 혹심했지만 행랑에 무겁게 드리운 가난과 굶주림은 그보다 더욱 혹심하였다. 가난한 인생을 동정하듯 문풍지가 붕붕 우는 밤, 처량한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일날을 손꼽아 기다리었다. 입에다 풀칠조차 제대로 못하는 살림살이였지만 나의 생각에는 혹시나 생일날에는 어떻게하든 어머니가 흰쌀밥을 한그릇 해줄상싶었던것이다.

드디어 생일날이 왔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도 어머니는 송기떡 몇개를 종바리에 담아들고 들어왔다.

《오늘이 네 생일인데 송기떡밖에 없구나. 이것이나 많이 먹고 일어나거라!》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의 눈굽은 축축히 젖어있었다.

봄, 여름은 물론 겨우내 송기를 먹어 이발까지 송기물이 올랐는데, 더우기 며칠동안 독감에 걸려 앓고있던 나는 입맛을 싹 잃은지라 송기떡이 구미를 돌굴리 만무하였다.

나는 혀끝으로 입술을 감뻘며 말했다.

《엄마, 흰쌀밥 한번 먹어봤음 좋겠네.》

머리맡에 놓여있는 송기떡을 쳐다보며 하는 나의 말에 어머니의 눈굽에서는 드디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치마끈으로 눈구석을 찍어내더니 슬그머니 자리를 일어났다. 어머니는 집을 나셨다.

그 어데나 할것 없이 눈보라뿐이었다. 길우에도, 나무가지우에도 눈이 깔렸고 산에도 별판에도 눈뿐이었다.

어머니는 다래끼를 끼고 벌판에 나섰다. 그리고는 눈을 헤집기 시작하였다. 한가닥의 희망을 걸고 들로 나오기는 했지만 벼이삭을 짓는다는것이 질검부레기속에 떨어진 바늘찾기였다. 어머니는 흐릿해지는 기억을 더듬으며 가을에 벼단을 무저놓았던 자리를 찾아 자꾸만 눈을 헤집었다.

지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고 어머니는 끝내 벼알이 몇알씩 붙어있는 벼이삭을 주을수 있었다.

어머니는 기뻐다. 고생도 고생이려니와 몇개의 벼이삭을 털면 쌀알이 생길수 있었고 흰쌀밥이 될수 있었기에 무등 기뻐다. 어머니는 정신없이 계속 눈속을 뒤졌다. 아우성치는 눈보라와 추위때문에 어머니의 등허리는 새우처럼 웅송그렸고 손과 발은 허영게 얼어 이미 감각을 잃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벼단이 놓였던 이 논둑에서 또 다음 논둑으로 자꾸만 찾아다녔다. 그러던 어머니는 허기질대로 허기져 끝내 논바닥에 쓰러지고말았다.

나는 그때까지도 어머니가 어디간줄 모르고 누워있었다.

날이 어두워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 짙어서야 마을사람들이 벌판에서 눈속에 파묻힌 어머니를 찾아내어 업어왔다. 꺾꽂이처럼 언 어머니의 주먹안에는 몇개의 벼이삭이 그냥 쥐여져있었다.

나의 가슴은 어린 마음에도 그런 어머니를 보니 너무 쓰리고 아파 《엄마, 다시는 흰쌀밥소리 안할래, 난 송기떡도 맛있어. 난 흰쌀밥 먹지 않을래. 송기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하며 목놓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며 어머니가 보란듯이 아직 먹지 않고있던 머리말에 놓여있는 송기떡을 먹기 시작하였다...

그렇다, 한줌의 쌀이 인간의 운명을 마구 희롱하던 모진 세월! 그야말로 한평생 살아가는데 제일 무서웠던것이 입이라 할가!

하긴 옛날에 설명절 지주집에서 밤새도록 떡방아를 찰는소리 들리었지만 죽조차 쓸 한줌의 쌀이 없어 부뚜막에 앉아 애타게 가슴을 쥐어뜯는 안해에게 가야금으로 떡방아찰는 소리를 내어 위로했다는 기막힌 이야기도 전해지고있지 않는가!

우리 부모들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흰쌀밥을 한번만이라도 먹이고싶은 마음 간절했어도 그 소원을 쉬이 이룰수 없었다.

어찌다 생긴 한흙의 쌀을 보물처럼 건사했다가 살아생전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부모들의 제상에

흰쌀밥 한그릇 올려놓자 해도 그나마 한사발이 못되어 감자나 강냉이를 담고 흰쌀밥을 고깔처럼 곁에다 썬 《고깔밥》, 《감투밥》을 놓아 조상조차 속이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부모들!

이것이 어찌 옛말이라고만 하랴!

가슴아픈 옛일을 추억하는 나의 뇌리에는 며칠전에 신문에서 본 동시 한편이 떠올랐다.

글로 적기에는 너무도 처절하고 말로 다 하기에는 참으로 기막힌 남조선의 한 소년의 구슬픈 목소리, 눈물에 젖은 소년의 동시였다.

내 동생 밥달라고 자꾸 울어요.

밥도 죽도 먹을것은 한 없는데

사람은 밥 안먹고 살수 없나요?

꽃나무는 밥안먹고 잘도 크던데

울다가 잠든 동생 끼우지 말아요

잠결에도 밥달라고 소리칩니다

쌀 사오신다 나가신 아빠는 왜 안오시나요?

동생 울고 나 울고 엄마도 우는데

아빠는 이 밤에도 꿈을 파시나요?

하루종일 아빠도 굶으셨을텐데...

밤은 깊어갑니다

이 밤이 새면 우리 아빠 쌀 사오실가?

시인도 아니요, 어른도 더구나 아닌, 우리 애뜨래인 그가 어찌하여 설움이 고인 이 동시를 지었을까.

소년은 그 어떤 문학적재능이 있어 이 동시를 지은것이 아니다. 애어린 심장이 시키는대로 흐르는 눈물에 풍다리연필을 적시며 억땀한 심정을 참을수 없어 이 동시를 썼을것이다.

새기고 또 새겨볼수록 그 소년의 애달픈 심정, 간절한 소원이 구절구절 차고넘치는 동요, 오죽 배가 고팠으면 이런 시를 썼을가. 가난과 굶주림이 몸과 몸을 칭칭 감고있는, 앞을 봐도 기아의 함정이요, 뒤를 봐도 죽음의 함정뿐인 남조선사회, 노동자들은 일터를 빼앗기고 농민들은 땅을 빼앗기고 학생들과 어린이들은 학교와 놀이터에서조차 쫓겨나 쓰레기통을 뒤지는 저 남녘땅에 이런 동시를 지으며 고된 배를 움켜쥐고 처량히 우는 아이들이 어찌 그 소년뿐이라.



마을과 거리, 도시와 농촌마다에서 굶어쓰러진 남 녀 형제들의 비참한 신음소리가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위대한 수령 김 일 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에서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쌀을 한키로그램에 8전씩 받고 공급하여주고있습니다. 국가에서 이처럼 거저 주나 다름없는 낮은 값으로 쌀을 공급하여주는것만큼 노동자, 사무원들은 마땅히 국가의 해택에 보답하기 위하여 일을 더 잘하여야 할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에게 쌀을 거의 무상으로 공급해주고있다.

하기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쌀걱정을 하는 사람도 없고 굶어죽는 사람도 없다. 노동자, 사무원, 별방의 농민은 물론 감자와 강냉이만 심는 두메산골에서도 흰쌀밥을 먹는다.

얼마전에 취재차로 창광유치원에 갔던 나는 거기서 한 외국기자를 만났었는데 그는 아이들의 풍성한 식탁을 보고나서 나에게 우리 집 애들도 그런 식탁을 마주하는가, 우리 집에서 한달의 쌀공급량이 얼마이며 쌀값은 얼마를 치르는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나는 그때 그 외국기자에게 만족한 대답을 줄수 없어 한참이나 망설이였다. 솔직히 말해서 기자인 나 자신도 그 언제 그런것을 계산해본적도 없었거니와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그의 질문은 어이없는것이였으나 근로자들이 보잘것 없는 임금에서 많은 땀을 쌀을 사는데 쓰지 않으면 안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살아온 사람이였기에, 더우기 20세기의 년륜을 새기며 달려온 세계가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식량위기의 암초에 부딪쳐 매일 수만명씩 굶어죽는 참상을 목격한 그였기에 나는 그의 물음을 탓하지 않았다.

예로부터 가난은 나라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그 말뜻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되였다.

우리 인민들처럼 세상에 태어나자부터 먹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입고 쓰고 살 근심걱정을 모르고 생활하는 복받은 인민, 아이들이 어데 있는가!

정녕 우리 생활은 오늘 얼마나 풍족하고 흥겨우며 행복한가!

때마침 부엌에서 안해가 떡치는 소리에 깊은 생각에서 깨어난 나는 창가에서 천천히 돌아섰다.

그 떡치는 소리는 마치도 내 가슴속에 울리는 행복의 북소리처럼 들렸다.

그러나 쌀의 눈물겨운 사연을 할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뼈에 사무치게 느끼지 못한 나의 막내이가 쌀이란 곧 빈독에서 빈족박으로 한숨과 가난만을 퍼내던 이 나라 모든 어머니들의 설움이였다는것을 어이 알수 있으랴!

나는 막내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일했다.

《애야, 송기떡은 말이 떡이지 사람이 먹을게 못된다. 죽지 못해 먹는것이란다.》

《죽지 못해 먹는것?》

내 말을 듣자 막내이는 할머니에게 《항의》한다.

《할머니는 빈소리군이야. 그것봐, 아버지가 죽지 못해 먹는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떡을 먹는 사람이 어데 있어요?》

하고는 볼우물을 파며 깔깔 웃어댔다.

그렇다! 바로 저 웃음은 나라 없고 땅이 없고 쌀이 없는 인민이 설음과 고통을 한몸에 체현하신 우리 수령님께서 광복의 눈보라길을 헤치시며 찾아주시고 피워주신 웃음, 바로 우리 인민들의 얼굴에서 더는 한점의 그늘이 질세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밝은 웃음이 아닌가!

인민들을 잘먹이고 잘살게 하기 위하여 항상 깊이 심려하시며 몸소 인민들의 집에 들리시여 손수 쌀독을 열어보시고 된장맛, 간장맛까지 보시고서야 마음을 놓으시는 아버지수령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로 우리 인민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오늘도 비내리는 눈두렁길, 눈보라이는 령길을 넘고넘으시며 주체농법의 해빛을 비쳐주고계신다.

쌀은 그대로 하늘에서 내리는것도 아니요, 강물처럼 흐르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대로 인민의 소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사시절 하루도 빈날없이 우리 수령님께서 마음쓰시며 기울여오신 아버지사랑이다.

바로 우리 수령님의 그 사랑에 우리 집, 우리 사는 방,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 활짝 꽃피나고있지 않는가.

생일날에조차 눈물과 송기떡밖에 오르지 않던 우리 인민들의 밥상에 날마다 생일, 날마다 명절의 웃음꽃을 피워주시는 아버지수령님!

이 은덕을 내 어찌 잊을수 있으랴!

나는 막내이에게 아직까지 들려주지 않았던 송기떡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리라 결심했다.

그래야 막내이가 크면 다음 세대에도 이런 이야기를 넘겨주고 넘겨받으며 피눈물나던 옛일을, 오늘의 행복, 은덕을 잊지 않으리!

## 포장마차에 운명을 싣고

김원택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말할수 없이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참으로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비참한 형편에 놓여있다. 문필을 업으로 하는 문학가들의 경우도 그에서 예외로 되지 않는다. 아래에 소개하려고 하는 한가지 사실도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예로부터 마차는 사람이 끄는것이 아니지만 지금 인간생지옥 남조선에서는 적지 않은 최하층민들이 생계수단으로 포장마차를 굴리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이 끄는 마차, 이것은 미제의 식민지 남조선에서 인민들이 노예의 멍에에 짓눌려 허덕이는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함축하여 이야기해주고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크고 작은 도시마다에 어둠이 내리면 그것이 소리없는 신호가 되어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포장마차들이 야간기습전을 퍼듯 거리의 길손들을 찾아 달려나간다.

가난한 사람들이 팔죽같은 땀을 뿌리며 끄는 포장마차의 빼거덕거리는 구슬픈 바퀴소리는 그들의 한많은 사연을 하소하듯 남녘의 침침한 어둠을 가르며 끝없이 울려 퍼진다.

그들은 술이 아니라 자기들의 피눈물을 팔고 고기안주가 아니라 자기들의 살점을 뜯어내어 판다고 해야 할것이다.

이런 비참한 인생들속에 소설가 포장마차군이 나타나 사람들의 놀라운 시선을 모으고있다.

창작생활도, 체면도 다 버리고 포장마차로 생계를 이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소설가.

얼마나 지독한 생활의 고초가 그를 걸음마다 괴롭히고있는것인가.

### 네번째주인

지금으로부터 몇해전 한 중년의 사나이가 부산의 영도다리우를 맥없이 터벅터벅 걸어가고있었다.

초점을 잃은 눈동자, 축 처진 어깨...

첫눈에도 그가 일자리를 찾아 해종일 고달프게 헤매는 실업자라는것이 알렸다.

그의 얼굴에는 한없는 시름이 비껴있었다.

그는 남조선소설가 윤진상이었다. 차디찬 골방에서 주린배를 움켜쥐고 쓴 그의 작품은 최하층민들의 처참한 생활을 담은것으로 하여 남조선피괴도당에 의해 내용이 《암울》하고 《지나치게 어둡다》는 딱지가 붙어 많은 경우 출판이 중단되곤하였다. 소설창작으로써는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렵게 된 그는 1년동안을 뛰어다녔으나 일자리는커녕 헛물만 켜오고있었다. 미제의 식민지 남조선이야말로 인민들에게 일자리조차 차례지지 않는 암흑세상인것이다.

다섯식구의 생계와 아이들의 학비가 달려있는 그의 눈앞은 캄캄하였다.

이무렵 그의 딱한 사정을 보다못해 친구인 한 시인이 다방으로 그를 불러냈다.

《윤형, 내 무슨 말을 하든지 화를 내지 마시오.》

《내가 왜 친구에게 화를 내겠소.》

《좋소. 그럼 내 말하리다. 포장마차말이요. <양산박>을 윤형이 맡아서 하소.》

《뭐라구?》

윤진상의 눈빛이 대뜸 흐려지고 얼굴이 이그러졌다. 세상이 다 아는 소설가인 자기에게 포장마차를 끌라고 하니 아무리 생활에 쪼들린다 한들 선듯 받아들일수가 없었던것이다.

《양산박》은 원래 60고개를 눈앞에 둔 한 극빈한 음악가의 생계수단을 마련해주기 위해 윤진상에게 《양산박》을 맡으라고 권고하던 그 시인과 동료들인 네명의 기자가 《선금》 10만원을 모아 부산시 충무동바다가 고물상에게서 사들인 포장마차이다.

음악가가 그것을 굴리려고 하지 않자 그들 다섯명은 다문 얼마간의 돈이라도 벌어서 음악가가족의 생계에 보탬을 주려고 자기들이 광복동입구 《백조》다방 뒤골목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산적의인》들이 모여살며 마시고 떠들고했다는 중국고전작품 《수호전》의 《양산박》처럼 번성하라는 뜻에서 포장마차에 《양산박》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다섯명이 《주방장》과 《손님물이군》으로 당번을 정해서 하루씩 바뀌가며 일했다. 퇴근하기가 무섭게 《자갈치》시장으로 달렸고 련탄불을 피우고 안주거리를 장만하느라 법석을 떨었다.

했지만 모진 고생뿐이지 《영업》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양산박>을 운영할 인물로는 윤진상만큼 책임자가 없다》고 의견일치가 되어 시인을 대표로 그에게 보냈던 것이다.

시인은 윤진상을 끈질기게 설득해나섰다.

하지만 윤진상의 얼굴은 붉으락푸르락 하였다.

《씨팔, 좋은 입에서 욕나올라카네!》

윤진상의 단호한 거부로 포장마차 《양산박》은 켜지게 가난한 한 화가가 맡아 영업을 하였고 7개월 뒤에는 다시 어느 음악가가 생계수단으로 그것을 넘겨받았다. 얼마후 그 음악가도 포장마차의 보잘 것없는 《영업》이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였다.

그지음 윤진상의 생활고는 극도에 이르렀다. 살아갈 길이 없어 나중에는 집을 팔고 세방살이를 시작하였다. 그의 세 아이는 매일같이 학비 때문에 울고불고하였다. 그야말로 그는 생활의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다.

동료들은 그의 생활고를 두고 걱정을 하였으나 어찌는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날 동료시인은 《양산박》의 세번째 주인인 음악가가 그것을 팔려고 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윤진상부터 생각하였다.

(다시 한번 윤진상을 설득시키자. 그 친구 포장마차라도 굴려야 먹고살 수 있는 주제에 자존심 하나는 더럽게 세단말이야...)

윤진상을 찾아간 시인은 그의 손을 덥석 잡고 포장마차를 팔을 것을 간절하게 다시 권고했다.

《아이고 문둥아, 또 그놈의 <양산박>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윤진상은 이전과는 달리 한풀 꺾여있었다. 모진 가난의 고통은 그에게서 자존심도 부끄러움도 깡그리 앗아간 것이다.

《그럼 내가 진짜로 <양산박>인지 울산박인지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어 그는 《양산박》의 네번째 주인이 되었다.

《소설가가 포장마차를 끝다니...》

되일수록 자신을 그런 처지에 몰아넣은 남조선 사회가 끝없이 저주스러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눈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뿌연 안개가 어리어 앞을 가려볼 수 없었다.

## 고달픈 인생마차

부산시 중구 광복동 1가 47의 1번지 공지는 포장마차들의 《주차장》으로 되고있다. 여기에는 발을 들여놓을 엄두조차 낼 수 없을 지경으로 겹겹이 포장마차들이 서있다.

포장마차들은 어둠이 내린 뒤에야 시안의 골목으로 출동을 한다.

이 《주차장》의 한쪽 구석에는 황혼이 짙어가도 언제나 움직일 줄 모르는 포장마차가 있었으니 그것이 윤진상의 《양산박》이다.

그는 아는 사람들이 많은 거리로 차마 끌고다닐 수 없어 그자리에서 《영업》을 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어둠이 깃들자 윤진상부부는 서툰 솜씨에도 런던 화독을 일구고 안주거리를 장만하며 소주병도 날라다놓느라고 바빠 돌아갔다.

이윽고 준비가 끝나자 그들은 이미 가져다놓은 책(윤진상의 장편소설과 창작집)들을 포장마차구석에 있는 찬장안에 쌓아놓고 찬장문에는 《<명혼의 라신> 2천원》, 《<하얀 불꽃> 2천원》이라고 쓴 종이쪽지를 붙여놓았다.

그 책들은 출판업계의 불황으로 원고료 대신 얼마 안되는 것을 출판사로부터 넘겨받은 것이었다.

그것도 팔지 않으면 당장 끼니가 문제였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들기 시작하였다.

처녀들 한패가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그 책 광고를 보고 물었다.

《아저씨, 하얀 불꽃 맛있나요? 그거 한점시 주세요.》

《난 <명혼의 라신>을 먹을래. 그건 무슨 고기로 만든 안주인가요?》

그들은 책 광고를 안주거리로 착각한 모양이었다. 윤진상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한동안 그들의 얼굴만 뵈히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결코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다.

소설가로서 포장마차군이 되지 않으면 안되었고 거기에 책 광고를 붙이고 책을 팔지 않으면 살수 없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이 절통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별이 총총한 밤하늘에서 난데없는 물벼락이 쏟아졌다.

골목의 2층, 3층에서 사는 부자집 계집년들이 심심풀이로 포장마차우를 겨냥해서 개수물을 냅다 부었던 것이다.

손님들이 아우성을 치며 달아나고 그냥 그자리에 섰던 윤진상부부는 물참봉이 되고말았다. 윤진상과 그의 안해는 피할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랑볼에서는 개수물인지 눈물인지 알수 없는 것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쯤한 모멸은 아직 약파였다.

하루는 망나니 몇이 《양산박》에 나타났다. 그들은 술 몇잔을 연거퍼 비우더니 징그러운 눈길로 윤진상의 안해를 훑어보기 시작하였다.

망나니들은 안해 김종랑을 보고 무엇이라고 지껄이면서 희롱하기 시작하였다.

윤진상은 그들에게 접근하여 여러차례 충고를 주며 저지시키려고 하였다.

그러자 안해를 술대접시키는 주제에 뭘 그러는가고 하면서 여럿이 달려붙어 그를 때려눕혔다.

손님들이 격분하여 말리자 망나니들은 하나둘 사라져버리고말았다.

술병들이 깨어져 덩굴고 안주가 짓뭉개져있는 땅바닥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윤진상의 모습은 처참하였다. 안해 김종랑이 그를 일구어 앉히고 수건으로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주면서 애간장이 끊어지는듯한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였다.

《아 이 구 이놈의 세상 이런짓 하지 않고는 못살아가노?!》

이제까지 가슴속에 고이고 고였던 설움과 비분이 동이 터진듯 터져올랐던것이다.

김종랑은 주먹으로 땅바닥을 팡팡 쳤다.

주먹에서는 붉은 피가 진하게 흘러내리고있었다.

점점 높아가는 그의 원통한 울음소리는 부산의 밤하늘 멀리 처량하게 메아리쳐갔다.

그것은 반인민적인 남조선사회에 대한 한없는 저주의 울부짖음이었고 그의 가족에게 비참한 생활을 강요하는 원쑤놈들에 대한 피타는 증오의 고발이었다.

안해를 바라보는 윤진상은 자신의 아픔보다도 갖은 모욕을 다 당하며 고생하는 안해에 대한 가없는 생각으로 하여 마음이 한없이 쓰리고 아팠다

아, 가난의 설움이 이다지도 가슴을 찢는단말인가?!...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몸부림쳤다.

망나니들의 모멸도 참을수 없었지만 남조선피괴도당의 략탈행위는 더욱 견디기 어려운것이었다.

놈들은 이 보잘것없는 포장마차의 몇푼 안되는 수입마저 《영업세》라는 명목으로 거의 다 앗아가군하였다.

그러니 다섯식구의 명줄을 무엇으로 이으며 자식들의 학비를 또 무엇으로 감당한단말인가.

윤진상은 《밥은 달란 말 안하겠으니 학비만 주세요.》라고 하면서 애원하는 자식들을 보기 딱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포장마차에서 새우잠을 자곤 하였다.

포장마차 《양산박》, 그것은 한 작가의 비참한 운명을 실고가는 인생마차이기도 하였다.

## 《폭풍우여, 쏟아져라!》

미제와 전두환피괴도당에 대한 인민들의 저주와 분노의 기운은 세상의 구석에 박혀 그 존재마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 작은 포장마차에도 레의없이 휩쓸어왔다.

《양산박》에는 대학생 비슷한 젊은층들이 적지 않게 드나들었다.

그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전두환피괴도당의 반인민적정책을 규탄하는 《정치색》이 짙은 말을 꺼리낌없이 터놓곤하였다.

놈들이 남조선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갈망을 무참히 짓밟고 총칼탄압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던 때라 이들 청년들은 틈만 있으면 《시국》에 관한 이야기에 윤진상을 끌어들이려고 하였다.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의 《휴학생》으로 부산에 《돈 벌러 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안경쓴 청년은 저녁마다 《양산박》에 누구보다 먼저 나타나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벌려놓기가 일쑤였다.

하루는 밤늦은 시간에 《양산박》에 나타나 윤진상에게 대뜸 이렇게 물어왔다.

《소설가 선생님께서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포장마차속에 갇혀서 어떻게 알겠소.》

특무들이 옥실거리는 남조선사회에서 상대의 신분을 똑똑히 알지 못하고있던 윤진상은 이렇게밖에 말할수 없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얼굴근육을 실룩이면서 분개해서 말하는것이였다.

《그 정도로 무감각한 사람이 그래 소설가요? 작가란 랑반이 이 지경이니 다른 사람들은 일러 무삼하리오.》

《보소. 젊은 친구야. 나는 이 포장마차에서 술과는 일에도 정신이 없는 사람이야. 국물맛이 땀다거나 짜다거나 그런 투정이라면 내가 받아주지.》

《국물맛이나 따지랴구요?...》

청년은 원쑤들의 총칼밑에 인민들의 붉은피가 남녘강산을 적시는 이 엄혹한 현실을 외면한 그 처사에 분격을 금할수 없어했다.

그때 윤진상은 원쑤놈들의 감시와 탄압때문에 아닌보살하였지만 마음속에 받은 충격이 형언할수 없이 컸다.

침략자와 매국노가 판을 치는 세상 《꼬락서니》를 두고, 남녘겨레의 처참한 운명을 두고 청년들은 몸부림치는데 시대와 인간을 그린다든 소설가인 자신이 그것을 어찌 외면할수 있단말인가?!...

그는 지금까지 정치와 담을 쌓고 살아온 자신이 한없이 저주스럽고 민망스러웠다.

그는 점차 포장마차너머 어지러운 남조선현실에 시선을 보내기 시작하였고 그러는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온갖 소음이 잦아든 밤의 고요속을 홀로 걸을때면 어느 한 진보적인 로작가의 소설의 한 대목을 상기하곤하였다.

(사람답게 살아가라.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불의에 타협한다든가 굴복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사람이 갈길이지 아니다.)

그는 이것을 그 무슨 좌우명처럼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가고있었다.

하기에 그는 가슴속에서 울분이 치솟고 원한이 사무쳐 견딜수 없을 때면 반인민적인 남조선사회를 들부시고싶은 마음을 억제할수 없었다.

하늘에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 어디론가 급히 흘러가던 날이었다.

《양 산 박》으로 가던 윤진상은 부산의 영도다리위에 멈춰서서 오래도록 움직일줄 몰랐다.

그의 눈앞에는 저녁이면 포장마차에서 술접대를 하며 갇은 고생을 다하는 안해의 가궁한 모습이며 일자리를 잃고 몸부림치는 동료들의 비참한 정상이 화면처럼 떠올랐다. 광주의 항쟁자들이 피를 물고 쓰러진 기막힌 모습들도 안겨왔다.

윤진상은 가슴속에서 더운피가 끓어번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문화인들마저 일자리가 없어 몸부림치는 세상, 자유의 무덤과 민주의 폐허로 된 남조선사회가 끝없이 저주로왔다.

그의 눈에서는 증오와 분노의 푸른 불꽃이 번뜩이였다.

그때 하늘에서는 번개불이 번쩍이고 뇌성이 무섭게 지동쳤다. 세찬 폭풍이 일면서 나무들을

부러뜨리고 관자집지붕의 양철조각들을 어디론가 멀리 날려보내고있었다.

그것을 한동안 뚫없이 바라보던 윤진상은 이 천지의 태동처럼 분노와 원한에 사무친 남녘인민들이 모두다 항쟁에 일어나 반동적인 남조선사회를 뒤집어엎고 원썬놈들을 모조리 족쳐버렸으면싶었다.

그는 열광의 환희에 넘쳐 부르짖었다.

《폭풍우여, 쏟아져라 남녘세상이 다 잠기도록! 벼락이여, 들부시라 이 어지러운 사회가 산산조각이 나도록!...》

그날을 위해 그는 억세게 살리라 마음 굳게 다지며 두 주먹을 꼭 틀어쥐었다.

그는 이제 거리에 항쟁의 거센 물결이 파도쳐 갈 때면 포장마차를 땅크처럼 굴리면서 불붙는 런던덩이들과 펄펄 끓는 물을 원썬들의 머리에 마구 던지고 퍼부으리라.

그때면 포장마차 《양산박》, 그것은 한갓 한 작가의 불행한 운명을 싣고가는 인생마차가 아니라 원썬들을 짓밟개고 놈들에게 복수와 죽음의 된벼락을 안기는 전투마차가 될것이다.

## 천신폭포 외 1편

전동우

날리는 폭포수 물줄기로 알았더니  
아니여라 다시 보니 비단필이였구나  
한끝은 아득한 하늘끝에 걸려있고  
한끝은 저 멀리 록음속에 사라졌네

내려쫓는 그 소리 물소리로 알았더니  
아니여라 다시 보니 바디소리였구나  
한번 울려 비단필에 은구슬이 수놓이고

두번 울려 비단폭에 무지개가 새겨지네

아, 이렇게도 재간스레 비단을 짜늘이는  
직녀야 어데 있니 나 좀 보자꾸나  
고개들어 불러보니 폭포가 하는 소리  
여보 돌지 않았소? 직녀는 무슨 직녀  
세월이 하 좋아서 산천의 재롱일세.

## 향산의 물

급하게도 흐르는 산골짜물아  
너 산을 버리고 어데로 가나  
누가 너를 잡으러 쫓아오는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줄달음치네

산이 좋아 산에서 함께 살자고  
바위바위 또 바위 막아서건만  
뿌리치며 뿌리치며 웨치는 소리  
기어이 가야 할곳 따로 있다네

벼랑에 산산이 몸이 부서져  
부서져 억만방울 이슬로 뿌려져도  
보아라 풀잎우에서 바위우에서  
다시 굴러내리여 흐르는것을

내 향산의 물을 보고 느끼는 생각  
어쩌면 신통해 네 소원과 내 소원  
꿈에도 너는 어머니 바다의 꿈  
꿈에도 나는 어머니당의 꿈

시조

## 3 천리에 넘치는 동포애의 노래

문동식

### 남녘이여, 그대의 불행을 안고

한강...

이름만 불려도

내 귀전에 울려온다

강쪽을 무너뜨리며

범람하는 홍수의 물결에

떠가는 한조각 문장을 붙잡고

구원을 부르던 애절한 웨침소리

강동구의 풍납동

마포구의 망원동

이름만 불려도

내 가슴 미여지게 들려온다

배수구가 터진

한강의 물살에 희말려드는

집과 집, 마을과 마을에서

터지던 울음소리 아우성소리

오, 거기에는 없다

내가 아침마다 새날의 기쁨안고

무심히 열고 나서는 하나의 문도

어머니들의 정이 깃든 물동이 하나도

거기에는 없다

내가 끼니마다

한가정 식구들과 빙 둘러앉는

푸짐한 밥상도 하나의 숟가락도

벌써 밤이면

선기가 내리건만

그래도 방안이 덥다고

아이들 창문여는 이 순간에조차

거기에선

물란리에 알몸으로 나앉은 겨레들이

무너진 벽체에 몸을 의지하여

추위와 기아에 떨고있거니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

락원과 지옥으로 갈려사는

겨레의 이 참상을 두고

아픔에 몸부림치는 북녘의 마음

공장과 전야에서 그대들의 땀으로

백옥같은 쌀난가리-

옷감과 세멘트를 산처럼 쌓아놓고

동포애의 뜨거운 손길을 보내노니

남녘의 형제들이여

어서 이어가자 혈육의 정을

그대들의 고통을 두고 가슴아파할 사람

피를 나눈 형제 말고 또 누가 있으랴

나처럼 그대들도 제 집을 쓰고

굶주림과 추위를 모르고 살기전엔

오, 나는 정녕 잠들수 없노라

남녘이여, 그대의 불행을 안고

### 해가 되리, 별이 되리

쌀눈하나 떨어질라

쌀귀하나 떨어질라

남녘의 형제들을 마음속에 그리며

내 애지중지 꿰어내는 흰쌀

금이라도 이처럼 고르지 못하리

옥이라도 이처럼 깨끗치 못하리

샘물처럼 솟아나는 겨레의 정은

알알마다 고스란히 깃들어있거니

얼음우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이  
불모의 땅에서 신음하는 겨레들  
살길 막힌 캄캄한 그 어둠속에서  
이 쌀을 가슴에 받아안아

아, 하나의 쌀알도  
사랑의 해가 되리  
하나의 쌀알도  
희망의 별이 되리

## 갈매기

갈매기  
내 얼마나 너를 부러워했더냐  
하루에도 그 몇번 흰날개 펼치고  
남북으로 자유로이 오가던 너를

오, 갈매기  
이제는 네가 나를 따라  
배전에 훨-훨-뿔뿔 펼치며  
끼룩-끼룩-목메여 노래하누나

내 오늘은 섬같은 짐배에  
동포애의 뜨거운 정을 가득 싣고  
꿈결에도 그리던 남녘의 배길 헤쳐  
북평포구로 달려가나니

오랜 세월 막혔던 남북의 배길  
처음 열어가는 짐배의 선장  
그대야말로 이 바다에 영원할  
조국통일배길의 첫 갈매기라고.

## 문들이 열린다

붉은 적십자표식을 단  
자동차대렬이 거리에 나서면  
순간에 열린다  
아빠트창문들이

판자집 문들이-

차마다 가득 실린 혈육의 사랑  
남녘의 겨레들에게 가닿으면  
거기서도 열리리라

오, 그 어떤 분렬의 장벽으로도  
막을수 없는 동포애의 정-  
문들이 열린다  
5천만 겨레의 하나의 마음속에

1984년 9월

## 혈육의 정 넘치는 분계선도시에서

신병강

심장이 있고  
민족의 열이 뛰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 격동적순간  
눈물 아니 흘릴수 있으랴

갈라진 혈육들의 고통을  
백천배를 더하여 안은 우리 당  
은혜로운 그 손길이 열어준 대통령으로  
평양을 떠난 긴 자동차행렬이

여기 개성 송도광장을 지나  
남녘으로, 남녘으로 떠나간다

그 몇몇해만이냐  
갈래야 갈수도 없는 편지를 두고  
전할래야 전할수도 없는 편지를 두고  
오랜 세월 싸이고싸인 분렬의 고통을 넘어  
아, 우리의 첫 구호물자가  
온 민족의 감격속에 개성을 떠나간다

만세! 만세!  
 꽃다발을 흔들다간  
 눈물이 앞을 가리워  
 눈굽을 적시는 백발성성 할머니들이여!  
 만세! 만세!  
 기발을 흔들다간  
 또 감격에 목이 메어  
 울음 터뜨리는 젊은 녀인들이여!  
 -아저씨 꼭 남녘땅 인민들에게 전해주세요

꽃다발을 안겨주며 두발 동동 구르는  
 애어린 소녀의 목을 그리안고  
 운전사도 울고, 소녀애도 울고...  
 -정말 저 쌀이 남녘에 간단말인가?  
 차마 믿어지지 않아 너무도 꿈만 같아  
 할아버지는 또 다른 운전사의 손목을 잡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 사람들이구나!  
 어제날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아버지와 오빠  
 서로 갈라져 40년 세월  
 소식조차 얼굴조차 모르는 안타까움에 모태기며  
 그 무슨 재해가 남녘에 있었다면  
 혹시 그들이 아닐까?  
 장밤 근심속에 뜬눈으로 지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구나!  
 깊은 밤 어찌다 문소리 나도 발자국소리 나도  
 떠나간 아들이 《어머니!》 부르며  
 문득 토방에 올라서는것 같다고  
 차라리 천리 먼곳에 산다면  
 생각이나 덜 하랴만  
 너무도 가까운곳이어서 더욱 가슴 허빈다고  
 눈물 글썽 말끝을 흐리던 사람들이

아 꿈에도 보고싶고  
 생시에도 못잊어 불러보는 혈육들

한없이 은정깊은 우리 당의 손길아래  
 이제 저 사랑의 구호물자  
 판문점을 넘어 남녘으로 흘러가리니  
 어서 받으시라 동포들이여!  
 열자식을 차별하지 않는 부모의 그 마음인양  
 그대들 꼭같이 한품에 안아주시는  
 우리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을

전후의 어려운 그날  
 우리가 좀 허리띠를 조이더라도  
 남녘동포들에게 옥백미를 보내주자시던,  
 한메터라도 더 천을 짜서  
 통일의 날 혈벗은 동포들에게 나누어주자시던  
 우리 수령님의 사랑속에 실려가는  
 그 쌀이고 그 천이다

우리가 한채의 집을 짓고 발전소를 건설하는것이  
 단 우리만이 잘사는것이 아니라시던,  
 조난당한 남조선 어부들에게  
 가장 값진 약이 흘러들게 하자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속에 실려가는  
 그 세멘트고 그 의약품이다

아 민족분렬의 40년!  
 개성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모든것이 단절되더니  
 오늘에 비로소 첫 구호물자가 분계선을 넘어서거니  
 세월의 이끼덮인 송악산, 삼각산아 키를 솟구라  
 서로 마주보는 너의 구간에  
 그 어떤 광경이 펼쳐졌더냐

아, 눈물이 앞을 가리운다  
 마음은 벌써 남녘형제들을 열싸안는다  
 안고서 뽀뽀하며 흐느껴운다  
 그 무엇으로도 가를수 없고 막을수 없는  
 민족겨레의 이 뜨거운 포옹속에  
 통일이여 너는 반드시 오고야 말리라

송도광장에서 9월 29일